



11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11호

(루게 529)



◆◆◆◆◆◆◆◆◆◆ 차 례 ◆◆◆◆◆◆◆◆◆◆

작가들은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가 되자	4
조국의 기상으로	6
전세계인민들이 부르는 축원의 노래	7
백 두 산	7
앞서 걸으시는 길 (외 1 편)	8
맑은 담	8
장자산 오르는 아이들에게	9
왕재산중턱에 세워야 한다시며	10
민 음	11
폭포골에 온 청년	12
기쁜 계절	21
축 복 (외 2 편)	24
가 을	24
보름달	25
은룡덕의 밤에	25
여기에 길이 있다	26

행복이란 무엇인가	29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리상에 대한 형상문제	30
첫 청년절의 밤에	35
기념하라	36
환 송	37
삶의 향기	39
구 내 길	48
투사들의 랑만	49
아, 어머님	50
독 자 증	50
두 녀인	51
그날은 오리라	59
조선의 꽃	70
분단시대 시의 꿈과 정치적신화 문익환, 김준태, 안도현의 신작시집	71

작가들은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가 되자

작가는 정의와 진리의 옹호자이며 인류량심의 참다운 대변자이다. 인간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해온 작가들은 언제나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시대의 선도자로 되었다.

우리 당 사상전선을 지켜선 영예로운 초병이며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영예를 지니고 우리 당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되고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가 되는것은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며 작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당과 수령의 현명한령도를따라 혁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온 우리 작가들을 굳게 믿으시고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로써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투쟁에서 창조와 위훈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수령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를 달려오며 언제나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현시기 당의 요구대로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는데서 돌격대, 결사대의 영예를 지님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다 해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이며 작가들이 전초선을 지켜선 문예전선의 초병들입니다. 작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혁명에 복무하는 혁명가입니다.》

우리 작가들이 주체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비렬한 공격과 비방을 집중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공격과 비방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오

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끝없는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그 어떤 시대의 변천과 소용돌이속에서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며 그 승리를 위하여 적극 이바지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격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사회주의기치를 옹호고수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 모든 탐구와 사색, 열정을 다 기울여야 한다.

작가들이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는데서 전위투사가 된다는것은 곧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있는 문학작품을 잘 창작한다는것이다.

작가는 문학으로 혁명에 복무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문학으로 혁명에 복무함에 있어서 현시기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창작에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를 빛내여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날을 따라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으며 그 앞길에는 양양한 전도가 펼쳐져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밝은 전망을 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심오히 해명해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체득하고 그것이 발현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사회주의의 존재와 공고발전,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의 근

본원천으로 된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가 건설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새 역사를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올수 있었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 계속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주체위업의 빛나는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최상의 영예와 특전을 지니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드시고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게 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아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고계신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령도자를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튼튼히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확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전체 사회성원들이 신념과 의리, 혁명적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기에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은 하나의 생명으로 련결된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배출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다하는 긍정적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고찰하고 미학적으로 분석하고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새로운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침으로 된다. 우리 인민들은 오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주적인 정치생활과 함께 누구나 다 고르게 잘살면서 행복한 물질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참다운 사상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인민이 누리고있는 3대생활분야를 진실한 형상으로 재현할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구가하는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3대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작가들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과 씩씩빠진 자본주의생활, 특히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대비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특히 사회주의 3대생활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역할을 하는 정치생활, 사상문화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가 완전히 실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하며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는 전위투사로,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당의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문학작품의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작품의 사상적대를 튼튼히 세우고 전형화의 요구를 구현하여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진실성은 문학의 생명이다. 문학작품은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주는데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작가들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어 누리고있는 삶의 행복과 보람을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생활력있는 우월한 제도인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 인식시킬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목숨바쳐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고도록 하는데서 충분한 감화력을 발휘할수 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작가의 사상의식이다. 작품은 작가의 정치실무적자질의 직접적인 투영도이다.

작가들이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는 전위투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 창작기량을 소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작가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체득하며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는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어느 한 정책도 력사발전의 객관적법칙과 혁명투쟁의 원리,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것이란 없다.

작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건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의 장엄하고 위대한 현실과 그속에서 펼쳐지는 우리 인민의 풍부한 다양한 생활은 작품의 종자와 소재의 무진장한 원천이며 새로운 인간문제와 수많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끊임없이 배출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낳는 위대한 사회주의현실이야말로 우리 문학에 무진장한 소재를 제공해주며 다양한 형상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참신한 결실을 맺게 하는 풍만한 대지이다. 그것은 또한 창작의 주인인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며 창작적 열정과 환상이 나래치게 하는 원동력이다.

작가들은 자기의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깊이있게 체험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생활을 진지하고 깊이있게 체험할 때 사회주

의기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는데 이바지하는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작가들은 우리의 현실생활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만이 당이 바라는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는 비결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있는 우리 사회의 인간과 생활을 더욱 뜨겁고 열렬하게 긍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기량은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작가들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함께 창작기량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학습과 탐구, 사색과 열정을 다하여야 한다.

작가들이여 !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작가들이 5대명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기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는 전위투사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모두다 당이 안겨준 최대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기대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해나가자.

조국의 기상으로

안명렬

엄혹한 그 세월
삼도왜적을 무찔러
장군봉에서 번쩍이던 장검
정일봉에서 반아드시고
그이 키워오신
무비의 담력 비범한 예지가 깃을 편 정일봉아

문노니
깎아지른 저 아슬한 절벽을 감도는
소백수의 맑은 물은
짓밟힌 강토의 울분이 맺히고 맺혔던
수난당한 인민들의 피눈물을 가시여준
그이의 맑고 깨끗한 마음
이 강토를 꽃피운 은혜로운 샘물이 아니냐

원췌 격멸에로 부르던 나팔소리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맞이할
개선광장에 울려퍼질 노래를 들으시며
그이 그려보신 광복의 새 아침이며
그이 꽃피가시는 눈부신 조선이며

만년장설 한몸으로 녹여주시며
여기서 가꾸신 아름다운 조국강산
락원의 절경이
정일봉의 저 푸른 기암마다에 얹혀있었구나

눈비를 맞으시며 걷고걸으시며
그이 뿌리고 뿌리신 사랑의 씨앗
주렁진 황금의 열매는
정일봉의 열화로 무르익힌것이구나

후손만대 자랑할 이 땅의 기념비들
그이 일으켜세우신 우리 당의 위용
누리를 무색케 하는 그 빛발은
정일봉의 노을로 꽃피놓은것이구나

그래서나
정일봉아
눈보라와 폭풍, 번개와 폭우
네 봉에 꽃혀도
저 은빛 설경의 꽃처럼 시들줄 모르며
너는 머리 숙일줄 몰랐더냐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
한가슴에 안겨오는 정일봉
눈부신 래일을
그이의 세계로 펼쳐며
승엄하게 안겨오는 정일봉아
조국의 기상으로 온 세상에 빛나라 !

전세계인민들이 부르는 축원의 노래

씨. 카피조

유서깊은 만경대에
위대한 태양이 솟아
온 세상 사람들 녀원하는
인류의 새봄이 꽃피랸네
아—**김일성**
아—**김일성**
전세계인민들 우러르며
축원의 노래를 부르네

위대한 주체사상 창시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 주인이 된
자주의 새 시대 펼쳐주셨네
아—**김일성**
아—**김일성**
전세계인민들 우러르며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네

(필자는 탄자니아 교육 및 문화성 일군임)

평화와 자주 위해

백 두 산

조세프 느따리

장엄하여라 그대 백두산이여
위대한 어머니와도 같이
세계의 영웅을 낳아준 그 품

새 조선에 리상사회 세우신 인민의 지도자
온 세상 인민들 우러러따르는 향도성
그 이름 위대한 **김정일**동지

사람들 그대 우러러 눈길 떼지 못하고
그대를 잊지 못해

불멸의 노래 불러 전하여라
오 백두산 백두산
그대 인류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어머니품이여

위대하구나 백두산이여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성지여

(필자는 콩고음악가임)

앞서 걸으시는 길 외 1편

리일섭

생활의 밝은 노래 넘치는
이 땅의 하많은 고장
내 들려본 일터
만나본 사람마다
하나같이 기뻐하는 말

-여기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몸소 다녀가신곳이라오 !

저마다 자랑에 자랑을 보태며
끝없이 꽃피우는 이야기
또다시 뵈고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꿈처럼 전해가는 그 이야기
어디 가나 전설처럼 차고넘쳐

물노래 정다운 북변 발전소에 가면
젊은 기사동무 눈물 글썽하여
그이는 조업 앞둔 우리 일터를 보시려
저 험한 령길을 넘어오셨다고...

해풍 서늘한 동해기슭에 가면
머리 흰 장령동무 감격에 젖어
그이는 이고장 경치를 부감하려
저 넓은 바다길로 다녀가셨다고...

허나 그 이야기속에 누구나
감명깊게 덧붙이는 똑같은 한마디-
그이께서는 자동화된 일터에
더 경치좋은 명승지에
아버이수령님 모시려
평양에서 그 먼길 앞서 다녀가셨다고!

뭉쿨!-
들을수록 가슴젖어
새길수록 뜨거움은 솟구쳐
북방의 계곡처럼 깊어지는 생각이여
동해의 창파처럼 일어번지는 걱정이어

아, 한가지 일을 해도
천만가지 일을 해도
오로지 수령님 기쁨 위해
천리 북변 굽이굽이 먼저 돌아보신 그이
세찬 파도 이랑이랑 먼저 헤쳐보신 그이

참으로 수령님 위함이라면
이 땅의 끝에서 한끝까지
비바람 찬 눈비 다 맞으시며
언제나
그 언제나 앞서 걸으시는 길이어

거룩하신 그 자옥우에
수령님 구상은 현실로 꽃피고
먼저 맞으신 그 눈비우에
수령님 피로는 봄날의 하늘처럼
맑게, 맑게만 가셔지는것 아닌가

오, 이 땅의 기슭은
천리 또 천리에 끝나도
그이 앞서가시는 길 끝이 없어
우러러따르는 천만심장들
영원한 충성의 그 길우에 살아라

맑은 담

금굴이라 깊은 골
북대천기슭을 거슬러오르며
맑은담 있다하여
내 걸음걸음 찾아보았더니

오르고 또 올라도
북대천 흐름을 멈춘곳

맑은 물 고여있는 담은
그 어디에도 없어

은구슬 금구슬 께미런듯
해빛에 부서져 흐르는 물뿐
행복의 정다운 속삭임인듯
끝없이 어울쳐 내리는 물뿐

못찾아 더는 못찾아
내 또다시 물었더니
길손들 웃으며
북대천을 가리켜
맑은담이라 자랑하듯 말했네

순간, 찢－가슴 찢어드는 생각
흐르는 물속에 두손을 잠그니
물결우에 조용히 떠오르는 미소
친근한 지도자동지 그 영상이여

...그 옛날 탕수만이 넘쳐흘러
쓸모없이 버림받던 물

광부들 눈물과 한숨이 서려
원한만을 더해주던 북대천

오늘은 로동당시대 새 전설 노래하며
은룡덕넘어 버림물배관은 빨고
맑음을 다시 찾은 물결우에
해와 별 찬란히도 비쳤으니

아, 북대천 북대천
그 흐름 흘러흘러 끝없어도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은
억년 고여고여서 떠날줄 몰라
맑은담, 맑은담이여

장자산 오르는 아이들에게

한 호

가래나무 구름나무 우거진 숲속으로
자개돌 바위돌 어루만지며
내리는 물소리
물소리만이 아니란다

전화의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여기 오시여
마을 아이들을 학습터에 불러
다정히 글 배워주시던
다심하신 그 음성이
장자천 물노래에 어려있단다

목란꽃 피여 웃는 저 언덕에
푸른 아지 저으며
설레이는 잣나무를
무심히 보지 말아

포연속에 우리 당창건일을 맞던 그날
어리신 나이에든 감회 깊으시여
동생과 함께 심으신 잣나무는
조국의 승리를 확신하신
그이의 푸른 꿈이었단다

산에 몸소 오르시여

손수 따신 까만 머루를
마을의 농민에게 드리신것은
언제나 인민을 사랑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마음이였고

장자봉에 오르시여
《만세!》 높이 부르시며
자주 벌리시던 군사놀이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가실
령장이 익히는 전법이었던다

산너머 포성이 울려와도
저 멀리 전선에 계시는
아,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고 바라시던
그이의 그 축원은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어서
오늘도 장자산에 깊이 뿌리내려있나니

아이들아!
너희들의 등산길은 여기서 끝나도
길이 끝나는것이 아니구나
친애하는 그이를 따라
한생토록 배우며 갈길이 여기 있단다
조선이 배우며 갈 큰길이 여기 있단다

《우리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 위해 한몸바쳐 싸우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추호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김정일

☆송고한 충성☆

왕재산중턱에 세워야 한다시며

왕재산대기념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3년 3월 몸소 조국땅에 나오시여 역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여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끄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대서사시적기념비이다.

1973년 봄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앞두고 혁명의 성지 왕재산에 대기념비를 세울것을 받기하시고 그 형성안을 만들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만수대창작사에 맡겨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왕재산혁명사적지를 세계적인 참관지로 꾸리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드림없이 내일도록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커다란 흥분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왕재산대기념비를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그이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안고 기념비형성안작성에 앞서 왕재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그런데 현지를 돌아보면서 기념비창작의 종합적인 설계를 무르익혀나가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작품창작의 첫 공정인 기념비위치선정에서부터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대기념비로 역사적인 회의장소인 왕재산마루에 세워야 하겠는데 지형으로 보아 자리가 너무 좁아서 기념비를 폭넓게 전개할수 없을뿐아니라 답사자들을 위한 교양마당도 제대로 형성할수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토의를 거듭하던끝에 기념비를 비록 사적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지대가 넓어 기념비건설에 유리한 왕재산과 잇닿아있는 장덕산마루에 세우기로 하였다. 그들은 곧 긴장한 전투를 벌려 왕재산대기념비형성안을 만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업이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창작현장에 친히 나오시여 그들이 만든 미숙한 형성안을 보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형성안을 살펴보시다가 미소를 지으시며 왕재산대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려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왕재산과 잇닿은 장덕산에 세우려 한다는 한 일

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왕재산대기념비 위치문제는 좀더 연구하고 토론해보자고 하시었다.

그후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할 미술작품을 보아주시면서 인차 시간을 내어 왕재산에 가보고 기념비 위치를 확정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1974년 5월 중순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왕재산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렬차로 온성에 도착하신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천리 현지지도의 길에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방금 비가 내린 험한 진창길을 밟으시며 곧장 왕재산으로 향하시었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수 수풀을 헤치시며 왕재산에 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이윽도록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혁명전적지를 부감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만강을 건느시여 조국진군의 첫자욱을 남기신 타막골이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역사적인 왕재산회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이 활동하던 장소들...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처음으로 조국에 진군하시여 주체의 찬란한 빛발을 뿌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을 더듬으시는듯한 그이께서는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었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왕재산에 세울 대기념비형성도를 보자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퍼올린 도면에 표시된 대기념비의 위치를 지형과 여러모로 연결시켜보시면서 왕재산대기념비는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역사적인 회의를 지도하신 자리인 왕재산중턱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대기념비를 사적지가 아닌 장덕산에 세우면 사람들이 그곳을 왕재산으로 잘못 생각할수 있고 앞으로 강사들이 사적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바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답사자들의 참관 로정으로 볼 때도 사람들이 먼저 왕재산에 올라와서 대기념비와 기본사적지를 본 다음 옆봉우리로 돌아내려가게 하여야지

다른데로 빙빙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대기념비와 사적지를 보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념탑이라면 의례히 산정점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도식이라고 하시면서 대기념비를 장덕산정점에 세우는것보다 사적지인 왕재산중턱에 세우면 오히려 수령님의 동상이 허공에 내놓이지 않고 자연풍경과 조화를 이루어 배경도 더 좋아지게 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비로소 그이께서 초안을 보아주시실 때 위치문제에 대해서만은 좀더 연구해보라고 하시던 말씀의 참뜻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념비위치문제를 단순히 기술실무적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현세대 뿐아니라 후세에 가셔도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로 보시고 기념비창조 이론과 방법을 밝혀주신것이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그이께서 기념비의 위치를 정하는데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할 기념비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기념비에 미치게 될 자연의 영향까지도 일일이 헤아려보시고 친히 적중한 자리를 정해주시는 그 숭고한 충성심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왕재산대기념비 위치선정으로부터 그 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지도자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새로운

형성안을 만들었다.

그러던 1974년 5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왕재산대기념비형성안을 새로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로 부르시였다.

자정이 훨씬 지나 집무실에 돌아오신 그이의 안색에는 피로의 빛이 어려있었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일군들을 반갑게 맞아주시였으며 오래동안 기다리게 해서 안되였다고 하시며 즉시 왕재산대기념비 형성안을 보아주시였다.

형성안을 주의깊이 살펴보시던 지도자동지께서는 왕재산대기념비 위치를 기본회의장소인 왕재산중턱에 정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력사적사실그대로 만대에 길이 전하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저도 모르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이 충성의 열정이 높지 못하다보니 위치선정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큰일을 하느라하면 파오도 범할수 있는데 결함을 고쳤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또다시 크나큰 고무와 믿음을 주시였다.

일군들은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왕재산기념비의 위치선정문제는 이렇게 빛나게 해결되였다.

민 음

김창규

나는 새는
나래가 귀중하듯이
우리에게 귀중한것
당의 믿음이다라

그 믿음 없으면
우리의 숨결은 끊어지고
그 믿음 있으면
누구나 영생하나니

그 믿음 저버리면
속물이 되고

그 믿음 뜨겁게 보답하면
영웅으로 빛나더라

살아도 그 믿음 간직하고
죽어도 그 믿음 간직하는것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행복

믿음
너나없이 귀중한 당의 믿음은
어느때 어느 순간도
깊이깊이 간직할 우리의 심장

폭포골에 온 청년

조인영

한여름의 햇빛을 피하느라 잔잔조름하게 쪼프린 눈, 가무잡잡하니 그늘은 얼굴살갗, 솔뚜껑같이 큼직한 두손, 밭고랑을 넘겨디디는데 습관된듯 징징징 무릎관절을 굽혔다 폈다하는 걸음걸이... 이것이 폭포골분조장 리종무의 초상이다. 작달막 한 키에 몸통이 다부진 이 령감이 폭포골에서 스무해도 넘게 분조장을 해온다.

그는 분조원들이 잘 따르는 분조장으로 소문이 높다.

그 비결이 무언가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신작척이라고 했다. 뭐니뭐니해도 분조장이 실농군으로 막히는 일이 없이 앞장에서 내끄니까 분조원들이 잘 따른다는 것이다.

아침나절에 종무분조장은 폭포골주변의 남새포전에서 분조원들을 앉혀놓고 작업조직을 했다.

그가 보기에 요즈음 분조원들의 작업복차림이 어텐가 지나치게 환한 감이 들었다. 작업복이 깨끗하니 흙다루기와 거름주름새가 더덜것만 같다.

그건 어쨌든 작업조직이나 하고난뒤 분조원들의 기분을 잡치지 않게 슬쩍 지나치는 말로 지적해야 할 일이다.

《...에 탄실이 어머니는 꽃삽으루 영양단지모를 쓰시우. 그러되 꼭 물을 주고 떠야 합니다. 물 한초롱에다가 류안비료 한두술가락을 타고 약간의 핵사를 섞어서 그걸 한평에다가 주슈. 명심할건 그렇지, 영양단지를 한덩이도 깨버려선 안되겠수다. 영양단지가 모자랄것 같아요. 빈땅을 남기면 어찌겠수. 노동자, 사무원들의 김장단지를 곱게 할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구 두 갓난애기어머니들은 배추영양단지를 나르시우. 삼태기에다가 한벌로 쪽-깎아가지고 나르되 덧쌓는 일이 있어선 안되우다. 단지가 상하니까요. 거리가 멀어지면 나르기가 딸릴거라구요?

원 참, 걱정두 팔자웨다. 그땐 내가 있지 않소. 난 그저 이것저것 눈치를 보가며 딸리는 일에 년떡년떡 머리를 디밀레니 넘려마슈. 그러구 탄실이 너는 거름, 아니, 안되겠다. (분조장은 알락달락 점무늬가 있는 탄실의 고운 옷웃을 띄여본것이다.) 그건 내가 하지. 넌 비료를 펴구어라. 한 구멍이에 알사탕 한알만큼씩. 질소 다섯에 카리 둘, 린비료 셋의 비율이다. (사실 이것은 며칠전에 기술지도원이 대준 수치와 꼭 맞는지 알수는 없었으나 여러해의

경험으로 미루어보건대 그럭 무난한 배합비율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구 자네 명호...》

여기서 빨래줄처럼 길고 청산류수와도 같이 거침이 없던 종무분조장의 구변이 잠시 흐리마리해지는 가싶더니 그만에야 고드름처럼 동강이 나고말았다. 명호라는 청년은 뒤달전에 원산에 있는 어느 기업소에서 독신으로 자진하여 농촌에 진출해 온 청년이다. 폭포골은 리소재지에서 7리나 떨어져있고 합숙같은것도 없어서 그는 지금 분조장네집에서 한식구처럼 지내고있다.

명호는 종무와는 달리 마디마디가 길쭉하고 몸매는 호리호리한게 기계체조선수와 흡사했다.

게다가 기틀이 의젓하고 생각 또한 깊어서 이제까지 시키는일은 무엇이나 가림없이 수직수직 잘 해제끼였다. 종무는 그가 몇해만 자기 손탁에서 치워나면 얼싸한 분조장감으로 자랄것이라고 여기면서 은근히 그의 일본새를 다잡는데 원심을 써오느라이다.

그런데 이 아침에 작업복을 지내 말끔히 다려입고 나온것이 어텐가 농장원의 면모를 갖추에 있어서 손색을 끼치는듯싶었다. 요사이 분조원들 특히 젊은애들의 옷차림이 별스레 깨끗해진다싶었는데 그게 바로 명호를 닮아 그런것 같다.

《자넨 무슨 일을 시킨다?》

그는 명호가 눈치를 채라는듯이 그의 깨끗한 작업복에 두루 눈길을 주면서 고개를 기웃거렸다.

《아무일이나 시키십시오.》

명호가 의젓한 자세로 종무를 바라본다. 아무래도 눈치를 못챜 모양이다.

《자네 차림새가 지내 깨끗해서 그래.》

《예-에.》

명호는 그제서야 알았다는듯이 빙긋이 웃는다.

《작업복도 이 아름다운 고장과 어울려야지요.》

말을 들어보니 나무랄나위가 없다.

그것참, 폭포골의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없이 기특했다.

《그럼 두엄을 좀 날라다주게. 좀 어지럽긴 하지만 어찌겠나? 모든일에 익숙돼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영양단지를 묻으시우. 쾅쾅. 걸썩 해놓았다가는 바람이 슬슬 통하면서 단지를 버썩 말리웁니다. 자, 일들을 시작합시다.》

그는 제먼저 삼태기를 하나 들고 거름더미쪽으로

뛰어가려다가 문득 돌아섰다.

작년에 졸업하고 배치받은 탄실이 또래의 두 총각에게 작업분공을 주지 않은게 생각났던것이다.

《옹지, 너희들은 구멍이를 파자. 그게 선차다. 그게 처지면 모든 일이 다 늘어지니까. 가만, 구멍이는 톱날식으로 파는걸 잊지 말아라. 평당포기수를 많이 배치하는 조건에서 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는거다. 자, 이제 지기 말은 일로 앞으로...》

종무는 익살을 섞어가며 흡사 어린아이들 뽀박질시키듯 두손을 앞으로 펼쳐보이였다.

종무분조장은 어느사이에 제먼저 두엄더미에 달려가더니 제일 큰 싸리삼태기에다 거름을 듬뿍 퍼담았다. 그리고는 무거워진 삼태기를 배허벅에 붙여안고 툭툭툭 발고랑을 넘겨디디며 달려내려왔다. 그런데 총각애들이 구멍이를 많이 뚫을리가 없다. 그러자 종무는 기다리고있는 시간이 아까와서 영양단지 뜨는데로 달려올라갔다.

거기서 비료물도 뿌려주고 같이 뜨기도 하면서 일손을 도왔다. 총각들이 구멍이를 얼마쯤 파자 어느사이에 자기 진지로 돌아온 종무는 삼태기에 담은 두엄을 구멍이에 넣기 시작하였다.

두엄은 벼짚과 풀같은것이 서로 엉켜서 한창 뜨기 시작하는것이어서 막상 적당한 량으로 갈라내기가 어려웠다. 호미를 가지고 하자니 시간만 걸리였다. 탄실이는 벌써 비료를 떨구며 저만치 앞서나갔다.

《분조장 말은 일이 팔립네다.》

단지를 날라온 아낙네들이 분조장을 다그어댔다.

종무는 바빠났다. 그는 드디어 예라, 모르겠다. 손은 두었다 뺏에 쓰라 하듯이 마디가 짧고 몽푼한 손을 거리대 대신으로 거름을 움켜쥐였다. 그리고는 손 켜 주부 밀레기 뜯어내듯 알맞춤한 크기로 두엄을 집어서는 구멍이마다에 투덕투덕 던져넣었다.

명호는 부지런히 거름을 날랐다. 한삼태기 날라다 놓으면 어느사이에 다 뿌려치운다.

명호도 이랑사이를 정중정중 뛰어다녀야 했다.

듬뿍 퍼담은 거름삼태기를 종무앞에 털썩 가져다놓았을 때였다.

《후유, 거름놓기도 바쁘구나.》

종무는 그 바쁜것이 오히려 즐거운듯 혈금씨금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분조원들의 작업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한동안 그러고있는 종무의 거름 묻은 손을 이윽히 내려다보던 명호가 리해되지 않는다는듯 입을 열었다.

《분조장아바이, 거름주는 일을 꼭 손으로만 해야 합니까? 다른데서는 기계화한지가 오랜데 그게 됩니까?》

그랬더니 종무는 오히려 이때라는듯이 제 주장을 력설한다.

《말두 말게. 어데선가는 뭐 도마도 따는 척척이를 만들어서 밭에 내몰았다나. 그런데 처음 한동안은 빨간걸루만 골라따더니 무슨 생각장치인가가 형클어졌다든지해서 파란것 썩꼬만것 닥치는대로 따가지고 켜뿌리는 통에 약차한 손실을 봤다는구만. 로보트니 뭐니 해도 농사일엔 아직 사람의 손이 젤이야요. 제일.》

종무는 거름묻은 제손을 자랑하듯 앞애다 내흔들며 자못 긍지롭게 엮어댔다.

《에그, 우리 분조장이주머닌 그저 손이 제일이라지.》

탄실의 어머니가 웃음띤 얼굴로 분조장을 핀잔했다. 종무는 무언가 심각한 생각에 잠겨있는듯한 명호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다물라는 시늉을 했다. 분조원들은 종무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웃기도 했지만 명호만은 그러지 않았던것이다. 어느덧 한낮이 가까와 해빛은 자글자글 내려쬐인다. 종무는 넓은 밭을 종횡무진하며 거름나르기와 단지 심기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 언뜻언뜻 몸을 디밀어 걸쭉하게 해제진다. 그의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했다. 그는 분조장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 아주머니들과 처녀총각들이 자기의 목덜미를 굴러내리는 신성한 땀방울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곧 분조라는 배의 추진력으로 되며 그것이 곧 분조라는 한가정의 화목의 전제라는것을 그가 모를리 없는것이다. 어느덧 일이 고조에 올라 영양단지 뜨는 조가 딸리자 종무는 얼른 그리로 달려갔다.

거기서 함께 단지를 땀다.

방금 솔솔이주둥이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을 함뿍 맛은 파르레한 배추잎사귀 가장자리에는 옥구슬같은 물방울이 아롱아롱 맺혀있다. 동그란 영양단지 겉면으로는 한창 애어린 솜뿌리들이 보시시하게 곱광이처럼 내돌쳤다. 일에 걸쭉한 종무이건만 영양단지를 다룰제면 금방 까나온 콧병아리 다루듯한다. 아차하여 금이 간 단지가 생길라치면 그것을 두손으로 꼭 움켜쥐고 발이랑을 따라 달려간다. 깨질뻔한 단지를 구멍이에 묻고나서는 마치나 갓난애기 잠이라도 채우듯 꼭꼭 두드려주고서야 일어난다. 이런 종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땅에 대한, 폭포골에 대한 그의 사랑을 가슴후련히 느끼게 된다.

종무는 몇번인가 명호가 꼭 자기처럼 영양단지를 줍에 싸쥐고 달려가는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정성스레 묻어주고 다독여주고 또 자기처럼 만족한 표정으로 일어나는것을 보았다. 그렇게 점점 자기를 닮아가는듯싶은 명호를 보는것이 종무의 기쁨 가운데 하나였다.

드디어 종무분조장이 피춤에서 오래된 회중시계를 꺼내었다. 하루 시간관차가 앞뒤로 사오분을 오락가락하지만 산골분조 하나 끌고 나가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시계였다. 그런데 흔히 당하게 되는 일이지만 종무는 때때로 시간을 보지 않아도 될걸 하고 후회하는 때가 많다. 오랜 전야작업에서 터득된 조건반사라고 할가, 어쨌든 그는 시간을 5분이 나 10분 편차로 알아맞히는神通한 재간이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사오분을 앞둔 열두시였다.

《자, 이제 점심들을 먹고 합시다.》

종무분조장이 흥픈 소리로 웨쳤다.

《아직 10분전인데요.》

손목시계를 내려다본 명호가 의아한 눈길로 종무를 바라본다.

《사람두, 여기가 뭐 싸아렌 올리는 공장과 같은가.》

종무가 히무룩이 웃어보인다.

《그래두 집단을 움직이려면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지요.》

다른 분조원들은 벌써 폭포아래에 이르러 손들을 씻으며 서로 물기엿을내기를 하면서 벽적 떠든다.

명호는 삼태기에 담은 영양단지모를 들고 가서 구덩이에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흙을 톱톱 묻어주기 시작하였다.

(허참. 사람이 고집스러운데도 있구만.)

종무도 할수없이 명호와 함께 이미 떠놓았던것을 마저 심어야 했다. 그것을 다 심고나니 어느덧 열두시가 되었다.

×

싸아 우르릉—수천만년 인류가 길들이지 못한 땅수가 철창안에서 표호하는듯한 폭포소리가 귀를 멍하게 했다. 그 소리는 절벽에 부딪쳐 골안에서 떠돌았다. 폭포수가 내리쬔힌 소에서는 푸른 물이 흰거품을 띄워올리며 거대한 가마처럼 부글부글 끓고있다. 명호가 절벽아래에 가까이 다가가니 내리쬔는 폭포의 비말이 온통 온몸에 휘뿌려졌다. 그는 막 벗겨져 중천으로 날아가버리려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서있었다.

《명호, 보라구. 얼마나 장쾌한가!》

종무는 폭포의 비말이 그려내는 연한 무지개를 배경으로 흐뭇이 웃고있었다.

탄실이가 분조장의 목직한 밥보자기를 따끈하게 달아오른 너럭바위우에 펼쳐놓았다.

오늘은 폭포앞에서 일하는만큼 산놀이삼아 점심들을 싸오자고 해서 애기어머니들만 내놓고 모두 모여앉았다. 아낙네들의 관심은 분조장의 밥보자기

에 쏠리었다. 명호의 점심도 한집안식구처럼 한남비에 담았는데 굵은 햇당콩을 다문다문 섞은 밥은 서너티서도 못다 먹을만치 많은 량이었다.

탄 소랭이에는 보라빛 생추와 쭈갓이 가득하고 흰종발에는 김붙은 고추장이 무득하다.

말린 산천어튀기며 닭알볶음에다가 도라지무침에까지도 알뜰한 새며느리의 정성같은것이 깃들여있다.

《에구나, 진출자총각을 집에 맞더니 분조장아주머니 공대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려.》

탄실의 어머니가 너스레를 떠난다.

《조상님 덕에 흰쌀밥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종무도 기분 좋게 받아넘기었다.

종무는 맛갈스런 반찬들은 명호앞에 밀어놓고 자기는 생추소랭이에 마주앉았다.

《자, 진출자총각. 이것도 맛보게.》

《이것두 집어보라구.》

색다른 반찬들이 명호앞으로 거둬 날아든다.

《아, 이제 그만들 두십시오.》

명호는 얼굴을 붉히며 사양했으나 한집안처럼 오는 인정에 가슴이 훈훈했다.

《뭉니뭉니 해도 쌀이 제일이야.》

종무는 어느사이에 주먹덩이만치 크게 뭉그린 쌀을 와구와구 입안에 밀어넣으며 반병어리소리를 냈다. 명호는 그 모양이 우스워서 얼굴을 돌리고 입을 싸쥐는데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시끄스른다.

《에그 참, 씹맛이 좋기두 하겠시다. 아까까지 두엄칠을 했던 손으루다...》

그러자 와—하고 웃음보가 터졌다.

그바람에 명호도 하하 따라웃었다.

《자네 뭉가 우스워 그러나. 원참, 농부의 손이란게 그런거지 뭉. 그래두 맑고 시원한 폭포물 물에 행구어냈으니 일없네, 일없어.》

그는 또다시 손바닥만큼씩한 상추잎 너덧잎에다 쭈갓 서너대를 분질러놓더니 거기에다가 반순가락이나 되는 고추장을 떠서 백하고 문대었다.

그리고는 밥 한순가락을 크게 떠서 올려놓더니 밥알이 새어나올가봐 저어하듯 상추잎사귀를 정성스레 꼭꼭 여며가지고 주먹덩이만한 쌀 한뭉치를 들었다. 그러더니 쭈갓을 고추장에 찍어먹는 명호를 보고 말했다. 《자네도 어서 쌀을 싸라구. 응. 왜? 쌀 쌀줄 몰라 그러나? 체네들이랑, 아주머니들이랑 있어서 그러는 모양이로구만. 그럼 이걸 받게. 자, 입을 벌리라니.》

종무는 우정 익살을 섞어가며 재촉한다.

《아닙니다. 난 원래 쌀을 좋아하지 않아요.》

명호는 분조장의 씹덩어리가 금방 체임으로 들어 오기라듯 하듯 질겁해서 몸을 뒤로 제끼며 손세를

저었다.

《이 사람이 아직 우리 농촌생활에 절어지지를 않아서 이런다니. 하긴 동식물도 그렇지. 멀리 옮겨놓으면 인차 환경에 순응되지 못하거든.

농촌진출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걸이나 속이나 알쭉히 흙냄새를 피우는 실농군이 돼야 제구실을 하게 된단 말야. 생물학에서는 이런걸 풍토순화라고 하지.》

종무는 제법 제판의 유식을 뽐내듯 점잖게 이르고는 분조원들을 의미있게 둘러본다.

분조원들은 종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손가락질을 멈춘듯했다.

《분조장아바이, 그거야 동식물에 한한거지요.》

명호가 리해되지 않는듯 물었다.

《웁겐, 이고장에 정들이지를 못해서 비실비실 속을 앓다가 되돌아간 사람이 한둘이라구?》

종무는 자신있게 매듭을 지으려들었다.

《풍토순화라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유?》

탄실이 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다.

《나도 이왕에 농장대학때 배웠시다. 동식물이 새로운 기후와 자연조건에 순응하는거예요.》

종무가 제법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에-에.》

아낙네들이 머리를 끄덕인다.

어느사이에 생추쌈을 다 먹어버린 종무는 그것이 좀 맛발랐던지 《거 좀더 싸겠지.》 하면서 자리에 없는 마누라를 나무랐다.

점심을 마치고난 분조원들은 한창 이야기관을 벌리었다. 뉘집 처녀총각 약혼한 얘기, 뉘집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친어이딸보다 다정하다는 얘기, ...아낙네들은 서로 말꼬리를 물지 못해서 할 얘기를 못다하는 눈치다.

《모여앉으면 그저 시시평평한 소리뿐이라니. 아, 이런 명승에 와서 저 폭포를 바라보느라면 무슨 시구절이라도 떠오르는게 없수? 애 탄실아, 너 시 한번 읊어봐라. 저 폭포를 향해서 말이다. 그래야 폭포골의 새세대야.》

종무가 이렇게 구슬렸으나 워낙 암전내기인 탄실은 입을 싸쥐고 돌아앉는다.

그러는 판에 명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폭포의 비말에 젖어서 번들거리는 흰 깨바위돌에 험큼 올라서더니 한손을 허리에 짚고 한손은 하늘로 쳐들었다.

분조원들은 그 모양이 의아해서 눈길을 모으는데 그의 입에서 창창한 시구절이 울려나왔다.

《너 한적한 고장을 흔들어깨우려 내리쨍느냐 폭포여! 외진 구석에 버림받은 설음을 내뿜는거나 폭포여! 오랜 세월 하는일 없이 쨍고 쨍은 너 건달 폭

포야, 내 너를 휘여잡아 마소처럼 길들여버릴테다!》

명호는 잠시 허공에 내뻗친 손을 멈춰세우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멋진 동작을 취했다가 급석 허리를 굽혀 《이상입니다!》 하고는 훌쩍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짜짜그르 박수가 터졌다.

시의 내용을 음미해볼 여유는 없었다.

그저 명호의 시웁는 재주와 멋진 몸가짐이 분조원들의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거 참, 인제는 인재로군.》

종무가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런데 여보게, 거 갑자기 건달폭포라는건 무슨 소린가?》

그제서야 분조원들의 눈길에 의문을 담고 명호에게로 쏠리었다.

《아무일도 하는게 없이 내리쨍기만 하는게 그럼 건달폭포가 아니고 뭇니까?》

《아니, 그럼 폭포가 김을 매겠나? 거름을 주무르겠나? 거 생각할수록 가을 빠꾸기소릴세그려.》

종무의 말에 분조원들은 호호호호 웃어댔다.

《이를테면 저 폭포는 전기란 말입니다.》

그제서야 종무의 두눈이 번쩍 떠졌다.

《하긴 그렇지, 하지만 누가 저 폭포를 휘여잡아 전기를 뽑아내겠나?》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명호가 확신성있게 말했다.

《그랬으면 얼마 멋있겠나!》

종무는 담배 한대를 구수하게 들이빨면서 머리를 기웃거리는데였다. ...

일을 마치고 작업총화를 지은뒤 종무는 숲속에서 바짝 마른 강대 한짐을 지고 나왔다.

한가마밥을 먹고 지내는 명호도 아닌보살을 할수가 없었다. 집에 거의 다 왔을제 명호가 입을 열었다.

《분조장아바이, 나무짐 지는 일에서 해방시켜 드릴가요?》

《자넨 정말 사람 웃기는 소리 종종 하는구만.》

종무가 못미덥다는듯이 시답잖게 대꾸하였다.

《두고보십시오. 난 한다면 꼭 하거든요.》

명호가 진정으로 말했다.

《어디, 그래보게. 내 자넨 떠안고 다니지.》

《정말 그러지요?》

《아무렴.》 두사람은 신바람나서 집마당에 들어섰다.

×

멀리 폭포골에서 좌좌- 하는 울림소리가 그침없이 들려오고 청송맞은 소쩍새 울음소리가 느닷없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보름달이 다 되어가는듯 한쪽 가늠이 약간 이지러진 둥근달이 얼핏얼핏 구름속에 숨었다가 얼굴을 내민다.

옷방이 벌스레 조용하다는 생각이 든 종무는 발뽕발뽕 밖으로 나왔다.

(이사람이 어델 갔을가?)

종무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집주변을 두루 살피었다. 그런데 옆마당에서 명호가 얼씬거린다.

《자네 달구경하나?》

종무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늑가스탕크를 어데다 만들가 생각하는중입니다.》

《아니, 자네 메탄가스화를 진짜 해보려나? 힘들것 같으면 그만두게. 여기야 맨 나무젓다. 다부진내 체격이 그따위 겁분한 싹다리나무에 지칠것 같은가?》

종무는 명호를 안착시키려고 조용조용 말했다.

《아니예요. 다른데서 다 하는데 우리 폭포골이라고 못하겠나요?》

명호가 이렇게 주건을 세우자 종무가 명호의 팔을 잡아 이끌면서 타이르듯 말했다.

《자네 저녁이면 심심하니까 별 궁리를 다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

종무는 명호를 아래방으로 이끌었다.

《여보, 마누라 거 좀 올려오우.》

겉보기에는 얌전한것 같으나 덜렁거리는 성미인 종무의 마누라가 기다렸다는듯이 개다리소반에다 큰 비닐소꿉이를 얹혀가지고 들어왔다. 누르끼레한 청주가 넘어날듯 가득 담겼다.

종무는 사발에다가 청주를 하나 가득 부어서 명호에게 내밀었다.

《쭉 마시게. 이건 우리 마누라 솜씨세. (그는 울대뼈가 골격골격 오르내리도록 시원스레 마시고 나서 계속했다.)

자네 적적한거야 내 다 알아. 앞에도 산, 뒤에도 산, 그저 눈만 뜨면 산이니 살뜰한 맛은 없는 고장이거든.

하지만 이고장과 여기 일에 정을 붙이면 그런대로 살맛이 있다니. 그러저럭 풍토순화가 되느라만 자네도 나처럼 거름을 꺼리낌 없이 주무를수도 있게 되고 농사일 만사를 막힘이 없이 해제끼게 된단 말일세. 자, 말은 그만하고 어서 들자구.》

명호는 사발안에 가득 담긴 음료를 죽- 들이켰다. 들쩍지근하면서도 쫄한, 그리고 싹쌀하게 주정이 느껴지는 썩 잘된 청주였다.

속이 훈훈해나면서 기분이 붕-뜨는게 알릴즈음

이었다.

《내 한마디 유감스러운 소릴 하라나?》

자네 여기 나올 때 도시체네 하나 척 데리구 나온게 탈이야. 그래 눈맞은 체네 하나 없어?》

종무는 작고 잔잔조름한 두눈을 빛내이며 명호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었다.

《왜 없겠나요. 있지요.》

명호가 종무의 의문을 단마디로 풀어주었다.

《색시감이 있단말이지.》

종무가 반색하였다.

《아니 그럼 저레 달구 올게지.》

마누라가 드디어 참견하였다.

《그런데 튀었습니다.》

명호가 씩씩하니 대꾸하였다.

《튀다니? 왜 튀단말인가?》

종무가 자못 유감스러운 인상이다.

《왜는 왜겠습니까? 처녀가 못오게 되었지요.》

《저런 변이 있나? 왜 여기 산골에 오면 소경이 된단가 병어리가 된단가?》

마누라가 분함을 참지 못했다.

《오빠라는 사람이 가로막았습니다.》

《오래비가?》

내외가 동시에 놀란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말을 좀 하게나.》

종무가 들고있던 사발을 방에 내려놓았다.

《처음엔 그 동무의 오빠가 나더러 나가지 말라더군요. 한번 먹은 마음 돌릴수가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동생은 수예를 잘하기때문에 그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러더군요. 농촌에 나가선 수예를 못하느냐고 들이댔지요. 전문가가 될수 없단나요. 처녀도 막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별의별 으름장을 다 놓더군요.

시시해서 그럼 내가 더 빌붙지 않겠다고 했지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수가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뭐 오빠가 파혼을 선언하겠단더군요.》

《뭐? 파혼을?》

종무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랬지만 그 동무는 내 떠나는 날 오빠 몰래 역에까지 달려나왔더군요.》

...렬차의 기적이 길게 울리었다.

명호는 렬차승강대 손잡이를 부여잡고 개찰구쪽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기적이 울릴무렵이었다.

은심이가 옷자락을 날리면서 바람같이 나타났다.

그는 승강대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면서 웨쳤다.

《잘 가세요. 나도 곧 따라가겠어요.》

처녀의 눈귀엔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있었다.

《잘 있소. 기다리겠소.》

《오빠는 리해할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렬차는 떠났다.

은심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어내며 오래도록 손저어 내려주었다. ...

《가슴아픈 일이군그래.》

종무는 안타까움에 젖어 한숨을 내뿜는다.

《여보, 우리 내외가 한번 원산엘 가보는게 어떨가유? 그 오래비되는 사람을 만나서 잘 타일러보잔말에유.》

마누라의 기발한 생각이였다.

《안돼. 그런 웅고집쟁이를 우리가 어떻게 꺾는다고 그래? 하루아침에 여기 폭포골이 도시처럼 뜨르르하게 변모된다면 몰라도.》

《왜요? 폭포골은 뭐 도시처럼 되면 안된답니까.》

명호가 종무의 말을 중둥무이시켰다.

종무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던지 드디어 단념한듯 내뱉는다.

《여보게, 까짓거 싹 잊어버리게나. 농촌엔 뭐 체네가 없다던가. 우리 동넨 물이 좋아서 목이 성큼하고 키가 쑥 빠진 예쁜 처녀들이 많아.》

자넨 내세우면 사방에서 색시감이 나질거네.》

종무는 명호보다도 제속을 달래느라고 이렇게 으시였다. 명호는 쓰다달다 아무 대꾸도 없다.

종무는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자네 저녁이면 불넌증이 오는가부지?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무얼 끄적대는걸 내 다 알아. 자네, 일기 쓰는 버릇 있지 않나? 그 버릇 버리라고.》

종무가 자못 심중한 어조로 년장자답게 타이른다.

《일기는 왜 쓰지 말라는겁니까?》

명호의 두눈이 둥그레졌다.

《아, 일기책만 마주앉으면 은심이란 체네 생각할테고 그러면 여기가 더구나 적적할테니 말야.》

그런 일기책을 누가 보기도 하면 그 이상 창피가 어데 있겠나?》

종무가 은근히 걱정하였다.

《하하하.》

갑자기 명호가 즐거운듯 웃어댄다.

종무는 두눈이 떠꺼매져서 고개를 기웃거린다.

《내 일기장은 공개해도 일없답니다. 난 거기에다 이 폭포골을 도시 부럽지 않게 가꿔갈 나의 리상을 적는단말이에요.》

명호가 자랑스레 말하였다.

《허, 참.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군.》

종무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다음날부터 종무네는 풀베기에 들어갔다.

풀베기 작업조직을 다 하고난 종무는 불시에 머리를 치는 생각이 있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남새모 영양단지옮기기에 들뛰다보니 풀절단기장비를 등한히 했던것이다.

절단기는 참 좋은것이였다. 하루에 20톤도 넘는 풀을 썰어먹고도 끄떡 안했다. 작년겨울 사료용풀절임도 그것으로 했는데 마감에 이르러 날이 무더고 베아령까지 나간것을 제때에 정비해놓지 않고 하루하루 미루어왔던것이다.

(에참, 할수 없지. 정비할 때까지는 작두를 써야지.)

종무는 즉시에 분조창고에서 시퍼렇게 날이 작두를 들어다 명호의 발치에 메쳤다.

《어찌겠나? 하루이를 이걸 쓰게. 자넨 작두날을 밟고 탄실인 풀을 먹이면 되겠구먼. 가만, 그런데 둘이 다 손서튼쟁이들이어서 좀 미타한데.》

아무튼 서툰만큼 슬근슬근 익히면서 하라구.

자네 작두를 본적이나 있겠나? 하지만 실농군이 되려면 이것저것 다 익혀두는것도 좋아. 그게 바로 풍토순화과정이지 뭐겠나?》

종무는 생활의 매 계기마다에서 그럴듯한 표현이 떠올라 명호를 쉬이 일깨울수 있는것이 자기스스로도 만족스러웠던지 얼굴에 혼연한 미소를 지었다.

종무는 그길로 분조원들을 데리고 폭포골 풀판으로 올라갔다. 가면서 《충성》호에다 풀을 싣고 올테니 그때까지 작두를 퇴적장에 가져다가 일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리라고 했다.

종무는 한시간이 채 못되어 풀단을 가득 실은 《충성》호의 운전칸옆에 가까스로 영치를 붙이고 툼툼툼 따라내려왔다. 풀단을 다 부리우고나자 그는 트랙포트를 먼저 올려보내고 자기는 거기에 남았다. 작두질이 마음 놓이지 않는때문이었다.

《자, 어서 시작하게.》

종무가 재촉했다.

명호가 작두날에 맨 끈을 거머쥐고 버쩍 쳐들었다. 그러자 탄실이 맞춤이 모아진 풀단을 작두날 밑에 디밀었다. 명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발디디개를 힘껏 밟았다.

그 일이야말로 단순로동이였다.

그러나 단순로동치고는 험치 않은 일이었다.

종무는 명호가 몸가누기를 조련치 않아 한다는것을 느끼였다. 한발을 땅에 디디고 한발은 작두날등을 디디였다. 그리고 한손은 끈을 당겨 작두날을 쳐든다. 또다시 기다린듯 풀단이 날아든다. 썩썩, 썩썩, 썩썩.....

2초나 3초에 한번씩 작두날은 어김없이 풀단을 썰어버린다. 그런데 풀단먹이기공 (공업적표현을

빈다면) 은 완전한 무기능공이다.

풀단을 어떤 때는 지내 많이, 혹은 적게 먹이거나 길이도 길게, 혹은 짧게 먹이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명호도 발딘개를 힘껏 디디지 못하고 자주 비틀거린다. 명호가 눈여겨 살피는것은 썰어져나가는 풀춤이 아니라 탄실이의 가늘고도 날렵한 손가락이다. 작두날 가까이에 탄실이의 손이 날아드는 순간에 명호는 다리맥이 스르시 빠지는 모양이다.

풀춤이 절반도 짧아지지 않는다. 한번에 뒀일을 두번 세번 반복한다.

《힘껏 디디라요.》

탄실이가 보다못해 동그란 두눈으로 뻔히 올려다 본다. 그도 속상한 모양이다.

《서툴어서 그래.》

명호는 조용히 대꾸한다.

《첫술에 배부르겠나? 차차 손발에 익어가지.》

분조장이 그들의 일을 궁정했다. 그의 견해를 따르다면 이렇게 못해본 일을 하나하나 숙련하는 과정이 곧 풍토순화과정인것이다.

작두질은 쉬운일이 아니다. 명호는 모름지기 영화에서나 그 일 하는걸 보았을것이다.

그가 어찌 자기앞에 이런 일이 탁칠것을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럭 하루일을 긴장하게 마치고난 명호는 매우 지친 기색이었다. 종무는 명호가 서툰 작두질을 시킨것이 못마땅해서 그러는거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런데 문득 명호가 입을 열었다.

《3분조에서는 풀절단기로 눈깜빡할 사이에 다 썰어버리더군요.》

《우린 뭐 그렇게 없나.》

종무가 시답지 않게 되받았다.

《베어링, 피대, 고장퇴치, 기름칠...하여간 좀 복잡해. 기계란건 똥똥 돌아가다가도 덜컥하면 술한 로력을 명칭히 놀리면서 괜히 한두사람만 고생시키지. 그땐 손으로 하는게 오히려 나아.》

명호는 그리 운집지 않은 눈길로 종무를 흘끔 쳐다본다. 종무는 자기의 말이 그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는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기 변명을 하였다.

《여보게, 내가 작두 쓰라는건 기계도 기계지만 자네한테 농사일을 하나하나 익혀주자는거야. 실농군이란 그렇게 되는거야.》

종무는 집앞에 다 올 때까지 혼자서 입을 놀렸다.

그는 어쩐지 명호가 흥심이 없어하는 눈치를 보이자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해는 방금 서산에 넘어가고 사위엔 으늑한 정적이 깃들었다. 폭포소리만은 간단없이 흐른다.

이것이 폭포골의 정적이다. 말하자면 상대적인

정적인셈이다. 종무는 저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서 저녁산보로 시간을 보내는것이 제일 즐거운 순간이었다. 그런데 불이 부어 들어온듯싶은 명호는 그런 감미도 맛볼줄을 모르는지 집에 오자바람으로 무슨 종무를 나무집 지는 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늑가스화공사에 달려들었다.

구덩이를 파고 가덕으로 벽돌을 쌓고 말끔하니 세멘트미장까지 해서 염장탕크처럼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그 일은 그 일이고 명호가 전에 없이 한마디 없는게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전에 볼수 없던 숙연한 표정이다.

《자네 어데 편치 않은가?》

분조장이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되는게 많아요.》

《아니 무엇때문에 웅쳐서 그러나? 속시원히 말하고 풀건 푸세나.》

《요즈음 분조장아바이 시키는 일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명호는 또박또박 속마음을 내쏟았다.

《자네 안되겠구먼.》

종무는 자못 실망어린 표정이었다.

명호는 그 말의 의미가 묘연하여 잠시 침묵했다.

《안되겠어.》

종무는 서글픈 어조로 채머리군처럼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명호는 그제서야 그것이 곧 자기가 풍토순화되기에는 아예 굴렀다는 소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종무는 설득력있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타이르듯 말했다.

《이보라구 명호, 우리 폭포골에 정이 붙지 않으면 어찌겠나? 그건 자네 마음대로 하게나.》

《아니, 난 다른데로는 안가겠어요. 여기서 분조장아바이의 풍토순화리론을 꼭 뒤집어버리고야말겠어요.》

《그러니 실농군 되기가 싫다는건가?》

종무가 빈정거렸다.

《돼야지요. 그러나 아바이 말씀처럼 그렇게 풍토순화되긴 싫단 말이에요.》

명호가 잘라매듯 말했다.

《허 참, 사람두, 우리하군 아무래도 다르단 말야.》

종무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시적시적 거닐다가 늑가스탕크라는것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면서 그 주변을 말끔히 손질하는 명호를 리해할수 없는 심정으로 측은히 눈더듬하는것이였다.

×

종무내외는 며칠동안 나들이를 떠나게 되었다.

이웃군에서 협동농장 기사장으로 일하는 동생네 둘째가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분조에서 정이 든 처녀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날자는 휴식일까지 합해서 이삼일을 예견하였다.

어느때 같으면 탄실이 어머니에게 집을 맡기고 집짐승먹이 주는 일까지 신세를 지련만 명호가 있으니 그냥 두고 떠나기로 했다.

작두사건을 계기로 잠간 어성버성해질듯하던 명호와 사이는 칼로 물벤 자리처럼 가서지고말았다.

종무는 그 다음날부터 풍토순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돌이켜보니 저 사람은 씨알이 단단히 배긴 총각인 것 같았다.

그날 저녁전에 마누라가 어디서 주어들었는지 《아니 어느 고맙게 쓰던 작두질을 시켜요?》 하고 종무를 다긋는바람에 종무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한쪽눈을 찡긋거리면서 손가락을 입술에 세워붙이는데 옷방에서 그 말을 들은 명호가 어른다운 목소리로 자기를 감싸주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공장에서 일하다 온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탓이지요 뭐. 이밤으로 다 고쳐서 래일부턴 그걸 쓰세요.》

아, 그때 종무는 명호의 그 아량에 목구멍이 꺾 막히는 것을 참으며 눈을 습먹이지 않았던가.

그런 총각에게 집을 맡기자니 자연히 마음이 놓이는데 마누라의 마음씨 또한 가슴을 뜨겁게 했다.

《이보라구, 진출자총각, 쌀을 여기다 내놓고 가네. 자네손으로 폭폭 떠서 떡이든 밥이든 맘대로 해먹게. 자네 제대군인이란 걱정은 없네만 제발 한 끼에 꼭 해두고 먹지 말게. 속달 만나. 힘든 대로 매끼 더운밥을 지어 먹으라구.》

종무와 마누라는 안심하고 마을을 떠났다.

명호가 종무의 무거운 짐가방을 역에까지 들어다 주었다……

…하루나 이틀쯤 더 있으라고 동생내외가 잡아당겼지만 종무는 영치가 근질거리 앓아배기지를 못했다. 분조농사가 하루아침에 찌그러지는 것 같고 입맛 잃은 돼지를 부어안고 명호가 울상을 짓는 것만 같았다. 급기야 종무내외는 웅근 사흘만에 돌아서고 말았다.

그들 내외가 폭포골 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집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녁무렵이었다.

어서빨리 정든 집에 닿고싶은 마음에 내외의 걸음은 느닷없이 빨라졌다. 그들은 제집굴뚝에 오르는 연기라도 보고싶었다. 얼마쯤 헐금씨금 굴뚝이

바라보이는곳에 이르러 둘은 다같이 눈을 마주치며 서버렸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아궁지 들여다보기 싫으니까 한두끼씩 떠살이를 하는게 안야? 아침에 세끼밥을 다해놓았는지도 모르지.)

종무는 떠날적부터 마음속에 깃들었던 우려가 은근히 머리쳐드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하긴 총각녀석한테 집을 통채로 맡기고 떠났던 자기들의 처사가 우둔했던 것 같은 생각이 갈마든다.

집짐승들, 생명 가진 것들이 앓지나 않는지 걱정이었다. 종무와 마누라는 사립문을 열기 바쁘게 보따리를 마당에 췌뿌리고 돼지우리로 달려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오몸뚱아리가 벌거우리한, 피동피동하게 살진 돼지가 주인이 온 것도 모르고 쿵쿵 잠만 자고 있다. 구유에는 먹음직하게 끓인 돼지죽이 한바가지나 거의 되게 남아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마누라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어리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얼마당 주변이 좀 달라졌다. 떠나기전 진출자총각이 만들어놓았던 염장탕크같은 구멍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우에다 뚜정을 해덜고 무슨 장치같은 걸 해놓았는데 하여튼 뭐가 된지 모르겠다.

종무가 부엌에 이르니 문은 활짝 열린채로 있고 명호는 부뚜막에 걸터앉아 종이에다가 무슨 걸 부치런히 그리고있다.

헌데 놀라운 것은 부뚜막의 반들거리는 늪가마가 달랑달랑 끓으면서 가마전에서 하얀김이 삭—소리를 지르며 뿜겨나오는 것이다.

《아이구 이 사람, 저녁을 짓는구만. 그동안 수골했네.》

우선 마누라가 기쁜소리를 치며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서 명호의 두손을 끌어당기었다.

《아, 모두들 편히 다녀오셨어요?》

명호가 반기며 일어섰다.

밥이 잿아드는지 빠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궁안의 불을 국가마쪽으로 돌려놓으려고 아궁이를 들여다보던 마누라의 두눈은 때곤해졌다.

아궁에 불이 없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조환가? 불은 어디서 떼게 굴뚝에 연기도 안나오나?》

《가스로 밥을 지으니깐 그러지요.》

진출자총각이 뒤머리를 쓸었다.

두내외는 기가 찬듯 입을 벌리고 혀를 내둘렀다.

《제가 밥을 지었습니다. 아, 참 밥이 다 잿았군요.》

명호는 부뚜막의 수도꼭지 비슷한것을 살살 돌린다. 불길을 낮추는 모양이다.

어느사이에 이렇게 조화를 부렸는지 명호가 더없이 돋우보인다.

《자, 이제 정식으로 인제 받으시라요.》

명호가 익살을 부리며 종무의 마누라를 바라본다.

《그러세나.》

마누라도 덜컥진 실락한 잔등으로 부뚜막을 내려다보는 종무의 눈길을 가리우며 맞받았다.

《앗따가!》하면서 마누라가 가마뚜껑을 여는데 김구멍이 송송한 하얀 쌀밥에서 구수한 흰김이 물씬 뿜겨올랐다.

《자네, 진출자가 다르긴 다르구만.》

마누라가 가마를 들어내자 가마밑에 설치한 가스구멍에서 새파란 불길이 사물거린다.

《이렇게 꼭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불이 세집니다.》

명호가 조절하는대로 불길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마누라는 노상 입을 다물줄 몰랐다.

셋이서 한집안식구처럼 오붓하게 둘러앉았다.

종무는 동생네가 넣어준 소주병을 명호앞에 기울였다. 그리고는 생각난듯 물었다.

《자네, 거 부엌에서 그리던건 무언가?》

《예, 밭에다 두엄내는 기겁니다.》

그는 별게 아니라는듯 말했다.

종무는 문득 폭포골 남새밭에서 거름주던 일이 생각났다. 명호를 비롯한 분조원들에게 《실농군》의 일본새를 보여주느라고 거름을 손으로 쥐여 뿌리면서 그것이 마치도 이신작적이나 되는것처럼 생각지 않았던가. 어서 《풍토순화》되고 《실농군》이 되라는 의미에서 대충 썰은 손으로 몽그린 싹덩어리를 그의 입으로 가져가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다.

《여보, 어서 모기쑥 피우오.》

종무가 마누라를 일깨워세웠다.

《그만두십시오.》

《왜 그러나? 여기 모기가 영악스러워.》

《여기다 모기쑥는 장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뭐라구?》

명호는 손전지 비슷한데다가 손가락처럼 가는 전지를 넣어 창턱에 올려놓았다.

잉-하는 전류음이 가늘게 고막을 자극했다.

앵하고 날아돌던 모기 한마리가 급기야 돌파서 뽕소니를 친다.

《모기가 싫어하는 음파를 내보낸답니다.》

《거참...자네가 보배는 보뻬세.》

종무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분조장아바이! 휴식일날 관리위원장동지랑 리당비서동지랑 여기 폭포에서 천렵이랑 하면서 휴식했습니다. 제가 문득 여기다 자그마한 발전소를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적극 지지하면서 꼭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폭포골에다 발전소를 세운단 말이지?》

종무는 연방 고개를 주억거리었다.

《그건 그런데 ...》

종무가 말머리를 돌리었다.

《자네 그 은심인지 하는 처녀한테서는 소식이 없나?》

《무슨 그동안에 소식이 있겠나요. 인편에 들으니 그 오빠가 한번 여기 와보겠다는 소리를 했답니다.》

《예비정찰인셈이군.》

《와보면 마음이 달라질겁니다. 가스화, 전기온돌에다 기계로 농사짓는 폭포골을 그려보십시오.》

《자넨 폭포골에 오래전부터 정이 든 나보다도 뭔가 사랑이 더 뜨겁구만그래. 그 마음을 이해하면 은심이 오빠도 마다하지 못할걸세.》

종무는 술잔을 들어 가슴 그들먹이 차오르는 격정을 꿀꺽 넘겨버리었다.

《여보게, 그러니 내 풍토순화리론이 낡긴 낡았어. 허허 참, 그걸 여태 모르고 살았거든.》

종무는 정수리를 굽적거렸다.

《아바이, 우리 로동계급의 풍토순화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제모양과 본색을 바꿀수 없는게 우리가 아닙니까.》

명호의 소박한 말속에는 종무를 깨쳐주는 진정이 어려있었다.

(아, 참. 사람은 진국이거든.

이제야 폭포골이 진짜배기 주인을 만났어.)

종무는 폭포골에 태를 묻은 사람이다.

폭포골을 사랑하는데서는 제이상 없으며 자기만이 폭포골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해왔다.

폭포골을 사랑한다면 명호 이상 더 있겠는가. 그는 무엇인가 설계하고 끊임없이 변모시키려고 애쓴다. 그의 이 참된 노력은 폭포골이 도시 부럽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될것이다.

이제 곧 은심이라도 올게고 많은 사람들이 폭포골에 삶의 터전을 잡고싶어 찾아올것이다.

문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도시처녀 시집와요》 하는 노래의 선율이 코노래로 울려나올번했다.

종무는 생각 깊은 눈길로 명호를 친아들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폭포의 유정한 울림소리가 초저녁 건들바람에 실려 간단없이 들려오고있었다.

기쁜 계절

량덕모

다시 오시면

봄이면 봄이어서 기다렸소
세잎네잎 아지친 랭상모
탐스런 모관을 보여드리고싶어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기다렸소
두령을 묻으며 허리치는 벼포기
무성한 논판을 보여드리고싶어

허지만 그 마음
아무리 불같이 타올랐다 한들
이 가을처럼야 활활 일어난지겠소
넓으나넓은 금나락의 바다
흥치는 이삭의 파도를 바라보며
이제나저제나 그이께서 오시기를
내 참으로 기다려지오

아, 친애하는 그이
이 가을 풍년기쁨속에
잠시나마 쉬여가시었으면...
그러면 내 농민의 인사
땅의 감사를
머리숙여 올리고싶소

자, 앞을 보오
벌이 백리면
황금의 물결도 백리
강줄기같은 물길을 열어
마음대로 푹푹 쓰라고 단물을 보내주신
그이 사랑이 파도치오

자, 뒤를 보오
금방망이같은 이삭을 엮은
강냉이밭 저 위용을
흙갈이 더운 김으로 봄을 부르며
밭이랑마다 깔아주신
그이 은정이 넘실거리오

이해따라 새 종자 새 기계인들
또 얼마나 보내주시었겠소
이해도 저 논둑길로
새벽 이슬 밝으시며 찾아오시여
새 농사법 가르쳐주시던 그이 모습
눈에 선하오

진정 천만 포기포기
농민의 손이 가기전에
그이 손길이 닿아
논에도 풍년 밭에도 풍년든 가을날
그이를 이 벌에 모시고싶은 생각
땅에 정을 붙이지 않은 사람이야
어찌 다 알겠소

아, 그이께서 다시 오시면
내 진정을 담아 아뢰이겠소
가도가도 끝이 없는
황금의 바다 황금의 언덕-
친애하는 그이께서 또 한해
이 땅우에 무르익혀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열매라고

농민의 이름으로

가을이면 의례히 맛보는
농민의 기쁨이건만
다시 쓸어보자 벼이삭아
다시 안아보자 황금벌아

금풍에 설렁이는 이삭의 물결
그우로 너홀너홀 내려잡는 백학의 무리

때로 멀리 가도
고향의 그리움속에 먼저 떠오르는
가을풍경이 아니냐

어느 논배미에 눈길 던져도
찬물에 발시킨줄 모르고
새벽부터 분망하던 모내기철

두렁밑에 모 한포기 더 심은
그 나날이 어려온다

어느 벼이삭에 얼굴 부벼도
긴긴 여름해가 아쉬워
저물도록 벌에 산 김매기철
이랑이랑 꽃밭처럼 매가꾸며
아끼지 않은 땀방울이 젖어든다

다시 쏘아보자 안아보자
내 사랑을 기울인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들고
설레는 래일의 꿈이 어린
벼이삭아 황금벌아

너를 가꾼 공지로
눈부신 내 나라 국장도

밥상에 둘러앉는 집집의 행복도
머리들고 땀땀이 볼수 있음은
내 한생 바라는 삶의 행복

내 만약 고향을 사랑한다면
이 가을 솟스러이 고개속인
벼이삭 너부터 말하리
내 만약 조국을 사랑한다면
하늘땅을 싣누렇게 물들인
황금벌 너부터 그려보리

나에겐 더는 없으라
벼이삭 너보다 고마운 열매
황금벌 너보다 아름다운 벌
아, 농민의 이름으로 내가 대답할
고향의 얼굴 조국의 모습아 !

나무람 말아다오

오가는 못쳐너들속에 있었다면
내 눈길 끌지도 못했을 너
영근 벼이삭을 부여안고
입속으로 헤여보는 처녀야 !

나무람 말아다오
이삭마다 지난해보다
열알나마 더 달렸다고
웃음이 찰랑이는 네 얼굴
내 났을 잃고 쳐다보는것을

머리수건에 붙은 마른 벼잎도
네 마음의 향기가 실린 가을바람이
곱게 금실을 수놓아준듯
귀밑에 가볍게 묻은 흙밥도
네 땀이 스민 땅이 너무 고마워

살짝 입을 맞춘 자리인듯

금나락의 빛에 함뿍 싸인 네 모습
어디를 보면 흠잡으랴
한해농사 보람이 영글어 웃는
입술이며 눈이며
거울앞에서 아무리 비다듬은들
이처럼 황홀하라

나무람 말아다오 처녀야 !
풍년기쁨이 활짝 핀 네 얼굴에
함께 벌을 가꾸는 내 그만 반했다고,
내 사랑의 고백
금시 툇 튀어나온다 해도
너그러이 받아주려마

즐거운 소묘

가을이 오니
손에 익은 버릇처럼
논두렁에 앉아 낫을 갈던
분이 할아버지

잠자리떼를 놀래우며
무섭게 달려오는 벼수확기 동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아니 할일하다 들킨것처럼
시무룩이 웃는데

운전공 총각이 던지는 말 걸작일세
-심심치 않게 낫을 델
벼이랑 몇줄은 남겨두겠으니
걱정일랑 마시오

×

발머리 따라
장대끝이 휘게 달린
줄당콩을 따는 아주머니들
저저마다 입을 벌리네
벼도 강냉이도

그리고 충충 파원의 사과도
수확하는 기계가 있는데

아직 줄당콩을 따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
이건 곡종에 대한 무시라나

입빠른 분조장네 머느리
뺨을 붉히며 하는 말
탁아소에 다니는 첫 아들이
이제 꼭 연구할거라네

그러자 샘처럼 터지는 웃음
전선줄에 앉았던 제비들도
멀리멀리 퍼지고
몸집굵은 단천집이 보태는 소리
농업대학 둘째딸이
지금쯤 설계도면을 다 그렸을거라네

내 가슴속에 뿌리내리어

이 벌에 싱싱하던 푸르른 빛
그 빛은 이삭속에 스며들어
가뭇없이 사라지고
오직 타는듯 날지 않는 붉은빛 구호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

시원한 가을하늘을 배경삼아
두렁우에 우뚝 서있는 저 구호
풍년가을을 안아온
나의 힘이 아니었던가

눈은 내리고
피워놓은 모닥불은 사위여도
저 구호를 바라보면
흙 한짐 더 나르는 내 걸음
찬바람 맞받아 불이 일었노라

그때문이였어라
때아닌 찬서리 모란을 얼굴 때
덜고자던 이불을 들고나온것도
휴식날 나들이 가면서
눈에 띄이는 돌피를 뽑아야 마음놓은것도

이 몸의 마지막 온기마저 바쳐갈
땅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준 땅의 뜻
새겨볼수록 고맙고 뜨거워

사계절 벌은 달라져도
내 혈액의 붉은피처럼 변할수 없고
그 무슨 유혹의 바람이 건드리어도
내 신념에 받들려 흔들리지 않을
저 구호

가을은 끝나고
풍년꿈을 꾸며 벌은 잠들어도
탕개를 조인 내 마음인양
낮이나 밤이나 서있는 저 구호

오, 아버지가 눈물흘리며 못잇는
분여지 그 말뚝처럼
내 가슴속에 뿌리내린 구호여
이 가을날 벌써
새해농사 풍년메부리를 향하여
나에게 첫구령을 내리는구나 !

축 복 외 2 편

최병원

추녀도 달을듯
몇걸음 오고가면 신랑집 신부집이라
결혼식차가 무슨 소용일가만
운전수동무야 어서 발동을 걸어라
이제 어떤 길이기에 걸리워보낼가
가까워도 먼길이란다
싱글벙글 새신랑 웃고만 썼지 말고
신부와 나란히 꽃차에 오르렴

제집은 떠나도 고향별은 못떠나는 길이길래
어찌 그저야 선듯 가닿을가
너희들 잔치상에 꽃방석을 깔아놓고
저기 맞은편 2층집 창가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다려도
잠간만 량해를 구하고 예둘러가자
리상촌 거리 지나 동구길 지나
첫날웃을 들바람에 마음껏 날려보라

너희들 정을 담아 가꾼 출출한 이삭들이
고개숙여 손짓하며 어서 오라 부른다
학두루미 춤을 추는 들판을 지나
파원의 언덕길도 다 들려가자
칠색송어 푸들쩍 튀어올라 반색하는
양어장 버들숲도 예둘러가자

땅우에 가꾼 열매보다도
두 가슴속에 무르익는 그 열매가 소중한
서로 사랑맺은
신랑신부야

너희들 봄여름내 고향별을 가꾸느라
수고많은 농장의 보배들아
오늘은 고향별의 축복속에 얼굴들여라
검은머리 백발토록 한생을 걸어갈
변치 않을 맹세를 이 들길에 새기며...

가 을

가을은
농민의 나이를 더해주더라
온 한해 가꾼 이삭 어루만지며
못다바친 정을 두고 차마 아쉬워
노을진 다락발을 내리지 못하는
나어린 처녀분조장의 티없는 마음속에...

가을은
농민의 나이를 깨우쳐주더라
들에는 춤물결 환희의 노래를 실었어도
손수 이삭의 알수를 세여보시며
우리 수령님 무거운 발걸음 옮기시던 두렁길
그날의 그 두렁길에 다시 서보는
머리 흰 관리위원장의 목메이는 마음속에...

아 봄여름 들바람에 날리던 목수건인양
학두루미 날아에는 저 별 한끝으로
벼수확기 몰아가는 운전수의 마음에도
이 별에 안아올 더 큰 풍작을

눈앞에 그려보는 젊은 기사의 가슴에도
별에 실린 금나락보다
더 귀중한 마음의 열매를 익혀준 가을이여

가을은 정녕
농민들 저저마다
나라에 바쳐야 할 땀의 무게를 헤아려보며
역만이랑 이삭의 물결우에
스스로의 마음을 엿어보는 계절

그래서 가을이여
네가 주는 나이
네가 깨우쳐주는 농민의 나이는
해가 바뀌어 받아안는 그런 나이 아니더라

아 가을이여 너는 정녕
농민의 량심을 불태우는 계절
티없이 깨끗한 그 마음속에
샘깊은 참나이를 더해주는 계절이더라

보름달

개꼬리 피는 이랑이랑
강냉이 이삭마다 꽃가루 묻혀가는
내 마음 내 얼굴이 더 고왔던가요
불에 어깨우에 살쫂이 내려앉는 노란 꽃가루...

그러면 우거진 강냉이 숲사이로
까르르 마주웃는 우리네 분조원들
나를 보고 꽃가루 묻은 내 얼굴 보고
보름달같이 환해졌대요

아이참 내가 정말
풍년벌에 보름달인가
그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벌을 가꾸고 이삭을 가꾸며
들바람에 얼굴은 감실히 땀어도
거울앞에 언제 한번
숏스러이 마주앉아본적 있었던가요

어쩌다 꽃웃차림으로 곱게 화장하고
문화회관 무대우에 나섰다가도
때아닌 비바람 몰아칠 때면

그대로 뛰쳐나와 젖던 얼굴들이예요

그 얼굴들이예요
사철 풍년벌을 가꾸며
진한 구슬땀으로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그래서 분화장한 얼굴은
팝다면 수집어도
나는 좋아요

달아오른 랑볼에 어깨에
꽃가루 듬뿍 내려앉을수록
가슴속엔 벌써 금빛이삭 설레이니
그 빛 어려 내 얼굴 더 환해졌다면
그래서 날더러 보름달 같다 하면

좋아요 나는 좋아요
내 가꾼 벌이 좋아 하늘에도 뜨지 않고
한낮에도 강냉이 바다를 춤추듯 헤엄쳐 달리는
보름달 보름달
풍년보름달 !

은룡덕의 밤에

한원군

둥근달이 추녀끝에 웃는다
땅속광맥의 빛발인듯
이밤 은하수 현란도 하다

선광마을 하늘가의 저 별들은
쇠돌에서 튕겨난 은싸락이나
금싸락이나

집집의 창가마다 밝은 불빛은
쇠돌속에 정이 들고
쇠돌속에 기다림도 커가는
산정우에 행복한 미소이더나

종구나 마광기소리에 화답하는
은은한 기타소리 벽계수 물소리
보람높은 로동의 음향
삶의 환희여

그 옛날 달나라 신선들이

옥절구에 금공이로 은금보화 쥘었다는
전설속의 선경마을 예 아니냐
은룡덕 은룡덕
하늘가의 선광마을

금공이 옥절구도 예 있노라
땅과 하늘사이 은하다리도 예 있노라
마광기, 부선기, 벨트콘베아...
산상에 설레이는
기계의 바다, 환희의 바다여

쇠돌이 노래되어 흐르노라
노래가 쇠돌되어 흐르노라

검덕의 보화를 캐고 쥘어서
우리 생활 꽃피워준 은혜로운 우리 당
산정에 펼쳐준 락원의 절경이여
달도 별도 부러워 못떠나는
아름다운 선광마을의 밤이여

여기에 길이 있다

전동우

철산봉, 내 사랑의 산아

바라보면 정답고 오르면 즐거운
너 철산봉, 내 사랑의 산아
층층 채굴계단의 그 어디를 밟아도
내 더운 땀방울이 스미어있어
모난 돌부리만 깔려있는 돌밭길이
내 고향 들길처럼 걷기가 좋아라

나무 한그루, 풀 한대 돋지 않는 등관
사철 돌가루먼지만 회오리쳐 덮씩워도
누가 지었던가 그 이름도 살뜰히
모란봉, 비로봉의 봉자를 달아 철산봉
돌밖에 없는 산, 이름이라도 귀맛 좋게 울리라고
꾸며서 지어부른 이름은 아니더라

아니더라, 네가 그저 푸른숲이 우거지고
못새들이 날아드는 쉬기 좋은 산이었다면
이처럼 정겹게는 네 이름 못부르리
벽계수보다 더 단풍보다 더
사람들을 끄르는 깊은 정이 네게 있어
이처럼 뜨겁게는 네 이름 부르지 않으리

너의 애무는 바위처럼 거칠고 바람처럼 드세차도
그뉘의 손길보다 살뜰하고 정답더라
치레와 위선을 모르는 너의 곧은 그 성미
대발과의 폭풍속에 온갖 허울은 날려보내고
오직 당을 받드는 깨끗한 녀에만 가슴을 열어
굳은 바위틈에 그 뿌리 내리도록 받아주더라

오, 철산봉 철산봉 내 사랑의 산아
내 바람드세찬 너의 등관을 피해
산들바람 부는 골짜기에 깃을 찾았더라면
나는 영영 모를변하였구나
너의 아름다움도 너의 보배로움도
또 내 삶의 참된 보람도 참된 기쁨도

너의 등관이 벗겨지고 파헤쳐질수록
너는 조국에 끝없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산,
황홀한 일만경치 너에게는 없어도
하늘가에 퍼지는 대발과의 구름속에
눈부신 조국의 미래를 비쳐줄 때
그것이 너의 황홀한 일만경치 아니었더냐

그래서 너는 이 나라의 명산
그래서 너는 이 나라의 보배산
위대한 령도자 너의 마루에 오르시여
여기가 인민의 행복이 시작되는곳이라고
이 손을 뜨겁게도 잡아주시며
그리도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으니

세월의 눈비 세차고 폭풍이 회오리쳐도
나는 너의 봉우에 푸른 아지 펼치고
그이의 뜻을 받드는 한그루 박달나무되어 산다
아아, 안길수록 정답고 부를수록 자랑스러운
철산봉, 철산봉, 내가 사는 산아!
철산봉, 내 영원한 사랑의 산아!

여기에 길이 있다

한오리 해살도 한조각 하늘도 없다
바람 한점 새어나갈 바늘구멍도 없다
다가서면 앞에는 암벽의 밀폐
옆을 봐도 막아선 담벽의 봉쇄...

여기에 길이 있다
굴진공이 가는 길
뜨거운 심장에 불을 켜달고
멀리 저 멀리 내다보며 가는 길

앞이 막혔다고 막장이라 하지 말라
막아선 담벽은 큰길에 나서는 문
내 번쩍이는 정날을 암벽에 갇다대면
그대로 문에 달린 은빛손잡이

정날이여 앞으로! ...문 열고 나아가자
땅크도 장갑차도 후진변이 있지만
너만은 그것이 없는 전진의 무기
그래서 더더욱 사랑하는 착암기여 앞으로!

여기에 길이 있다... 한치, 한치마다에
땅우의 천리, 만리가 실려가는 길
갈아대는 정대 한대, 한대마다에
이 땅의 보배로운 무제가 더해가는 길

여기에 길이 있다
유보도처럼 활개치며 못가도
고속도도로처럼 날듯이 못가도
세상 어느 길보다도 보람있게 가는 길

아, 사랑과 량심과 성스러운 맹세가,
깨끗한 구슬땀과 타끓는 피방울이
한덩이 쇠돌을 보석으로 만들며
우리 땅에 바쳐가는 값높은 길이여 !

그래서 이 길은 예돌줄 모르는 길,
그래서 이 길은 키로써 채는 길,
그래서 그래서 내 가는 이 길은
꿈에도 어김없이 끝추가는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내 언제나 그리던
순천벌이 있고 통일거리가 있고
이 길로 더 가면 아,
불밝은 당중앙 창문이 있다

누가 여기를 막장이라 했던가, 정날이여 앞으로!...
사랑하는 착암기여 내 심장의 고통이여 더 멀리
앞으로 ! ...
여기에 가장 넓게 트인 길이 있다
언제나 당중앙 창가에 닿아있는 길

합숙의 노래

자, 통성하자구 내가 호실장일세
새로 들어온 친구 이름은 무엇인가
고향은 어디라구? 어느 부대 있었나?
특기는... 뭘을 차나? 나팔을 부나?

동문 로동자합숙생활, 처음이겠지?
중대병실생활과 비슷한데 있지만
그래도 달라... 여긴 사회니까
사노라면 이제 다 알게 되겠지

합숙이란 뭘고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없이 입학하는 청춘의 대학이야
누구나 희망자는 다 받아주지마는
한생을 놓고보면 귀중한 구간일세

장가를 갈 때까지 거처할곳 없어서
때식위해 찾아드는 숙박소는 아니야
가야 할 길 구만리인 인생의 길에
하루밤 문두드린 려인숙도 아니구

로동자 합숙생활 해본 일 있었다고
리력서 자서전엔 쓰는 란이 없어도
물어보게, 합숙생활 거치지 않고
크게 된 사람 누가 있던가를

우리 영웅 지배인도 대의원인 반장도
온 나라에 소문난 발명가 아바이도
한때는 모두 우리같은 합숙생
우리 합숙밥을 먹은 총각들이었다네

어째서 합숙에서 인물이 나는가구?

거야 합숙이 주는것 많고많기때문이지
보게나, 대를 물린 이 값진 재산을
보풀이 인 이 책들과 손때오른 기타를

그리고 여기 이 공업대학 졸업사진
셋이서 함께 받은 이 발명권 증서,
또 저기 3중모범호실 표창장과
먹금은 날았어도 명수들을 키워낸 이 장기판...

이것뿐이 아니라네...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크고 더 값진것 우리에게 있다네
그것은 쇠돌캐는 광부의 량심, 광부의 신념
그것은 금주고도 사지 못할 동지의 사랑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보게 될거야
동무도 이제 그걸 받아안게 될거야
사노라면 버릇도 말투도 식성까지도
닳아가는 그것이 바로 합숙이라니

자, 함께 살아보자구 우리호실 막냉이
내 마음 다 줄테니 그 마음도 다 달라구
우리 호실 선배들이 다 그랬던것처럼
동무도 이제 장가드는 그날에는
떠나기가 아쉬워 눈물을 흘릴거야

동무여, 우리모두 당의 부름 받들고
사랑하는 고향을 멀리 두고 왔거니
알겠나, 합숙이란 청춘의 두번째 고향집,
미래에로 날으는 억센 날개 키우라고
우리 당이 마련해준 보금자리라네

쇠돌과 버럭

이쪽과 저쪽 ! ...

여기서는 모든것이 두길로 갈라진다

콘베아를 타고

이쪽으로는 쇠돌이

저쪽으로는 버럭이 ...

내 생각에 잠겨 바라보노니

저 둘은 똑같이 땅속에서 나왔건만

어찌하여 하나는 쇠돌이 되고

어찌하여 하나는 버럭이 되었는가

문득, 내 눈앞에는 보이는것 같아라

그것은 아마도 용암들의 커다란 소용돌이가

지각의 첫 년륜을 새기던 그때일이었으리,

용암이 끓어서 구백구십구만하고

구천구백구십구년...

아마도 그쯤되는 그런 날이었으리

어울려 함께 끓던 둘중의 하나가

더는 못견디겠다는듯 주저앉으며

제 친구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으리

《끓어서 쇠가 된다는건 거짓말이야

이만큼 끓었는데 왜 아직 쇠가 못돼 ?...》

함께 끓던 친구가 그 말에 놀라

제 친구를 부축해 일으켜세웠으리

《무슨 소리 ! ... 힘들어도 가야 해

이제 한걸음이야, 기운내라구 ! ...》

그러나 처음친구 손을 뿌리치며

드디어 소용돌이에서 벗어났으리

마지막 한고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버럭은 그렇게 길을 비켜갔으리

다른 길로... 서늘한 그늘을 찾아

그리고 그곳에서 가슴은 싸늘히 식어갔으리

지질학의 원리는 내 몰라라

쇠돌과 버럭 ! ...

내 다시 바라보는 이쪽과 저쪽 ! ...

허나 이것이 어찌 다만 시인의 환상이라

사람사는 세상에도 있지 않던가

한걸음때문에 두길로 갈라지는

아, 영원한 영예와 영원한 수치여 !

광부에게

오늘도 먼 산굽이에서 귀익은 기적소리

정광수송렬차의 질주하는 바퀴소리가

메아리를 남기고 사라져갈 때면

동무여, 나는 언제나 네 모습이 떠오른다

바람찬 광구에서 땀을 씻고있는 너의 모습이

오늘도 신문을 펼쳐들고 위훈의 소식아래

대건설장 영웅들의 림름한 사진을 볼 때면

나는 본다, 찍혀있지 않는 또하나의 모습을

언제나 위훈자들의 자랑스러운 얼굴들뒤에

미소를 짓고 서있는 광부여, 너의 모습을

너는 대기념비적건설의 주인공도 아니고

첨단기술을 열어가는 선구자도 아니여라

네가 하는 일은 다만, 땅속에 묻힌 광석을

캐는 일,

착정기와 굴착기와 착암기를 다루는 숨씨밖에는

자랑할만한 재간이란 가진것 없는 사람

너의 제품은 손으로 만져보기엔 너무나도 거칠고

눈으로 감상하기엔 너무나도 거무튀튀한 쇠돌,

발밑에 밟고다니도록 흔하디흔한 그것을

모나고 모양없고 윤기도 없는 그것을

어머니조국만이 제일 값진 보배로 높이

일려주더라

그것은 위훈의 숲을 낳는 씨앗과도 같은것

너는 보람찬 터전마다에 그것을 뿌려주고

알찬 열매는 수많은 벗들에게 다 넘겨주거니

한발과 또 한발과 쇠돌산의 키가 낮아질 때

너는 높이 더 높이 영예의 언덕우에 올라서더라

그렇다, 누가 너에게 창조물이 없다 했던가

너도 창조자, 너도 건설자, 너의 구슬땀은 빛난다

꿈나라같이 일떠서는 통일거리 저 구조물들우에

그림같은 대화학도시의 은빛배관들과 첩탑들우에

무인산중에 바다를 안고 솟은 저 거인언제들우에
 당과 조국에 바친 너의 량심은 빛난다
 키통옴하고 날개퍼고 날아오르는 모든것들우에
 싹트고 자라나고 익세여지는 그 모든것들우에
 노래하는 들판우에, 기대우에, 아이들의 웃음우에
 나날이 나날이 아름다와지는 이 땅의 모든
 생활들우에
 아, 눈바람 휘몰아치는 북방, 해발높은 산정에서
 너는 오늘도 심장의 불심지로 백만산을 터뜨린다

온 나라에 누구보다도 큰몫을 바치는 동무여
 그래도 너는 언제나 성찰줄 몰라 발파연기 헤치며
 다시 또 이백만산 지심깊이 정날을 박는다
 위훈속에 살면서도 언제나 위훈자들의 뒤에
 서있는
 동무여 그대야말로 이 나라의 참된 위훈자,
 진군하는 조국의 발걸음에 무쇠발굽을 섬기며
 어머니당을 무쇠동발이 되어 받들고 서있는
 그대야말로 온 나라가 잊지 않는 참된 영웅이여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북장근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머니품에 안겨
 좋아라 작은 손 흔드는
 저 아기의 기쁨인가

새거리 새집에 새살림을 차려놓고
 사랑의 언약을 꽃으로 피워가는
 저 제대군인 젊은 부부의 웃음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생을 바친 탐구의 열매가
 새 공장조업의 환호성에 묻힐 때
 그 과학자의 두볼에 흐르는
 뜨거운것인가

누구는 행복이
 변함없이 향해가는 삶의 목적이라 하더라
 누구는 행복이
 한생품어온 소원꽃피는 그 순간이라더라

인간이 머리회도록 찾아헤맨
 행복이 무엇인지 내 다는 몰라도
 날마다 느끼노라 마시며 사노라
 삶의 향기로운 숨결을

아침이면 은은하게 울리는 고동소리는
 또 하루 기쁨으로 나를 부르는 소리
 아래웃춤 이웃이 웃어반기며
 온 나라가 함께 일터로 간다

내 아이 아기궁전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유치원과 학교들이 미래를 약속한다
 흰 위생복 의사들이 마을을 돌고
 갖가지 혜택이 내 집문을 두드린다

서로 위하고
 서로 받들리우며
 의무도 똑같이 나누고
 권리도 골고루 함께 누리는 내 나라

행복이 무엇인지 다는 몰라도
 나는 아노라 그 행복이
 인간자주의 밝은 세상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서만 꽃핀다는것을

나는 몸과 마음을 다바친다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세상에서 제일인 사회주의 내 조국에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이상에 대한 형상문제

오춘식

최근시기 우리 작가들은 청년들의 참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이상을 취급한 장편소설들을 적지 않게 창작함으로써 독자들을 기쁘게 하여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정에 벌어지는 보람찬 새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청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지향과 전투적이며 량만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시대적으로 매우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이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사회에서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다. 청년들은 진취성이 강하고 전투적이며 량만적이다.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청춘시절을 빛내고있다.

장편소설 《봄은 아직 멀리에》(신용선)와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김용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이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불타야 하는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형상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주체의 인생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데 일정하게 이바지하고있다.

이 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당이 화력을 집중하고있는 중요한 전선에 뚫고들어가 거기에서 중추적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는 청년들의 지향과 이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한 해명을 준것으로 하여 사상미학적가치가 있다.

장편소설 《봄은 아직 멀리에》는 천리마대고조 시기 당과 수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청년탄광을 개발하고 청춘도시를 일떠세우는 투쟁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젊은 개발자, 사회주의청년건설자들의 지향과 이상, 희망과 포부, 아름다운 사랑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으며 장편소설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는 고향마을인 산골농장에 집단진출한 청년분조원들의 고상한 지향과 량만적인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한 작품은 50년대의 생활을, 두번째 작품은 80년대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건설장에 집단진출한 청년들의 생활이라는 점에서는 일련의 공통성을 가진다.

이 작품들은 청년들의 지향과 이상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이는 하나의 지향으로 불타야 하며 청춘들의 이상과 사랑은 바로 이 숭고한 위업을 실현하는 과정에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봄은 아직 멀리에》, 이것은 개발지에 봄은 왔지만 우리 청년들이 탄광을 개발하고 청춘도시를 일떠세운 그 열정과 기백을 늦추지 말고 영원히 불타는 청춘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땅속에서 수억년 깊이 잠들었던 석탄, 거대한 힘의 거물이 청년들의 뜨거운 심장에 의하여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첫 연소를 개시하는 장엄한 소생의 계절, 봄은 왔지만 자기들이 세운 첫 위훈에 만족을 모르고 더욱 높이 날아오르려는 지향과 열정으로 불타는 청춘시절을 긍지높이 레찬한 여기에 작가가 창조한 형상의 독자적인 묘미 있다.

《참된 청춘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청춘기에 들어섰다고 결코 청춘은 아니다.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고 그 조국땅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그때부터 그들의 청춘은 시작되는것이다. 그러면 청춘의 끝은 언제인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사는 한 그들은 영원히 아름다운 청춘들로 남아있을것이다.》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고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 그때부터 청춘은 시작되며 자기를 바쳐 조국을 위해 사는 한 청춘은 영원하다는것, 이것은 장편소설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이처럼 이 작품들은 일정하게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봄은 아직 멀리에》는 청춘시절이란 많은 일을 하여 위훈을 세움으로써 나라에 큰 보탬을 주는 시절이라는것, 아무런 위훈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에 짐이 되면 그가 아무리 청춘기에 산다 하더라도 청춘이라고 부를수 없다는 생활의 진리를 주체의 인생관의 핵인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밝히려 하였다.

이 작품은 청년개발자들이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청년탄광을 개발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여가는 그 보람찬 투쟁속에서 청춘의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찾고 사랑을 꽃피워가고있음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청년탄광을 개발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석탄을 하루빨리 캐어내는것, 이것이 바로 주인공을 비롯한 청년개발자들의 지향이며 희망인것이다. 이 하나의 지향을 안고 그들

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발지로 달려왔으며 모진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다.

작품은 주인공 최정무를 비롯한 주요인물들을 이 하나의 지향선에 세워놓고 성격의 주도적특징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밝히고있다.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인물들의 혁명적수령관형성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작가는 작품에 당의 령도선을 설정하고있다.

여기에서 당위원장 리광섭 형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위원장은 언제나 청년개발자들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되어있으며 생활의 매 계기들마다에서 그들의 지향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불타야 하는가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떠밀어주고 고무해주는것이다. 그는 인간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주인공과 밀착되어있다. 청년개발자들의 핵심부대가 될 초고중졸업생중대를 조직할 때로부터 정무가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첫 산업도로를 건설하고 송전선건설을 진행하는 엄혹한 시련의 고비에서 그리고 청춘도시를 일떠세우고 갯을 건설하여 개발지에서 첫 석탄을 캐내는 전투생활의 매 공정들에서 당위원장은 언제나 주인공이 당의 뜻대로 일하도록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며 주인공의 심장속에 조국의 참된 의미를 깊이 심어주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여주는것이다.

그리고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사이의 인생관의 차이로 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오해와 불신, 마찰과 충돌들이 조국을 빛내이는 참다운 위훈을 창조해가는 역센 투쟁속에서 풀려나가도록 주도하고있다. 그는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실현해나가는 하나의 지향속에서 청년들의 기쁨과 행복,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나도록 따스히 보살피주며 그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에게 혁명의 전위투사, 조선로동당원으로서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도록 적극 도와주며 이끌어주는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당위원장의 위치는 확고하며 그만큼 그의 성격도 일정하게 개성화되었다.

작품은 특히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간의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극적으로 맺어주고 매 인물들의 성격을 비교적 깊이있게 개성화하고있다.

작품은 하나의 지향을 안고 개발지로 달려온 개발자들사이에 맺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성격들을 청년들의 랑만적특성에 맞게 일정하게 개성화하였다.

학생시절 아름다운 리상속에서 서로의 우정을 뜨겁게 나누던 정영기와 엄철수와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처녀 서은경과 그의 오빠 서준혁과의 관계, 개발지에서 새로 만난 로동자출신 청년 대철이와 《병어리처녀》 리해송과의 관계 등이 주인공을 축

으로 하여 다양하게 엮혀진다.

뚜렷한 목표와 지향이 없이 오직 처녀의 리기적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공명과 흥분에 들떠 개발지로 찾아온 정영기는 엄혹한 추위와 힘겨운 노동, 거치른 수림속에서의 천막생활 등 겹치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여 애초의 희망과 포부, 지향을 저버리고 개발지를 떠나가버린다. 성과견원과 황부상에게 붙어 자기의 희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안고있는 그는 사랑하는 처녀 심정순의 애원과 진심에 찬 호소도 물리치고 그의 순결한 마음을 꺼리낌없이 짓밟으며 주인공 최정무에게는 석탄이너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는 황부상의 승용차를 타고 도피하는 탈주병이 되는것이다. 때문에 그는 참다운 사랑을 꽃피울수 없었고 자기의 청춘시절에 남긴 그 오점으로 하여 피로움에 모대기게 되고 끝없는 자책과 회오 속에 잠겨 정신적으로 방황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작품은 최정무와 애정관계에 있는 서은경의 성격도 일정하게 개성화하였다.

정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으로 하여 정무의 지향에 열렬히 공감하면서도 그와 함께 개발지로 떠나지 못한 도덕적채무자로서의 량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민속에서 방황하던 서은경은 행복을 창조하는 세대로서가 아니라 다만 마련된 행복을 누리기만 하는 세대로 살것을 희망하며 정무를 평양으로 데려가도록 설유해보려 한다. 시인이 되고 배우가 되려는 정무와 자기의 약속된 리상이 개발지에서는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 꿈으로만 남아있을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정무의 변함없는 신념과 개발자들의 참된 지향앞에서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게 되며 정무와 자기의 지향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뒤늦게나마 찾아보게 된다. 하여 자기의 저속한 리상을 정무의 높은 리상에 일치시키길 결심을 품고 개발지에 남아 자기의 청춘과 사랑, 한생을 바쳐갈 용단을 내리게 되며 혈육의 정으로 끌어당기려 하는 오빠 서준혁의 강요도 맹정히 물리쳐버리는것이다.

작품은 또한 군사적규율과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중대장 정무와 엇서 불량청년들과 휩쓸려다니며 주먹싸움질로 공사장질서를 문란시키던 대철, 사랑의 실련으로 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매고 그 누구에게도 결을 주려 하지 않던 리해송 등이 정무의 참된 지향과 진심을 리해하게 되면서부터 그 보람찬 투쟁속에서 대철이와 해송이의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나고있는 과정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은 또한 전사한 아버지의 넋을 이어받아 성장하는 정무와 당위원장 리광섭과의 부자지간과 같은 인간적관계 그리고 부당한 권력앞에서 굴함을 모르는 진실한 로탄부인 강달호아바이와의 참된 관계를 통하여 로세대들의 지향이 수령님을 받드는 한길에서 어떻게 새 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이어져

야 하며 더욱더 역세게 불타야 하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특히 영웅적인 위훈과 창조, 영광을 끝없이 동경하며 사랑과 열정에 불타는 청춘시절의 아름답고 숭고한 지향과 감정정서를 개성적인 인간성격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최정무를 비롯한 주요인물들의 새 생활에 대한 지향은 강렬한것으로 특징되며 시적인 정서생활과 랑만으로 차넘쳐있다.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어가는 위대한 사회적변혁의 시대를 방불하게 드러내보이는 엄철수의 성격도 개성적이며 언제나 질서와 사업체계가 서지 않은 새로운 건설장이나 개발지로 불리워다니는 《북부란전호랑이》로 이름난 최윤지배인의 성격 또한 개성적이다.

석탄이 바로 대철이와 해송의 참된 사랑을 꽃피워주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줄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결혼식상 한복판에 담이 아니라 석탄덩어리를 놓는 강달호아바이의 성격도 뚜렷이 개성화되었다.

작품은 조국땅우에서 벌어지는 모든 창조와 변혁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간고한 투쟁이 동반된다는것, 따라서 그러한 투쟁속에서의 생활은 보람차고 영웅적인것으로 된다는 진리를 밝히면서 새 생활이 개척되는 개발지를 생활무대로 하여 다양하게 발현되는 청년들의 개성적성격을 비교적 생동하게 창조하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간과할수 없는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 주인공의 성격장성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최정무의 성격을 성격론리를 타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일면적으로 그리고있다.

주인공이 전사한 아버지의 통지서를 받고도 그것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가슴속에 묻어둔채로 개발지로 떠나는것, 개발지에서 각지에서 달려온 개발자들로 대렬편성을 할 때 그리고 첫 개발자생활을 시작할 때의 주인공 최정무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는 완전히 준비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낸다. 이것은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으로서서는 너무나도 진실감이 부족한것이다.

더우기 개발지에서 성과견원과 당당히 맞서 대결하는 사건과 장면들에서 작가는 최정무의 정신세계를 지나치게 높이 올려세워놓고 아무런 결함도 없는 완성된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주체의 인생관의 확립과정을 생활의 법칙에 맞게 형상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는 주요인물들의 생활바탕을 아무런 고생도 모르고 안온하게 자라난것으로 형상함으로써 가렬치절한 전사환경과 간고한 전후복구건설의 시련속에서 자라난 세대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그 이후세대의 생활을 보여주는듯한 느낌을 주고있는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생활에 대한 작가의 탐구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작품에는 특히 인간관계설정과 일부 인물형상에서 도식적이고 류형적인 측면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주인공을 비롯한 청년들의 지향을 억제하고 압력을 가하는 석탄공업성의 황부상과 그의 하수인으로 되어있는 성과견원 백영진 그리고 간첩암해분자인 기술지도원 우민수 등을 부정인물로 설정하고 주인공과 이자들과의 사상정치적대결을 주요갈등선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인간관계 설정은 이미 다른 작품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류형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전후복구건설시기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에서 본것과 너무 유사한것이다.

당의 뜻과는 다르게 탄뚱을 꾸는 종파나부랭이인 배신자 황부상, 그를 등에 업고 주인공의 정당한 주장을 직선으로 억누르려 하며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주인공을 대오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교만하고 방종한 청년인 출세주의자 백영진, 이들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교활하고 음흉하게 책동하는 간첩 우민수 등의 형상은 류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작가들앞에 나서는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의무일뿐아니라 본성적과제로 된다. 작가는 인물설정과 형상의 모든 면에서 언제나 독창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창작세계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창작 그자체가 본성에 있어서 독창적이라는것은 이미 적지 않게 논의된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도식의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새롭고 독창적인 창작의 세계를 개척하는데서 창조의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한다.

장편소설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리상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면서도 우의 작품과 다른 일련의 특색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단순히 80년대라는 시대적차이나 농촌생활을 바탕으로 하였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대학도 도시도 마다하고 고향농촌에 집단진출한 청년분조원들이 당과 수령의 의도와 구상대로 우리 농촌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가꾸고 꽃피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바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리상의 참됨과 숭고함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주영을 비롯한 청년분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당의 령도가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귀중한 이 나라의 땅을 열렬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우리 시

대 청년들의 참다운 본보기들이다.

주인공인 청년분조장 김주영은 아름답고 희망차며 고상한 지향과 참된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처녀로서의 성격적특징이 선명하다.

주영의 형상이 사랑스럽게 안겨오는것은 그의 성격을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으며 사랑도 있고 고민도 있으며 노래도 있고 눈물도 있는 다정다감한 처녀로, 지성이 높은 새 세대청년으로 형상한데 있다. 그는 남들이 땀흘려 가꾼 화려한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행복을 누리려 하는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훌륭한것, 즐겁고 행복한 모든것을 오직 자기의 땀, 자기의 정열, 자기의 지혜로 가꾸려는 강렬한 지향으로 가슴을 불태운다.

작품은 농촌에 집단진출한 청년분조원들이 생활과정에 부닥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건을 청년들의 감정심리적특성에 맞게 아가자기하게 흥미있게 이끌어어나가고있으며 등장인물들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분석적으로 파고들고 그들의 광망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정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영의 마음속 기둥이였고 믿음의 의지였던 태진이가 자기들의 리상을 앞당기려는 조급성으로하여 대학으로 떠나게 되는 행동은 《빛나는 바위》에서 애초에 다졌던 맹세를 저버린 일종의 배신이다. 육종학의 비밀이란 태진이가 소원하는것처럼 그렇게 한두해동안에 탐구되고 성공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영에게 있어서 마음속 하나의 의지점을 잃는 심각한 정신적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육분의 언니 춘섭이가 도시로 시집을 가게 되는 사건은 앞으로 처녀분조원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수 있는 씨앗으로 된다. 한것은 춘섭이가 주영의 선배이며 학교때 사로청부위원장이였고 고향에서 남먼저 청춘을 바치는 선망의 대상이었던때문이다.

어둠이 깃든 포전에서 우등불을 피우며 열성스레 일을 했고 공사장에서 땀흘려 일한 대가로 표창장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행복》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적인 연극에 지나지 않았던것이다. 춘섭은 생활관자체가 개인의 안락과 리기로부터 출발한 개인주의적인것이였다. 오직 자기자신만을 위한 리기적인 생활에 대한 추구, 이것이 그의 사고와 행동의 전부이며 지향의 한계점이다. 친정집에 다니려 와도 몇가지 상품을 뿌려준대가로 그의 몇배에 달하는 요긴한것들을 한가득꾸러가지고가는데서 일종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여기에 그의 생활관의 저조성이 있다.

주영의 지향이 정신적시련속에서 더욱 강렬해지게 되는것은 육분이와 광렬이와의 분규이다.

육분이나 광렬이들은 태진이와 함께 주영이의 가장 믿음직한 벗이며 동지였다.

육분은 육체적허약과 의지의 나약성으로 난관앞에 겁을 먹고 오히려 동무들의 집이 될것이 두려워 집단과 함께 다진 맹세를 저버리고 고향마을을 떠나가버리는것이다.

광렬은 한가지 일을 해도 옷사람에게 잘 보여 인정받고 평가받을수 있는 일을 하여 남보다 먼저 당에도 들고 표창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명주의적인간이다. 때문에 그는 집단이 다진 맹세와 지향과는 달리 개별적인 일군인 관리위원장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개간지를 버리고 평가받을수 있는 다른 일에 정력을 바치는것이다.

주영의 아름답고 고결한 마음은 관리위원장 리탄실과의 관계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리탄실은 자기가 해놓은 일에 일종의 만족을 느끼며 고생스럽게 여기저기 일을 벌려놓지 않고 될수록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도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길을 택한다. 관리위원장사업을 마친후 생활밀착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대학에 간 아들이 도회지에 자리잡도록 하려고 퇴물작전을 벌린다. 그리고 제살불이처럼 아껴주고 믿음을 주며 《머느리》감으로 점찍어놓았던 주영을 놓고 저울질하며 리기적타산을 앞세워 그를 멀리하고 아들 태진이와의 영원한 결별을 강요하는것이다.

하지만 주영은 그 모든 괴로움과 설움, 아픔을 말없이 묵새기며 오로지 당의 뜻대로 가래말등판을 락원으로 꾸릴 하나의 지향으로 가슴을 불태운다. 여기에 순결한 애정을 간직한 주영의 성격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이 있고 그 고결함으로 하여 그의 성격은 더욱 매력을 준다.

작품에는 또한 젊은 시절에 저하나의 편안을 위하던 나머지 자식마저 버리고 시집을 갔던 주영의 친어머니 혜선이와의 관계, 안해와 자식을 잃고 머느리의 버림까지 받고 홀로 손녀와 살아가는 김덕수할아버지와와의 관계속에서 주인공 주영의 성격장성과정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보여주었다.

작품은 특히 복잡하게 얽히고 맺혔던 인간관계들이 주영을 비롯한 청년분조원들의 아름다운 지향과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 속에 풀려나가고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됨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자기가 사는 땅에 대한 애착이 적은 사람들은 시련이 부닥치자 아무런 미련도 없이 편안하고 명예가 있는 길로 가버렸지만 고향에서 땅과 함께 자기의 청춘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더욱 억세여지고 아름답아지는것이다.

주영을 비롯한 청년분조원들의 강렬한 시대적지향과 신념, 열정으로 하여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육분은 다시 집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며 오직 과학의 세계에서만 사물을 고찰하던 박진경연구사도 이 땅을 위해 한몫하는 참된 주체형의 지식인으로 성장한다. 대학으로 떠나 육종학의 비밀을 탐구하던 태진은 연구소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관리위원장 리탄실도 늦게나마 자기를 심하게 뉘우치고 주영의 지향을 따른다.

이리하여 그는 지난날 혁명을 위해 일정한 공적을 쌓은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톡대고 자기 살길을 닦을 때 본의던 아니던 혁명에 저해를 주며 배신의 길을 걷게 된다는것, 주영이와 태진, 옥분이와 광렬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에 금이가고 깨여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기였다는 뉘우침으로 하여 자신을 저주롭게 생각하며 당의 뜻을 쫓아워가는 청년들의 고귀한 지향에 자신의 지향을 일치시키는것이다.

주인공을 비롯한 청년들의 우정과 사랑은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고 조국을 빛내이기 위한 하나의 지향으로 불타게 된다.

그리하여 작품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새 세대들인 젊은 청년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만족할것이 아니라 보다 아름답게 변혁시키고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는 진리, 조국땅에서 살아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조국이 없고 그가 어디에서 살든지 조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사람에게만 참된 고향과 조국이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준다.

이처럼 소설은 각이한 개성을 가진 청년들의 지향과 이상이 어떻게 당의 뜻을 받들어 조국을 빛내이는 한길에서 일치되며 강렬하게 불타오르는가하는것을 동지와 벗들간에 밀착된 인간관계속에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어떻게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지니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인간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특히 청년들의 감정정서와 심리를 시대정신의 요구에 맞게 분석적으로 파고들어 그 지향의 아름다움과 강렬함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상미학적감흥을 준다.

작품에서는 정의감이 강하고 진취적이며 새것에 대한 지향이 강렬한 청년들의 특성이 주요인물들의 성격에 개성적으로 뚜렷이 체현되어있다.

소설은 새 세대 농촌청년들의 성격적특징이 농촌생활특유의 풍만한 정서와 생활을 바탕으로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형상되었으며 생활감정과 심리를 섬세하게 분석적으로 파고들고 성격을 드러내는 인상적인 세부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부족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기한 인간문제를 인간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지 못하고 생산기술적문제를 기초로 삼고있는 지난시기 일련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결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인간문제를 중심에 놓고 인간의 운명문제에 심

오한 해명을 주려 하지 못하고 송아지등판의 재간만을 고집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개별개간에 청년들의 힘을 집중시키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주영을 비롯한 청년분조원들과 광렬이, 관리위원장 등을 타방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대립시켜놓고있는것이다.

따라서 광렬의 주장의 부당성은 농장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더우기 관리위원장의 부정적성격을 깊이있게 파고들수 없었다. 단지 주영과의 관계속에서 표현되는 인정심리적인 감정분석을 통해서만 리탄실이 그릇되다는것을 확인하고있을뿐 인간문제에 기초한 전세대와 새 세대와의 심각한 극적대립, 다시말하여 리상과 지향의 불일치에 의해서 야기되는 생활을 인생관, 생활관의 견지에서 예리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리탄실의 생각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형상되지 못하였다.

작품은 웅당 청년들의 지향과 대치되는 리탄실의 근시안적이며 협소한 일면적인 태도, 새것의 창조와 변혁에 제동을 거는 인간으로서의 리탄실의 부정적성격을 제기한 인간문제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파고들었어야 하였다. 그래야 주인공 주영의 성격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낼수 있을것이였다.

또한 작품에는 태진이가 대학을 졸업한후 과학연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하는 문제, 가래말보다 더 척박한 산간벽지를 락원으로 꾸릴 결심을 안고 주영이와 작별하는 사건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시대의 요구와 맞겠는가. 제고향땅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는 작품의 문제성과 일치되는가 하는것을 깊이 음미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설정한다면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나라의 전망적인 과학기술발전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무시하며 오직 눈앞의 당면한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을 긍정하는데로 이르게 될수있으며 청년들의 량만적인 생활에 대한 지향이 일면성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것은 청년들의 시대적지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청년분조원들의 새 생활에 대한 지향과 량만을 버림받던 고향땅의 한 부분을 개간하여 자연을 정복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고있는 매성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관계로 이루어진 공고한 집단으로 자라나는데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태진이가 제고향보다 더 척박한 산간지방으로 떠나가게 하는것도 작품이 제기한 문제성과 통일되어있지 않으며 인위적인 사건조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인간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과학기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
비된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이다.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의 성격적특징을 형상함에
있어서 이것을 간과하게 된다면 성격의 전형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없다.

작품은 또한 사건들이 부분적으로 자질구레하고
즐거움이 좋지 못하며 장편소설로서의 전반적인 생리

가 조화롭지 못하고 허약한 부족점이 있다.

장편소설은 장편으로서의 골격과 구조를 갖춘 자
기의 생리적구조를 이루고있어야 한다. 이것은 작
품형상의 일반적법칙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에서 청년들이 차
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새 세대 청년들의 전
형창조에서 창조적탐구를 깊이있게 함으로써 주체
문학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첫 청년절의 밤에

리종덕

마침내

누를길 없는 걱정과 환희를 터치는가

첫 청년절의 이밤

하늘가득

진주보석을 휘뿌려놓는듯

축포가 터진다

저 넓은 광장도 모자라도록

끝없이 펼쳐놓은 청춘들의 환희에

머리 흰 이 마음도 젖는가

한결음한결음 나도 이끌려

이 물결속에 잠기었으니

오, 이밤

이 환희의 물결에

대동강가의 이 마음만 젖는것이라

조국땅 그 어데선가

가슴들을 설레고있으리

화선천리 불속도 헤쳐온 전우들

해주-하성, 서두수와 룡흥별...

걸음마다 빛나는 위훈을 새긴

나의 동시대 청춘들

생각해보면

우리의 청춘시절에

안식의 밤이 따로 있었던가

사랑으로 밤 밝힌 일이 있었던가

어쩌다 거리에 한번 나설 때에도

합숙처녀들이 풀밭을 세워주면

너무도 수수한 옷차림이었어도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우리와 젊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밤이 따로 있었다면

아껴둔 피

남겨둔 땀이 따로 있었다면

이렇게도 가슴 터질듯

금지과 자랑으로 부풀것이나

미래를 위해

오늘을 바칠줄 아는것이 청춘인가

쪽잡속에서도 그려보던대로

내 조국은 꽃피났어도

돌격대의 기발들을 높이 날리며

대건설의 탑들을 세워가는 청춘이여 청춘이여

그래서 조국은

첫 청년절을 축복해

온 세상 진주 보석을 다 모아다가

송두리채 쏟아붓는것 아니던가

우리 맞고 보낸

년대는 서로 달라도

위대한 당의 뜻 받들어

위훈으로 넘겨주고

위훈으로 이어받으며

청춘의 자랑을 함께 지냈거니

오, 나에게 청춘이란 말

어울리지는 않아도

아름다운 미래

다름아닌 내 조국의 래일

눈부신 2천년대가

이 가슴에 물결쳐와

진정할수 없는 밤이구나

기념하라

차영도

기념하라, 우리의 날이다 !
자랑찬 젊음을 한껏 펼치며
《청년절》
이날을 기념하라 !

환희로운 가슴에
참으로 생각도 깊어지는 날,
마음의 지평선 그 어디선가
이 나라 애젊었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웃으며, 활개치며 자꾸만 걸어온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들이 한별을 우리러
하늘가에 높이 추켜든 우리의 첫 기발
그 기발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들이 혁명에 바친 젊음,
그들이 조국에 바친 그 피더움,
우리의 가슴속에 피줄처럼 살아뛰는
그 모든것을 기념하라

암운이 피젖은 대지위에 얼어붙던
그 30년대 첫 기슭 바람찬 오두막에서
수령과 나눈 열혈의 언약
그 불멸의 언약을 기념하라

때로는 단두대앞에서
오늘의 조국을 그려보며
저 푸른 하늘에 고이 없고간
푸른 꿈, 푸른 웃음...
그 꿈, 그 웃음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 불굴의 녀, 그 타는 불
그리고 기념하라

우리 떠나온 혁명의 첫 기슭
뿌리깊은 그 전통, 그 슬기를
기념하라

오, 《청년절》, 《청년절》!
친애하는 그이께서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의 반석우에
해빛처럼 빛내주신 《청년절》!

보아라, 이날을 맞아
우리의 성미인양 동녘에 불끈 솟은 해
억만가닥 금빛해살 경축의 테프로 늘인다
불같은 가슴들에 해살을 휘감으며
복받은 청년들아, 원무를 벌리자!

꺼지도록, 땅이 꺼지도록 구르는 발
밭밑에선 때아닌 백두의 눈보라
구름처럼 인다
전위들이 춤추며 휘돌던 천고밀림이
머리위에 푸른 줄기 휘젓는다

그리고 또,
그리고 우리 세운 오늘의 기념비
우리 키운 이 땅의 오킵이
함께 춤추며 이날을 축하한다
달리는 렬차도, 항구의 고동소리도
그 모두 이날의 환희로운 목소리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리는 친애하는 그이의 청춘
그이의 전위,
이 공지, 이 영광을
력사에 기념하라 !
만대에 기념하라 !
우리는 조선청년이다 !

환 송

최성진

이제는 그들모두가 어엿한 로동청년들로 되었을 것이다. 애티가 가셔지지 않았던 그 해말간 얼굴들은 북방의 사나운 바람에 까칠해지고 황동빛으로 변했을 것이다.

지금은 밤이다. 창문너머 펼쳐진 망망한 검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빛난다.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하고있다. 조금전에 텔레비존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첫 청년절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을 받들고 로력전선에서 위훈을 세우고있는 청년들이 소개되었다. 그때 대홍땅의 청년들도 나왔다. 나는 텔레비존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은근한 기대를 가졌었다. 그곳 대홍땅에 내가 만났던 청년들도 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화면에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않았다.

나는 자기가 맹랑한 생각을 했다는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자그마한 화면에 무슨 수로 그 많은 대홍땅의 훌륭한 청년들을 다 소개할수 있겠는가. 더우기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들 어떠랴. 그들은 오늘도 텔레비존으로 소개된 그 청년들처럼 대홍땅에 뿌리를 내리고 청춘시절을 빛내고있음은 틀림없음에랴.

하지만 오늘은 류달리 생각이 깊어지는것이였다. 그 미덥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보고싶어지는것이였다. 이밤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밤교대에 나갔을까? 아니면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와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을까? 자기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걱정이라던 그 키작은 옥이백이 친구는 지금쯤 합숙침대우에 노그라져 단꿈을 꾸고있을지 모른다. 기타를 가지고가던 키가 큰 멧쟁이친구는 회관무대우에서 예술소조공연련습에 한참 열을 올리고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어사전을 배낭속에 넣어가지고 간다던 《박사머리》는 아마도 할아버지의 엄한 당부를 잊지 않고 책상머리에 나앉아 공부에 열중하고있으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춘시절은 사람의 한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절입니다. 사람은 청춘시절에 원대한 포부와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고상한 리상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섭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처음 만났던것은 동해선을 달리는 렬차안에서였다. 새벽이 되여 렬차는 해안도시의 역두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취주악소리가 들려왔다. 차창을 통하여 내다보니 취주악대와 함께 꽃다발을 든 학생들이 누군가를 환송하고있었다. 취주악대가 연주하는 선율은 삽시에 렬차안을 술렁이게 했다. 그것은 매 세대들의 청춘시절을 회고케 하는 추억의 행진곡이었던것이다. 그 행진곡을 부르며 해방된 새 조선의 청년들은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섰고 전쟁시기에는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려 고향을 떠나갔다. 전후에는 또 얼마나 많은 피끓는 청춘들이 당의 부름을 받들고 우렁찬 행진곡이 울리는 역과 역들을 떠나 철도건설장으로 발전소건설장으로 산으로 바다로 떠나갔던가! 나 역시 그 노래를 들으며 애젊은 시절에 고향의 간이역을 떠나 초소로 갔었다. 그때 나를 배려하던 선생님과 학우들과 친지들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그런데 오늘은 또 누구들이 환송의 역구내를 떠나가고있는것인가.

렬차가 떠날무렵이 되어서야 그 주인공들이 차칸안으로 들어섰는데 한개 학급이라고 생각되는 고등중학교 졸업 생들이였다.

《야 이녀석, 공부해라, 공부해. 땡땡이를 부리지 말구. 알겠니.》 하고 로인 하나가 차창밖에서 다가와 안에 대고 소리쳤다. 내옆으로 온 졸업생에게 말한것 같은데 목대가 가늘고 얼굴이 해말썩한 그 친구는 대답대신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외국어 …외국어를…잘…해…라-》 렬차는 굴러가기 시작하고 로인은 따라오며 또 소리친다. 손님들에게 류다른 인상을 주는 로인이였다.

렬차는 인차 붉은 노을이 비낀 과원기슭으로 즐기치게 달리였다.

《친군 외국어공부를 잘못된게지? 그런데 이자 구분은 아버진가?》 나는 얼굴 해말썽한 졸업생에게 물었다.

《할아버지입니다.》

《어, 그래? 집에서 노시나?》

《저친구 할아버진 열공학박사입니다.》 옆에 있던 미끈하게 생긴 친구가 끼들어 알려주었다. 키작은 다른 친구가 또 슬쩍 참견했다.

《박사머리 민구 땡땡이부리다가 졸업시험때 외국어과목은 4점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욕먹었다구요. 사흘동안이나 할아버지가 무서워 집에 못 들어가구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지요.》 아마도 자기의 어리숙해보이는 친구를 초면의 손님앞에서 골려주고싶었던 모양이었다. 키작은 친구는 가쁜한 흰 이를 드러내며 생글생글 웃었다. 사흘이나 밥을 《얻어먹었다》는것은 꾸며낸 말일것이다. 조금전에 얼핏 본 그의 할아버지는 고급한 지식인인데다가 첫 인상조차 무척 선량해보였기때문이었다.

나는 그 《박사머리》에게 호감이 갔다. 그가 정말 할아버지의 비상한 두뇌를 유전받았다면 앞으로 틀림없이 훌륭한 과학자가 될수 있는 재목감이라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성격이 온화하고 어리숙해보이면서도 영민한 사색형인 이런 친구들이 대체로 공부를 하면 성실하고 완강한것이다.

《손자가 대학에 못가서 박사할아버지가 몹시 섭섭해하지 않았나?》 아마도 그 외국어때문에 대학입학시험에서 떨어졌을게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박사머리》는 히죽이 웃기만 했다.

《예.》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자진하여 대흥으로 간다는것을 아시자 무척 대견해하며 지지하셨습니다.》

차창가에 자리를 잡은 나의 애젊은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는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을 보니 요즘은 청년들이 대흥으로 가더구나. 우리도 이런 환송을 받으며 고향땅을 떠나던 때가 있었다. 그때

우린 처자를 두고 총포탄이 튀는 전선으로 나갔다. 열공학을 배운것은 그후였다. 전후에 대학으로 갔지. 누구나 청춘시절에 조국이 부르는 어려운 초소에서 땀을 마음껏 흘려봐야 한다. 그래야 자기 당과 자기의 조국을 사랑할줄 알게 되고 한생을 훌륭하게 살게 된다.》 하고 말입니다.》

나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선량한 인상을 자아내던 로인, 박사의 웅심깊은 마음이 헤아려지는것이였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다. 전쟁과 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 젊은 시절을 값높이 산 우리혁명의 2세-머리흰 로박사가 오늘은 자기의 사랑하는 손자를 당이 부르는 어려운 초소으로 보내준것이였다. 지나온 해안도시의 역구내에서 본, 지금은 어디가나 혼한 일로 된 그 환송장면이 나에게서는 단순한 작별의 모습으로만 생각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인생의 푸른 기슭을 출발하는 애젊은 청춘들을 환송하며 그들의 구만리로 이어질 삶의 길에 위훈이 있기를 축복하는것이였다.

정말이지 오늘 우리 혁명의 새 세대들은 얼마나 좋은 세월에 태어나 청춘기의 첫자욱을 떼고있는것인가. 청년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은 비할바없이 크다. 우리 당은 청년들을 혁명투쟁에서 가장 힘있고 적극적인 부대로 보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에 내세워주고있다. 사랑과 믿음이 한없이 커서 오늘은 또 청년절까지 제정해주지 않았는가.

바로 내가 만났던 그들도 오늘은 뜻깊은 첫 청년절을 기념했을것이다. 첫 청년절을 맞으며 보람찬 청춘기를 맞이한 푸르른 삶의 기관차는 찬란한 희망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리라.

《위훈을 세우라구. 영웅이 된다음에 취재하러가지.》 그날 렬차에서 먼저 내리며 내가 그들과 한 약속이다. 나는 지금도 그들이 모두 영웅으로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박사의 손자가 거기서 대학으로 가고 미구하여 조국의 귀중한 과학자가 되리라는것까지도. 애어린 나무는 해빛을 받아 거목으로 자라는것이다.

아름다와지라! 더 훌륭해지라! 그대들의 청춘의 길이 위훈으로 빛나기를 축복하노라! 나는 이밤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환송하고있다.

삶의 향기

정 현 철
그림 김원래

달포동안의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인 안천주교수는 언제나처럼 발자국소리도 조용히 집에 들어섰다. 너렁청한 전실에 앉아 무엇인가 골똘히 들여다보고있던 안해는 벌써 남편의 체취를 느끼고 얼른 일어서며 반겼다.

《지금 오세요 !》

《잘 있었소?》 안천주교수는 그윽히 미소를 지었다.

《헌데 영혼 어디 갔소?》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투를 받아들던 그 녀자는 문득 생각났는지 방금 보다가 방바닥에 놓은 손바닥만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건 무슨 사진이요?》

《...》 안해는 대답에 앞서 사진부터 넘겨주었다. 아들 영호가 웬 처녀와 다뽕이 앉아 찍은 것이었다.

《대학동창인가?》

《아니요.》

《그럼?》 안경알너머에서 바라보는 안천주의 눈은 커다래졌다.

《영호의... 애인인것 같아요.》 남편의 안색을 살피며 머뭇머뭇 말하는 그 녀자의 눈에는 무엇인가 간절히 기대하는 빛이 어리여있었다.

《이 처녀가? ...》 안천주는 두눈을 쪼프리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음...》 하고 가슴속에 생겨난 감정의 반응인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리고는 좀 여유를 두고 생각하고싶은듯 천천히 걸어 벽한면이 보이지 않게 책으로 꼭 들어찬, 그리하여 더 깊은 정숙이 깃들여보이는 서재의 쏘파에 가서 앉았다. 갑자기 오랜 출장의 피로가 몰려오는듯 안경을 벗어 옆원탁우에 놓고는 쏘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확이 더 우묵해진것 같았고 휘연히 벗어진 이마도 더욱 넓어진것 같았다. 시원히 트인 그 이마로 끝없는 생각이며 감정이 줄달음쳐가듯 세줄기의 주름살이 깊어지면서 꿈틀 살아움직이었다. 음... 언제인가 이 애비가 소개해준 처녀는 보지도 않겠다던 녀석이...

《거위... 어제까지 주소와 이름조차 몰랐던 처녀를 이제 만나서 문득 사랑한다는게... 전 소개받는 것이 싫습니다.》

당돌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전에 쟁쟁하다.

그런데 정말 제절로 이 처녀를 깊이 사귀었다말이지...

안천주는 자기의 마음이 기쁜것 같기도 하고 불쾌한듯싶기도 하였다. 분명한것은 허전한 감정뿐이었다. 결국 아들의 문제에 아무런 역할도 놀수없는 아버지로 된것이 아닌가. 아들은 딸없는 집에서 저 하나만을 어자어자 키워선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을 도전적이리만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아들이 아홉살에 잡히던 해의 어느날이었다. 아들은 학습반에 갔다오더니 골살을 찌프리며 다리를 살룩살룩 절었다.

제 어머니가 어푸러질듯 발을 부여잡으며 왜 그러는가고 물으니 발에 난 티눈을 칼로 우벼내어 뽑았다는 것이었다. 정말 왼쪽 새끼발가락에는 누구의 샤쓰를 찢어낸듯한 천조박이 감겨져있었는데 피물인지 약물인지가 빨갭게 물들어있었다. 안천주는 아들을 앉혀놓고 근심스레 물었다.

《아프지 않더냐?》

《아팠어요.》

아들의 눈언저리는 빨갭게 부어있었고 시꺼먼순으로 이리저리 씻은듯 눈물자욱이 어지러이 그려져있었다.

《그런데 왜 파냈느냐?》

《보기 싫어서요.》

《누가 그걸 알거나 하느냐?》

《제가 알지 않나요. 티눈이 있으면 먼길을 걷지 못한다고요, 우리 반 애들이 그랬어요.》

《허, 그녀석...》

웃어넘길수밖에 없었다. 십분 그럴수 있고 또 그럴 나이가 아닌가. 아홉살에는 아홉동네의 미움을 산다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이쯤은 약파인셈이었다. 그러나 안천주는 또 그러지 못하게 단단히 엄포를 놓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생활에 칼을 대면 쇠독이 올라 죽을수 있다. 알겠니? 이렇게 통통 부어서.》

그러나 아들은 얼마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티눈을 다시 칼로 우벼내고 이번에는 전지약을 터쳐 그속에 있는 하얀 가성소다를 넣었다. 제 동무들한테서 그렇게 하면 뽑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애어린 발은 인차 통통 부어올랐고 끝내는 병원으로 실려가고야말았다. 며칠이 지나서 퇴원할

때 안천주는 《이번에 혼났지?》하고 은근히 다짐을 두려고 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티눈을 떼지 않았나요. 그러구 양재물이 티눈뿌리까지 죽인다는것두 알았구요.》

반짝이는 아들의 눈은 오히려 빠기는듯 기빠하고 있었다. 그것은 제 주장으로 쟁취한 첫 승리였던 것이다.

《그래 당신은 그애 일을 어떻게 생각하오?》

안천주는 슬며시 눈을 뜨고 어느새 따라와 옆에 서있는 안해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생각할게 있어요? 그애가 좋다는데… 난 뭐… 반대없수다.》

《허, 참…》 안천주는 놀랐다. 무슨 문제든 물으면 나야 뭐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지요 하는 식으로 남편의 의사만을 좇곤하던 물에 술타고 술에 물탄것 같던 안해가 언제부터인가 제 주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래 당신 그 처녀를 만나봤소?》

《아니… 그저 애한테 들었어요.》

안해는 대답하고나서 저로서도 무엇인가 불만족한듯 《하지만》하고 계속하여 말하고싶은 심리를 그윽한 눈에 먼저 내비쳤다.

《당신두 한번 그애 일기장을 보시면… 전 방을 거두다가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일기장? 허… 엉터리군… 일기장이나 봐가지고 어떤 처년지 알겠소. 그러구 아무리 제자식이라도 일기장을 본다면 공정이 안되지.》

안천주는 원탁우에 놓인 새달의 공학잡지책을 꺼어당겨 무심히 한장한장 번치면서 계속해 물었다.

《그런데 그녀석의 애인이라는 처녀는 어디 있오?》

《같은 연구소에서 일한댔어요.》

《같은 연구소?》 그 말이 불러낸 아슴푸레한 추억의 한 생활을 바라보는듯 그는 두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며 창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득 외래머리의 동실한 얼굴이 물우에 비친 보름달처럼 우렷이 떠오른다.

30여년전 학위논문준비때문에 서너달동안 지방의 어느 기계공장에 나가있던 안천주는 열방의 설계실에서 사도공으로 일하는 한 처녀를 알게 되었다. 조용하고 섬세한 처녀였다. 글씨는 또 얼마나 곱게 옥필로 쓰는지 몰랐다. 안천주는 전쟁때 부모를 잃고 공장합숙에서 생활하는 처녀에게 독신생활에서 제기되는 자질부레한 일들을 부락하곤했다. 처녀는 매번 상냥히 들어주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번 반복되는 과정에 안천주는 그 처녀에게 마음이 끌림을 어쩔수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에서는 야회를 갔다. 점심식사후에 부서별로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제일 인상깊

었던것은 둥그렇게 원을 그은 안에서 남자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사람을 찾는 유희였다. 보지 못하는 남자들은 소경막대질하듯 헛손질을 하며 녀자들을 찾고 녀자들은 안잡히려고 요리조리 피해달아났다.

《처녀들은 잡히우는 총각에게 시집을 가야 돼.》

누군가 룡담으로 이렇게 선언하자 《그래요. 그래.》하고 모두들 좋아라 맞장구를 치며 떠들썩 웃어댔다. 그런데 안천주는 사도공처녀만 따라갔다. 자기가 폭로될가봐 손으로 입을 싸쥐고 캐들캐들 웃으며 눈먼 남자들을 놀리면서 이쪽저쪽으로 피해달아나던 처녀는 옷설에 불이 당긴듯 당황해났다. 뒤로 물러서도 옆으로 달아나도 그는 마치 눈뜨고 보는듯 정확히 자기만 따라오고있는것이 아닌가. 저 동문 수건밑으로 다 보는모양이야. 이러다 잡히면 어찌나… 아이, 망칙해! 그러나 처녀는 곧추만 따라오는 안천주에게 끝내 잡히고야말았다.

《잡았다! 가만, 내 색시감이 누군가?》 안천주는 짐짓 누군지 모르는 사람처럼 시치미를 떼고 수건을 벗으며 필요이상의 큰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었다.

야회가 끝난 서느러운 저녁 안천주는 처녀와 단둘이 걸어 공장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승벽내기로 울어대는 매미들은 마치 안천주에게 가슴속 말을 망설이지 말고 남자답게 빨리 하라고 부추기는것만 같았다. 마침내 안천주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저 순회동무!》

마주서자 처녀는 키가 더 작아보였다. 하지만 크고 단 참외가 있을가? 단 참외에도 쓴 꼭지가 있는 것이다.

《나와 함께… 평양에 올라가지 않겠소?》

경험이 없는 그는 직관 이렇게 묻고말았다.

《평양에요? 거긴 왜요?》

처녀는 너무나 천진했다. 그러나 줄지에 눈앞으로 다가온 제 운명의 어떤 예감에 소스라치듯 잔약한 어깨를 떨었다. 두려움이 가득찬듯 울롱해서 올려다보는 눈길은 곳곳이 얼어붙은것처럼 까딱움직이지 않았다.

《전… 전 사도공인데요? …》

처녀는 뒤걸음질 자세로 봉긋한 가슴우에 두손을 모아감으며 숨이 찬듯 소곤거렸다.

《난 뭐 사도공이… 더 좋더구만.》

《?》 처녀는 의혹어린 눈을 삼박거렸다. 이렇게 잘 생기고 또 훌륭한 미래까지 약속된 연구사선생이 나를 안해로 삼겠다는건가? 사랑이란 이처럼 하늘에서 똑 떨어지듯 졸연간 부닥치는것인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된지… 좀 생각해볼 시간을…》

처녀는 쫓기듯 허둥지둥 합숙으로 달려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과 달랠길 없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이불속에 감추고 하염없는 생각속에 빠져들어갔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 불현듯 자기의 도움이 요구된다는 연구사선생을 따라나서는것이 그어떤 도덕적의무감에 맞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도공으로서 남을 돕는데 습관된 처녀의 가슴속에 봄싹처럼 살포시 솟아올랐다. 그 선생은 지금 어려운 논문을 써야 한다고 했지... 아이 어쩔까?

이런 처녀에게 며칠후 안천주가 찾아왔다.

《난 래일 평양으로 올라가요. 전번날은 너무 마련없이 말했는데...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심을 주오. 하지만 난...》 그는 근심이 산갈은듯 부지중 한숨을 내쉬며 구슬피 어깨를 처뜨렸다.

《동무를 믿겠소!》

순간 처녀는 뜨거운 정을 느꼈다. 도토리알같이 홀갯이 살면서 기대일 언덕과 품이 그리웠던 처녀에게는 자기의 정을 불일 그 믿음이 귀중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알배기 밤알처럼 오붓이 쌍을 이루었다. 훌륭한 안해는 행복의 절반이라고 착실한 주부로 된 그 녀자는 안천주가 쓴 수많은 논문들과 교과서집필초고들을 알뜰히 정서해주기도 하고 필독문헌들을 구해오기도 했다. 훌륭한 남편에게는 훌륭한 안해가 있다고 단 한마디의 불평도 말함이 없이 애오라지 남편의 연구사업과 뒤바라지에 빠와 살을 아낌없이 깎아 바치는 그 헌신성이 있어 안천주는 그렇듯 젊은 나이에 박사론문을 제출할수 있었으며 오늘까지 창조의 빛나는 탐들을 성과적으로 쌓아올릴수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말다툼 한번 없이 살수 있었다.

그리하여 안천주는 아들에게도 안해와 같은 처녀를 붙여주려 했던것이다. 처녀의 아버지와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몇번 그의 집에 갔다가 부모들의 후덕한 마음과 처녀의 간진 일솜씨가 마음에 들어 아버지들끼리 먼저 말이 오갔던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제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가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하고 조심스레 곁들어서야 마지 못해 도의적으로 한번 만나본것으로 그쳤으니... 이 애비의 립장을 딱하게 만든것은 그런대로 참고리해한다 해도 곁봄에도 매우 숙부드럽고 차분하여 남편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줄수 있을것 같은 처녀를 외면한것은 정말 분한 노릇이다. 확실히 아들에게는 과학탐구를 생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투철한 각오가 부족한것 같다. 과학자는 사생활과 사랑에 귀중한 시간을 뺏길 권리가 없다. 옛사람들도 이르기를 자기 평생은 부지런하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았는가. 찬성할수는 없지만 세계과학계에 뉴턴, 아이작크와 같이 85살

의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독신으로 생활한 사람도 있었으니 아마 그런데는 자기 뜻의 성공을 위한데도 목적이 있었을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그녀석은 어릴 때부터 들뜨기 잘하여 찍하면 무슨 들놀이 나 극장구경을 가자고 조르곤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또 씨클을 한답시고 밤새껏 제 방에서 기타를 뽕뽕거렸는가 하면 시를 읊는다며 목이 쉬도록 열을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면서도 공부만은 잘했다. 매 학기마다 땡땡 여문 최우등을 했던것이다. 온도계처럼 예민하여 그렇듯 쉽게 반하고 감동하기도 잘하는 녀석이 한창나이에 처녀와의 연애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날에는 많은 정열과 시간을 잃어버릴것이다. 안천주는 바로 이것이 걱정스러웠다. 청춘의 사랑을 반대할수는 없지만 너무 풍덩 빠져서, 들떠서 과학과 시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이녀석에게 꽃정이 들었을때 명심시켜야 해, 욕으로 만든 등잔이라도 기름을 넣어야 불이 켜질수 있듯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빛을 낼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또 엇서지 않을까?

안천주는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중학교를 졸업할때도 이 애비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공업대학을 지망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지만 그녀석은 개성이요, 자립성이요 하면서 제 주장대로 기계대학에 입학했지, 참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물은 길을 켜는 방향으로 흐르고 호박넉죽은 울리는대로 모양이 잡혀진다. 이것을 오랜 교육자의 경험으로 굳게 믿어온 안천주였으나 아들의 경우는 특수하다고 할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권한도, 교육자의 경험도 아들앞에서는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자 그는 속절없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들 하나 키우기가 수수 한말 실에 꿰는것보다 힘들다는 말이 과연 옳은것 같다.

그는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움쭉 일어서 아들의 방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들의 책상에 가서 앉은 안천주는 두툼한 책갈피에 무엇인가 떨어져나오게 끼워있는것을 보았다. 무심히 책을 펼치여보니 봉투에 넣은 사진 두장이었는데 그것 역시도 잠전에 본것과 꼭같은것이였다. 이 녀석이 사진을 찾아서 아직 처녀에게 주지 못한 모양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책을 덮으려던 안천주는 날자들이 적혀있는것이 얼핏 눈에 띄워 다시 눈박아 보았다. 일기장이였다. 일기장을 보면 다 알게될거라던 안해의 말이 떠오르면서 구미가 당겼다. 그러나...

안천주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얼굴을 돌려버렸다. 어렸을 때는 일기 쓰는 법을 가르쳐주느라고 가끔 보곤했지만 지금은 섣뚱 눈을 줄수가 없었다. 도로 책을 덮으려던 그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하는 글발이 눈을 끌어 저도 모르게 한줄 또 한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출장기일도 끝나가고있다. 돌아오시면 과연 우리들의 사랑에 어떤 립장을 취하시겠는지?… 어머니는 긍정하셨다…

허, 하고 안천주는 고개를 들었다. 처녀와의 사이가 벌써 부모들의 승인을 요구할 정도로 가락지에 보석과 같이 뻔단말인가? 도대체 이녀석이 어떤 처녀를 사귀고있기에…? 안천주는 당금 알지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기전에 아버지로서의 응당한 의무이며 관심이라고 그는 고쳐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읽어서는 아무것도 알수 없지 않는가, 그는 두달전부터 처녀를 사귀기 시작했단 언해의 말이 생각나 지나온 날자들을 거슬러오르며 일기장을 슬쩍슬쩍 번져나갔다. 그런데 너무 많이 번져져서 서너달전의 일기가 펼쳐졌다. 하지만 그것도 알고싶었던것이였다.

…시간과 장소까지 약속해놓은 아버지의 체면때문에 도덕적으로 만나줘야 하는 딱하고 거북한 의무를 무거운 배낭처럼 등에 진 나는 만나자바람으로 돌아서 올수가 없어 처녀와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총각으로서 처녀에 대한 호기심도 없지 않았다. 바쁘실텐데 나와주어서 고맙다는 나의 인사에 처녀는 《아이, 이런 약속에야 뭐… 통일거리 건설지원사업을 하는걸 말하고 나왔어요.》 하면서 생긋 웃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런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게 자주 동강이 났다.

헤여질무렵 나는 집에서부터 생각한 문제를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슬쩍 물어보았다.

《동문 앞으로 뭘 할 생각입니까?》

《뭘 하다니요?》

《무슨 희망과 뜻을 가지고있는가 하는…》

《아이참, 녀자들이야 뭐 제가 하고싶은들…》 하고 처녀는 녀성으로 태어난데 대한 그리고 피할길 없는 그 운명에 순종할데 대한 무력함과 나약성을 그 무슨 억울함처럼 자존심도 없이 부끄럼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드러내놓았다…

안천주는 일기장에서 눈길을 떼어 《허, 녀석두》 하고 허거르게 웃어버렸다. 도대체 녀자에게 무슨 큰뜻이 있겠대구… 물론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열정 그리고 시간이 문제다. 도무지 녀인들의 생활을 모르거던.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일이며 가정의 화목과 알뜰한 꾸림이 곧 녀성의 희망중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것쯤이야 알고있어야 할게 아닌가. 그러나 아들은 계속하여 이렇게 썼다.

…뜻이 없으면 많은 경우 신변화된 제 주장도 없으며 이런 녀성들은 대체로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른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추종하

는건 두사람이 힘을 합쳐 사회의 한세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안천주는 그만 꼴살을 찌프리며 일기장을 쓴외보듯했다. 움쭉 일어서 방안을 걸었다. 피뻘한 녀석같으니… 언해가 남편의 말을 잘 듣는것이 왜 약점으로 된단말인가?

안천주는 자기와 아들사이에 가로놓인 큰 시내의 거리를 이 순간 다시한번 재여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지향에서만이 아니라 사고와 이해, 신조까지를 포함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거리였다. 하긴 피줄을 이어받아 생김새가 같다고 생활관까지 같을수야 없지 않겠는가.

아들은 성질부터 달랐다. 다분히 감성적이고 열광적인 다혈질이였다. 그런 풍부한 감정은 아마 제 어머니에게서 유전적으로 이어받은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안천주도 처음엔 언해에게 그런 예술적인데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언해가 갓 살림을 차리느라 아직 직장에 들어가 기전의 일이었다. 안천주는 무엇을 급히 찾으려고 언해의 장을 뒤적이다가 몇장의 그림들을 발견했다. 생활의 이모저모를 담은것인데 빨간 단풍잎새들이 명량한 해빛과 속살거리며 뛰노는 나무아래서 한가정이 오붓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있는 그림은 특히 생동했다. 구도가 짜이고 명암대조가 뚜렷한 것은 물론 매 인물의 성격과 함께 통일된 정신적연계이며 심리를 밝은 색깔로 조화롭게 잘 살려냈다.

《당신 이런 그림들은 어디서 났소?》 안천주는 상점에 갔다 돌아오는 언해에게 물었다.

《아이 그건…》 언해는 황급히 그림들을 빼앗듯이 하여 도로 장에 넣는것이였다.

《허허 왜 그러오?》

그러자 언해는 야속한 눈길로 할짓 남편을 바라보는것 이였다.

《참, 당신두 그건 제가 그린거예요.》

《그게 정말이요? !》 안천주는 매일 코맞대고 살아오면서도 언해의 재간을 전혀 모르고있은 자신이 허구됐다.

가만, 그런데 그때 언해가 훌륭한 그림을 그린것처럼 혹시 아들이 좋은 처녀를 사귀고있는것은 아닐가? 안천주는 홀연히 떠오르는 이런 막연한 생각에 기대를 걸고싶은 심정이였다. 좋은 처녀라면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안천주는 그 주관적희망에 한사코 매달리게 되는 자신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일기장에 눈길을 주었다.

…그 처녀, 평범한 실험공처녀가 문득 나의 생활속으로 아니 심장속으로 뛰어들줄은 어제까지도 몰랐다. 이달 《발명》 잡지에 나의 첫 발명이 실려온 연구소가 축하해주려 찾아왔었다. 하루종일 흥

분된 목소리로 들끓던 내 방은 퇴근시간이 되어서야 안정이 깃들었다. 나는 첫 발명자의 공지와 기쁨을 다시금 맛보고 음미하며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저녁에 또 찾아온 사람은 누굴까?

화학실험공처녀가 문앞에 서있었다.

《한가지 토론하려고 찾아왔어요.》 처녀는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토론? 무슨 문제데?》 이렇게 묻는 순간에야 나는 처녀의 손에 이달 《발명》 잡지가 쥐여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자동균압조절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용수를 쓰면 가성소다의 뜨거운 물김을 항시적으로 받는 조건에서 수명이 한달정도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아하, 그렇지! 나는 얼굴이 확 불타올랐다. 내가 그걸 생각지 못했구나! 나는 처녀를 고맙게 바라보았다. 우에 착 올려붙은 휘우듬한 속눈썹이 길어선지 유별히도 까만 눈이 또렷이 빛나는 처녀!... 이 동무 이름이 무슨 수미던지? ... 그런데 난 왜 이처럼 단순한걸... 아니 소홀히 했다. 압이 자동조절될수 있는 원리만 생각했지 얼마나 오래쓸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확실히 관심을 돌리지 않았어.

《고맙소, 수미동무!》

나는 나를 깨우쳐준 처녀가 실험공이라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축하한다는례의적인 말 한마디 없이 직선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이 처녀를 나는 지금까지 그저 우리 연구소의 많은 실험공중의 한사람이라는 정도밖에 관심을 돌리지않았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하고 처녀는 가지고온 종이 한장을 꺼내놓는것이였다. 여러가지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것이였다. 그것은 도면이였다.

《용수철 대신 이렇게 곱루모양으로 된 피스톤을 물에 얹어놓으면 ...》

처녀의 론리는 째여있었다. 아마 오늘 하루동안 이 문제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열렬히 토론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퇴근길에 나란히 섰다. 처녀는 들가방을 들었는데 책을 어찌나 뺄곡이 넣었는지 자크도 채우지 못한채로 벌여져있었다.

《대학엔 왜 안갑니까?》

나는 처녀가 그냥 실험공으로 있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녀요. 지금 공장대학졸업반이에요.》

《아 그렇소?!》

나는 처녀와 함께 걷는 시간을 연장하고싶어 될수록 천천히 걸었다. 처녀도 같은 심정인듯 걸음을 빨리하지 않았다. 말없는 이 공통된 심리가 느닷없

이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저도 올해엔 가스불에 의한 열처리개조로를 꼭 성공시켜야겠는데...》

애뜻한 녀원처럼 우리는 처녀의 말은 높지 않았으나 가수의 노래소리보다 더 열렬하고 더 뜨거웠다. 그 뜻은 또 얼마나 훌륭한것인가, 열처리개조로가 성공하면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는것을 나는 이미 말을 들어 알고있었지만 이 처녀가 창안하고있는줄은 몰랐었다. 나는 그를 돕고싶었다...

안천주는 읽기를 그만두고 고개를 들었다. 음... 긍정할만 했다. 인생은 짧지만 희망은 크다고 처녀로서 얼마나 장한 일인가. 인간이라면 특히 청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반할수 있는 처녀였다. 하지만... 그렇지만 생활은 순간의 공감과 감동의련속으로만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가정생활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이 많이 제기되는것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안해는 아들이 계속 앓아 자주 결근을 했다.

《여보 어찌면 좋을가요? 이젠 직장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미안해요.》

속상해하는 안해의 축간 얼굴을 보는 안천주의 가슴은 아팠다.

《그럼 애를 일정하게 키울 때까지 다른 직장에 나가지 .》

그리하여 안해는 미술창작사를 그만두고 시간을 많이 낼수 있는 동물관물보급원으로 들어갔던것이였다. 했지만 아들이 다 커서 다시 창작사에 들어가려했을 때는 안천주의 학위논문집필이 한창 절정에 이르러 안해의 방조가 절실히 필요되였었다.

《래년까지는 제출해야겠는데...》

안천주가 근심처럼 이렇게 말하자 남편을 돕는것을 안해로서의 본분으로, 미덕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안해는 본때있게 그림을 그려보겠다면 꿈을 가슴속에 아수히 묻어둔채 그냥 출판물보급원으로 일하고말았던것이다. 그후에는 일정하게 나이도 있는데 이제 무슨 일을 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러저러한 욕망을 다잡은 모양이였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안해들의 생활이 아닐까? 그런데 아들이 과연 그걸 알고나 있는지? 동정과 공감이 사랑의 이웃이라고 쉽게 반했지만...달과 사랑은 둥그래졌다가는 인차 기울어지는것이다. 그래서련에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다시 눈을 뜨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 옆지른 물을 보고 후회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안천주는 그만 일기장을 덮고말았다. 움쭉 일어서 뒤짐을 진채 창문가에 다가섰다. 창밖에선 눈이 펄펄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밖에 나가면 무거운 머리가 거뜨해지고 답답한 가슴도 시원히 열릴것 같

았다.

함박눈은 하늘공중을 가득차 메우며 고즈넉히 내려고있었다. 엿저녁에 우렛이 떠올랐던 휘영청 밝은 달은 보이지 않고 은초사같은 담담한 빛발만이 보유풀듯한 눈발속을 엿비스듬히 꿰치르며 은은히 흘러내리고있었다. 어디를 둘러보나 온통 하얀 눈, 빛나는 눈세계뿐이었다. 대낮같이 밝았다. 눈발히는 뽀드득소리가 밤거리의 고요를 가벼이 흔들어놓는다. 안천주는 청신한 공기를 욕심껏 들이키며 고개를 쳐들었다. 소담한 눈송이들이 이마며 볼이며 눈섭에 살쫂이 내려앉으면서 간지럽힌다. 요즘 젊은이들은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던... 그는 속절없이 갈마드는 가슴속 생각에 다시 고개를 짓수긋하고 벌써 신발을 꼭신히 잠그는 눈을 내려다보며 호젓이 걸었다.

《호호호!》

무중 청아한 웃음소리가 날아와 안천주의 가슴에 안겼다. 안천주는 인츰 머리를 들었다. 두 청춘남녀가 눈싸움을 하며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총각은 눈송이를 빗어들고 따라오고 처녀는 그냥 숨찬 웃음을 쏟아놓으며 요리조리 피해 달아난다. 감빛 마후라가 목에서 거의다 풀어 내린줄도 모른다. 쫓기던 처녀가 문득 멈춰서더니 정갈한 눈우에 손가락으로 무엇이라고 재빨리 휘갈려냈다. 그리고는 빨갈게 언 양장스런 두손으로 껌싸게 눈송이를 차돌처럼 빗어 정신없이 따라오는 총각을 향해 힘껏 뿌려던졌다. 총각은 따라오기를 멈추지 않은채 슬쩍 몸을 돌려 피하다가 그만 얼굴에 보기 좋게 얻어맞았다. 그 서슬에 흠칫 멈춰섰다. 뱀 하고 입으로 흘러드는 눈물을 내뱉으며 손으로 얼굴을 훔치었다.

《호호호.》 처녀의 청청한 웃음소리에 내리던 눈송이들이 흩날리며 하늘하늘 춤추는듯이 생각되었다. 이때 총각이 또다시 급작스레 달려들었다. 허리를 갑신갑신 꺾으며 고소히 웃어대던 처녀는 그만 기급하여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를 못가서 끝내 총각에게 붙잡히고야말았다. 처녀는 눈을 안맞으려고 고개를 숙인채 두손을 황황히 내저으면서 방어태세를 했다. 총각은 쾅쾅다진 눈으로 어디를 맞힐가 이리저리 약한 구석을 노리며 위협하다가 마후라가 풀리고 고개를 숙이여 하얀 목이 상큼히 드러난곳에 답알같은 눈송이를 슬쩍 밀어넣었다. 《어마나!》 하고 처녀는 후닥닥 뛰쳐오르며 진저리를 쳤다. 차거운 눈송이가 따스한 잔등으로 섹신히 흘러내리는지 털어버리려 쿵쿵 토끼뿔을 뻗었다.

《하하하!》

총각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경쾌히 날아올랐다. 그러자 하늘이 흔들리며 배꽃같은 눈송이들이 더 많이 떨어저내리는것 같았다.

《허허허.》

안천주도 시름을 잊고 구수히 웃어댔다. 얼마나 재미난 유희인가, 사랑스러운 젊은이들이었다. 정녕 청년들의 사랑유희가 없다면 유정한 이밤의 풍경이 파괴될것이 아닌가. 이 거리의 아름다움은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그들이 있어 더 서정에 넘친듯싶었다. 보송보송한 눈송이들이 가로수가지들과 전차선에 소복이 쌓이였다. 입으로 후- 불기만 해도 후더분한 그것들이 무덕무덕 떨어저내리며 찬연한 은가루를 그 무슨 꽃보라처럼 뿌유풀듯 날릴것 같았다.

안천주는 가슴이 후련했다. 근심은 웃음소리에 불리워 가뭇없이 날아가버린듯싶었다. 청청한 공기와 청춘들이 이 거리에 뿌려놓은 사랑의 향기때문인지 머리도 청신해졌다. 그는 정찬 눈길로 두 청춘남녀를 바라보았다. 호협한 총각은 눈우에 곱게 핀 만병초처럼 저쯤 뒤에 떨어저있는 감빛 마후라를 가지려 쾅쾅쾅 달려갔다. 갈 때처럼 즐겁게 뛰여와서는 처녀의 훌쩍한 목에 마후라를 따듯이 돌려주는데 처녀는 또 총각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살뜰히 닦아준다. 허, 사랑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더니... 안천주는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문득 부러운 생각이 가슴한구석에서 아련히 솟아올랐다. 우린 저런 좋은 때가 없었지... 그러자 허우룩한 감정이 가슴을 알알이 파고든다.

호합진 눈은 여전히 신비가 깃든듯싶은 뿌유풀듯한 하늘에서 땅우로 하염없이 내리며 안천주의 머리와 어깨에 다보록히 쌓이고있었다. 안천주는 무심중 청초한 눈우에 씌워진 글을 보았다.

《성공하는 날 대답하겠어요!》

아까 뛰여가던 처녀가 돌연 멈춰서서 휘갈려 쓴 것이었다. 총각이 무엇을 물었기에?... 그리고 무엇이 성공하는 날일까?

어디선가 유난히도 그윽한 선율이 들려와 안천주는 즐거운 생각을 아수히 버리고 고개를 들었다. 정다운 녀인의 따뜻한 미소같은 민요가락이 불밝은 다층살림집창문에서 흘러나오고있었다. 민요의 가락을 흥겨웁게 뜯어내는 가야금의 현줄소리는 섬세한 반음들과 잔잔한 여운으로 기막히게 그윽했다. 그 부드러운 선율은 함박눈마저 슬곳이 귀기울이며 명상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교묘한 밤거리에 절세의 아름다움을 불려내는듯하면서 안천주의 가슴속에도 속속들이 무뎛아드는것이였다.

《참, 좋은 밤이군》 그는 느닷없이 중얼거렸다. 정다운 사람과 다정히 속살거리며 팔을 끼고 끝없이 걷고싶은 거리였다. 이 시적인 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연연한 밤의 정서, 이 신비로운 고요함을 즐기지 않는것이 안천주는 아쉬웠다. 가슴속에 기쁨처럼 가득찬 생의 환희와 젊음을 되찾

는듯한 열정의 감정이 어느새 어떻게 싹터올랐는지
인차 깨닫지 못했으나 그 부드럽고도 달짝지근한
매혹속에 몸을 맡긴채 끝없이 취하고싶었다.

문득 뒤쪽에서 들려오는 걸걸한 목소리가 그의
어깨를 가벼이 건드렸다.

《안교수선생이 아니시오?》

돌아보니 뜻밖에도 같은 대학의 후보원사다. 어
디를 갔다오는지 옆에는 유난히 정갈해보이는 눈을
소복이 쓴 부인과 그의 아들딸이 서있었다. 후보원
사는 안천주에게 가족들을 소개인사시키고나서 어
디를 가는길인가고 물었다.

《예, 좀… 산보를 하느라고요…》

《예…하긴 이런 밤풍경에 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허허.》

《그런데 어디를 이렇게 온 가족이…?》 이번에는
안천주가 물었다.

《예, 이 사람이…》 하고 후보원사는 제 부인을
돌아보았다.

《어제 박사증을 받았지요. 그래 청류관에 가
서…허허》

《아,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

안천주는 레의적으로 웃으며 천연스레 말했으나
가슴속엔 크나큰 감동의 물결이 출렁했다. 정녕 이
녀성이, 이 부인이 박사가 됐단말인가? 아들딸들을
이렇게 의젓이 키우면서도…!

안천주는 따뜻한 인사말을 남기고 돌아서 가는
행복한 가정을 하염토록 바라보기만 했다. 한 가정
이 다뫼다뫼하게 서서 가는 오뫼한 모습은 얼마나
보기 좋은가. 하얀 비로도전처럼 함함한 눈우에 네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고있었다. 모양도 그 보
쪽도 서로 다른 발자국이였다.

안천주는 그옆에 호젓이 찍힌 자기의 발자국을
이윽도록 내려다보았다. 홀연 황혼과도 같은 한산
한 고요가 깃든 널다란 방에 애모쁜 마음으로 초연
히 앉아있을 안해가 생각났다. 왜 혼자 나왔을까?
이 유정한 길을 함께 걸었더라면 안해가 얼마나 좋
아했을것인가. 그러자 밀물처럼 차올랐던 다함없는
즐거움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썰물이 진 황량한 바
다기슭처럼 쓸쓸함과 고독감이 가슴에 남았다.

정말 그랬더라면 안해의 얼굴에 병색처럼 오래전
부터 깃들기 시작한 고독이며 애수의 그림자가 말
끔히 가서졌을것만 같았다. 안해에 대한 미안한 생
각이 가슴 한복판을 날카롭게 찌며 알알하게 솟아
올랐다. 우린 언제한번 다정히 걸은적이 없었지. 보
통날엔 물론이요, 일요일이나 명절날에조차 정답게
서본적이 없었어. 불현듯 언젠가 우리 가정은 사진
첩하나 만들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던 아들의 목소리

가 귀가를 아프게 울리며 되살아났다.

내가 너무 안해와 생활에 무관심한것이 아닐가?
생각이 여기에 닿자 안천주는 난생처음으로 자기의
생활관을 의심했다. 앞서가는 저 후보원사는 안해
와 가정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그런데 난 한가정
속에 살면서도 안해와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
엇을 희망하는가 하는것을 리해하려고조차 하지 않
았지. 어느해인가 아들이 미술박물관에 구경을 가
자고 조르던 일이 생각났다.

《아버진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다.》 별로 바
쁜일이 없었지만 안천주는 타성적으로 돌아앉았다.
그러자 아들은 안천주가 쓴 교과서초고를 정서하고
있는 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그럼 어머니와 둘이서 가시지요. 자꾸 봐야 안
목도 넓어 지고…》

했지만 안해는 무뚝히 쌓여있는 원고를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내그었다.

《어머닌 정말…언제까지 가정의 이 무거운 짐만
지고…》 아들은 피곳 안천주를 돌아보고나서 격
발된 감정으로 주저없이 말했다. 《왜 사회의 뭍은
생각지 않으시나요?》

《그건 무슨 소리냐?》 안천주가 저음 놀라며 물
었다. 《네 어머니도 직장에 나가서 사회적인 뭍을
하고있지 않느냐?》

《하지만 어머니의 재능과 희망에 맞지 않는 일
이 아니나요.》

《허허, 우리 영호가 대단한 리론가가 됐는
걸…》

아, 난 왜 그때 아들의 말을 철이 없고 달아오르
기 잘하는 아이의 뱀푼이로만 생각하면서 아무런
뜻도 없는것으로 밀어버렸던가, 평범한 생활속에서
0은 보통 없다는것을 뜻한다. 하지만 진정 0이 아
무런 내용도 없는것인가? 온도계에서 0도는 0도이
상의 온도보다는 낮고 0도이하의 온도보다는 높다
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날 안해가 짓눌린 한숨
을 내쉴 때 나는 그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할것이
아니였는가. 예로부터 너자가 한숨을 쉬어도 땅이
석자나 패인다고 했다. 《가장 심각한 진리는 가장
평범한 생활속에 있다.》 누구의 말이던지?... 안천
주는 불현듯 방금전에도 아들의 일기를 끝까지 읽
지 않고 나온것에 생각이 미쳐 서둘러 집으로 발길
을 돌렸다.

… 매 사람에게에는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러
나 남편의 직위와 명예 그리고 성가족에 자기의 인
격도 뭍까지도 있는듯이 생각하면서 사회앞에 지닌
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는 녀성
들,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자기의 희망이며 신념까

지 다 용해되고 말아버리고마는 그런 녀성들이 아직
 지 시대 수치의 남아있으니...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도 녀자에게 무조건 복종할것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고분고분하는 녀성을 《팬찮은 안해》
 라고 생각하면서 칭찬까지 하는 일부 사람들의 뿌
 리깊은 관념이다. 그런 사람들의 결혼은 결합일뿐
 이지 사랑의 승화이고 열매는 아니다. 호상성이 없
 는 일방의 내조는 본질적으로 예측이며 불평등이다.
 ...

안천주는 눈길을 들었다. 허, 이건 또 무슨 동판
 지같은 소리냐? 아니, 아까 읽던곳이 여기가 아니
 지...

그는 날자들을 더듬어보며 일기장을 반대로 번져
 나갔다. 그래, 여기쯤 된다.

...며칠째 감기와 싸우며 수미동무의 가열로개조
 를 돕기 위해 문헌들을 연구하느라 밤을 새웠다.그
 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오늘밤 시험해보기로 약속했
 던것이다. 재료를 가지러 남포에 간 수미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는데 진득진득한 진눈까비가 푸듯푸
 듯 날리기 시작하더니 저녁무렵에는 정이월에 려치
 도 없이 보슬비로 변하여 부슬부슬 뿌려지지 않는
 가.

나는 수미의 우산까지 들고 집을 나섰다. 전동차
 를 탄 다음 승강구에서 내리니 지하철입구에 우산
 을 들썩 든 사람들이 새까맣게 서있었다. 할머니도
 있었고 소년단원들도 많았다. 녀인들의 얼굴도 보
 이지만 점잖게 뒤전에 서있는 남자들이 더먼저 눈
 에 띄운다. 자기들의 아버지며 어머니 그리고 남편
 과 안해가 비를 맞을가봐 마중 나와 기다리는 사람
 들이었다. 뜨겁게 아끼는 이 마음들이 바로 준엄한
 날엔 우산으로서가 아니라 한몸으로 제 한가정뿐아
 니라 우리모두의 조국을 철벽같이 보위할것이다.

수미는 재료배낭을 메고 책가방을 든채 찬비를
 함초롬히 맞아서왔다. 그런데도 나부터 걱정한다.

《왜 그렇게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입술까지 부
 르렀구만요.》

《허허 그저 바람때문에...》 나는 재료배낭을 받
 아 메고서 아무렇지도 않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 어서 갑시다.》하고 갑작스레 걸음을 땀다.

순간 눈앞이 아득하여 이마에 손을 가져다대며
 무춤 섰다. 무지개빛 어둠이 꿰뚫어볼수 없게 즐기
 즐기 눈앞으로 겹쳐들면서 나를 엮매듯이 휩싸안았
 다. 물속에 노근히 가라앉듯 정신이 혼곤해졌다.

《아이 왜 그러세요?》 꿈결속에서처럼 의식의 한
 귀퉁이를 들추고 아슴푸레 들려오는 수미의 목소리
 에 밀리우듯 나를 감쌌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눈
 앞이 차차로 밝아졌다. 비로소 나는 며칠동안 입맛

을 잃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다가 갑자기 움
 직이여 빈혈이 왔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아, 아무렇지도 않소.》

나는 강인히 앞서 걸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대
 신 바람이 불었다. 길은 샅시에 얼음판이 되었다.
 기름을 바른듯 가로등불빛에 번들거렸다. 맞받아
 불어치는 고추바람에 숨이 턱턱 막혔다. 뺨이 알알
 했다. 눈물이 솟구쳐올라 습벽이면 아래 눈썹이
 찻찻히 맞붙는다. 수미는 벌써 입술이 새파랗게 얼
 었다. 축축히 젖었던 그의 외투는 소가죽처럼 뻗뻗
 하게 얼어서 보기만해도 등어리에 찬서리가 돋았다.
 나는 얼른 외투를 벗어 수미에게 덧입혀주었다. 종
 아리까지 폭 가리우고 손도 안보이게 후려했다.

《허허, 그러고보니 꼭 희극배우같구만.》 쾌활
 히 룡담을 뿌려대던 나는 문득 맑은 이슬이 흥건히
 고인 수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은구슬같은 눈물속
 에 네온등불빛이 청보석처럼 령롱히 빛나며 떨고있
 었다. 그 눈물너머에서 무엇인가 열렬히 타오르는
 가 하면 녹아드는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애절히 하
 소연하는듯싶기도 했다.

《동문 정말...》 동실하고 보드러운 아래턱이 바
 르르 떨리고 코구멍이 알릴듯말듯 벌름거리는듯싶
 더니 수정같은 한줄기 눈물이 빨갛게 언 뺨으로 소
 리없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인간은 한잔술에도 눈
 물난다고 했다. 그 다함없는 감동의 소리없는 분출
 이 그대로 뺨에 얼어붙을것 같아 나는 얼른 씻어주
 고싶었지만 못본듯 돌아서고 말았다. 아니다. 뜨거
 운 눈물은 얼지 않는다 !

《자, 빨리 가가요.》 나는 피로에 호졸곤해진 그
 에게서 가방까지 빼앗듯이하여 들었다. 무거웠다.
 하루동안 갔다오면서도 책가방은 언제나 손에서 떨
 구지 않는다. 그 나이포래의 처녀들은 땀시나는 작
 은 가방을 들고 또는 메고 핸들핸들 뿔내듯이 다니
 는데...언제나 배불러 모양도 곱지 못한 이 갈색가
 방을 사시절 들고다니지, 향기론 분팩이 아니라 책
 이 가득찬 가방이다. 하루의 시간표만이 아니라 미
 래에로 출달음치는 그 아름다운 꿈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겁고 그래서 걸을 때 한쪽 어깨가
 기울어져 몸의 균형이 잡혀지지 않지만 힘든줄도
 모르고서 희망에 넘쳐 밤낮으로 공부하며 탐구하는
 처녀다. 이런 열화와 같은 처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면 그리고 쟁취하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
 이겠는가...물론 여기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구체적
 인 설계와 타산이 없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 삶의
 본성적요구인 사랑은 그 어떤 론리나 타산보다 훨
 씩 강하다. 무엇이 계산된 사랑이라면, 한쪽의 리기
 적인 목적때문이라면 그것은 벌써 참사랑이기를 그

만둔것이다. 서로가 의지되어 서로의 뜻을 꽃피워주는 사랑, 나는 단 하루를 살다죽는대도 이런 사랑 속에 행복하고싶다 ! ...

허, 정말... 안천주는 숨이 차올라 안경을 벗어 책상우에 놓았다. 사랑에 미쳤다하기에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송고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아까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못마땅히 생각하게 하였는가?

아들이 나처럼 살기를 바랐으나 나의 요구를 뿌리치고 불같이 사랑한것이 불만의 원인이었던말인가? 자신의 생활관이 아들의 그것에 비해 비할바없이 왜소하다는것을 안천주는 서글피 깨달았다. 이제는 남갈지 않는 처녀를 다시 보고싶어 그는 손수건으로 안경알을 깐깐스레 닦고는 눈으로 가져갔다. 음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게 톡톡하겄군. 이악하겠어...안천주는 둘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긍정해 주고싶어 책상우에 눈길을 내리웠다.

...아버지의 출장기일도 끝나가고있다.

일기는 어느덧 안천주가 처음 본곳에 이르렀다....돌아오시면 과연 어떤 립장을 취하시겠는지? 어머니는 긍정하셨다.

몰라보게 달라지신 나의 어머니 ! ... 처녀때 사도공으로 함께 일하던 어머니 동무 한분이 기술혁신자대회에 참가하려 평양에 올라왔다가 우리 집을 다녀간후부터 더욱 변하신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우리들의 사랑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 많은 가슴속 생각을 퍼내듯 목이 메여 소원처럼 간절히 말했다.

《사랑해라! 사랑으로 그 처녀의 장한 뜻을 꽃피워라!》

이것이 희망을 이루지 못한 어머니의 애바른 마음이요, 눈물에 젖은 평생의 바람이라고 생각되자 나는 목이 짝 메였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눈물보다 뜨거운것은 없다. 어머니의 소원보다 더 간절한것도 없다. 아, 인간에게 물처럼 아니 공기처럼 매 순간마다 필요한 사랑, 그 사랑에 한평생 굶주려온 나의 어머니 ! ...

아아, 하고 안천주는 흐느껴 공기를 들이키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정말로 안해는 사랑없이 뜻도 없이 30여년간을 호젓이 살아오지 않았는가, 아니 뜻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안해의 장에 있던 그림들, 그 훌륭한것들이 왜 장속에만 갇혀있어야 했는가. 얼마나 잘 그렸던가, 그러나 그 희망이며 그 재간이 이 남편의 성공을 위한 일방적인 뒤바라지속에 파묻힌것이다.

안천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들의 일기를 계속해 읽었다.

...여기에 어머니의 책임은 없는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만도 우리 가정은 돌이켜볼 여지가 많다....나는 나의 모범으로 부모들에게 가정에 대한 관점을 우리 시대의 높이에서 검토할 기회를 주고 싶다.

너성들이 시집을 가는것은 남편의 뒤받침 하나때문도 아니며 자식을 잘 키우는 한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사회의 세포를 풍부히 하고 튼튼히 다지며 사랑의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하하는데 기본이 있는것이다.

요컨대 가정이 창조적삶의 터전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것이며 부부는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과 의무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되어야 할 리유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것이다. 평등은 사랑의 가장 견고한 기초이다. 과연 지금 어느 누가 《...안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의무를 진다.》는 나뽤레옹법전과 남편은 안해를 지배해야 한다는 3강5륜의 봉건유교사상이 오래전에 벌써 휴지조각이 되어 시대밖으로 내버려졌다는것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아직도...아직까지도...

안천주는 끝내 더 읽지 못하고 안경을 벗었다. 그 래, 아직까지도...그리하여 안해는 한평생 나 개인의 사도공에 불과했지...안해가 써준 그 수많은 원고들의 첫장에 그 녀자의 이름이 나란히 오르지못하였다. 과연 훌륭한 남편뒤에 훌륭한 안해가 있다는 말이 일방의 희생적뒤받침만을 의미하는것일까?

안해란 무엇이고 가정이란 무엇인가?... 안천주는 뼈저린 자책에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그런데 그릇된 우리의 삶은 이미 유희를 위하여 그어졌던 둥그런 원안에서부터 시작된것이 아닐까?누구의 제의에 의하여 그어졌던간에 그 금을 기빠하며 리용한 내가 아닌가.

불현듯 눈싸움을 하던 청년들과 눈우에 제 고유의 발자국들을 나란히 그리고 뚜렷이 찍어나간 후 보원사의 가정이 정서적의미만이 아닌 삶의 본뜻을 가지고 새롭게 눈앞에 떠올랐다.

사람은 자기의 개성화된 장점들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을 꽃피우려는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의 생명적지향이요,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불가침이 아닐까? 새싹과도 같은 인간고유의 개성은 태어나 8개월이면 벌써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난 그 독특하고 귀중한 가지들을 전정하여 내모양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는가. 제집안식구들이라고 모두 공통분모로 만들려 한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인가, 아, 이것은 최악이다 !

안천주는 그만 얼굴을 싸쥐었다. 왜 여태껏 여기

에 주의를 돌리지 못했는가. 진정 둘이 합쳐 하나를 성공시켰다고 둘다 꽃피우지 못한 정당한 이유로 될수 있는가? 아니 때 사람에게는 자기의 몫이 있 으되 그것은 가정의 몫과 함께 사회의 몫이다. 사회 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인 이 몫은 시대와 조국 앞에 엄숙히 지니게 되는 누구도 대신할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아니되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도리일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가 누구든 삶의 모체인 당과 수령 앞에 제구실을 못한 불효자로 되는것이며 슬프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의의를 상실하고 마는것이다. 함박눈이 저 창가에 불었다가 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의미조차 못가지고...

그렇다. 명실공히 부부는 어느 한쪽이 자신을 잃고 또는 희생시켜 하나될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도와 더 커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건설된 가정, 창조의 제물을 바치려 열렬한 사랑으로 서로 돕

고 이끌며 피타게 노력하고있는 가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튼튼히 하는 충실한 세포로 될수있는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사는데 우리 시대 삶의 뜻이 있고 가정의 사명이 있는것이 아닐가?

《일기장을 봤어요?》

어느새 방에 들어선 안해가 조용히 다가섰다.

《봤소.》 안천주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아버렸다. 안해는 더 묻지 않았다. 말은 입으로만 하는것이 아니다.

복도쪽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두사람은 동시에 귀를 기울이었다. 점점 가까와지는, 커지는 귀에 정익은 발자국소리...

《영호예요.》 안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나도 알고있소.》

정녕 안천주는 가슴속에 쿵쿵 울려오는 그 힘찬 발자국소리를 듣고있었다.

구 내 길

김희선

날마다 걷는 길이여도
언제나 새로와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 설레여
발걸음에 날개가 돋히는 길

고향집 트랙인양
정들은 나의 공장 구내길
이 길을 걸으면
마음도 생각도 하나되어
위훈의 한길로 가게 되더라

오고가는 인사말에
주고받는 혁신의 약속이 있고
속보판에 소개되는 작업반의 자랑이
새로운 위훈을 속삭여주는 길이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공장의 구내길에
높이 내건 구호가

마음에 열정을 더해주고
누구나 말없이 바라보아도
새날의 맹세처럼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넣는 길

아, 이 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걸으신 향도의 자욱
이 있어
날마다 걸어도 마음속에
신념과 의리가 다져지는 길
새로운 위훈업인 나설수 없는 길

아 보폭도 큰걸음으로
활기에 넘친 모습들이
서둘러 들어서는 구내길이어
날마다 새롭게 한생을 걸으며
빛나는 삶의 한길을 갈
나의 공장 구내길이어

투사들의 랑만

김준학

소리내어 읊자 !

아름드리 강대나무에 새겨진 저 글발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늘중천에 뜬 밝은 달아-

흥겨운 민요의 선율인듯

얼씨구 절씨구 들썩거려지는 내 마음이어

조용하던 숲은 선물로 가득찬듯

그날처럼 투사들의 부름을 받은듯 달도 달리여

못별들 거느리고 달려와 하늘에 춤판을 펼치라

나비런듯 아기별들 서로서로 어울려 춤을 춘다

명주같은 길다란 저 구름들은

훨훨 옷깃을 날리는 선녀들인가

그들의 은은한 옥피리소리에 맞추어

달이어 너도 춤을 추자

아름드리 계수나무들 푸른 잎새 반짝이며 설레인다

그 계수나무가지들에 그네줄 매고 썩썩 날으려나

칠칠암야를 해빛같은 웃음으로 적시던 너투사들

처럼

백두태성 안아보자 축복해주자

천상에 꽃 뿌리며 하늘을 활개치던 그들처럼

아, 하늘이 높을시고 삼천리가 멀시고

아, 랑만이어

첩첩시련과 죽음의 고비를 넘어

승리의 언덕에서 불타는 해 마중하던 투사들의

랑만이어

배신자들의 절망과 비관에

너는 언제나 삶의 희열로 대답했다

그 활력으로 대답했다

읽어도 읽어도

그냥 읽고싶구나

-달속의 계수나무를

은도끼로 찍고 금도끼로 다듬어

천상에 왕궁을 짓고

항일대장 **김일성**

너장수 김정숙

백두광명성을 천만년

모시자-

아, 걱정속에 솟구쳐오르는 랑만이어 !

너는 흐린 봄날에 발갈고 씨뿌린이가

꿈에 본 가을의 풍성함,

너는 애국의 일념속에 간직된 승리와 영생의 화신

너는 추억의 하늘가에 흩어진 노을의 잔광도 아

니다

꿈속의 웃음처럼 소리없는 웃음도 아니다

너는 나의 온몸을 흠뻑 적서주며 쏟아져내리는

천상의 폭포

한점 불꽃 아닌 하늘의 별, 밝은 태양 그리고 봄

빛!

아름드리 강대나무에

새겨진 저 글발

내 찌렁찌렁 골이 떠갈듯 읊고싶구나

투사들의 그 랑만 안고 조국은 승리의 곧바른 길

달려왔다

문노니, 이 시각 피고석에 뿔어났은자 그 누구나

비관에 우는 배신자들의 추악한 무리우에

구호나무는 정의의 심판관마냥 우뚝 서있구나

투사들의 피어린 념원이고 예언이던 저 글발은

지워지지 않는 력사의 신성한 판결문!

아, 력사는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의 성스러움을 더

럽히지 않았구나

투사들의 랑만에 불멸의 영광을 안겨주었구나!

아, 어머님

림성희

사연도 많은
소백수 이깎술에 내리는 눈송이
그리움 넘쳐나는 이 가슴에도
송이송이 내리는 그날의 눈송이

눈송이가 추억을 불러
그 무슨 이야기 해줄듯싶어
조용히 이깎술도 거닐어보고
한치한치 소중한 이 부석땅에
항일전의 어머님자취가 새겨져있어
걸음걸음 뜨거운 생각도 없으며

손수 쓰신 구호목앞에 서면
그립던 어머님모습 뵈울것만 같아
허리치는 눈보라길 헤쳐온 마음속에
더더욱 사무쳐오는 그리움

어디선가 사향가의 노래 귀전에 들려오니

아, 어머님 밝은 웃음 담으시고
여기 소백수골에 오신것만 같구나
답사대오의 어느 중대에 계시는것만 같구나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이 마음
저 백두산정에 올라 터치면
어머님 우리곁에 오실가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이 마음
백두의 눈송이처럼 깨끗하면
어머님 우리곁에 오실가

어머님 이끌어주신 충성의 길우에
어머님 바라시는 효성의 언덕우에
내 높이 솟아 견고걸으면
그리운 그 영상 뵈울수 있으리라
반기여 두팔 벌려 안아주시리라
아 그리운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독 자 증

주철웅

푸른꿈만 돌아나
열정으로 뛴뛰는 단 가슴우에
언제나 품고사는 인민대학습당 독자증
작아도 작을수 없는 이 증표

너를 손에 들고
땀나게 뛰어온 탐구의 길
그 길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조국이 마음쓰는 그곳
그 한곳에만 사색을 엮고
열정과 지혜와 슬기를 바쳐가는 나날에
작을수 없는 힘을 보태주었고

탐구의 눈빛이 창창 절벽에 부딪쳐
산산이 흩어질 때도
성공의 봉우리 안개속에 묻히기만 할 때도
너 앞세우고 그 몇천번 달려왔던가
이 푸른집 아래로...

한줄기 희망우에 살아나는 성공의 꽃을 불안고
조국의 대지를 어린애마냥 덩굴며
한없는 마음 들떠올 땐

너도 그만 나와 함께
푸른 잔디우에 얼굴 묻군하였지

먼먼 나의 앞날
그 마지막지점까지도 너와 함께 달려갈 나
탐구로 백발을 엮는대도
너만은 손에서 못놓으려니

아, 조국이 나에게 준
인류문명의 보물고를 터치는 열쇠여
소중해라 가슴속에
너 튼튼히 자리잡고있음이 ...

한생토록 가야 할 탐구의 먼길
땀과 열정을 뿌리며
반드시 이루어놓을 성공의 자욱마다에
사양해도 조국은 놓아주리라 발명증 기사증 박사
증...

허나 높고도 귀한 그 증서보다
작은 이 독자증을 가슴에 품은 자랑
나는 이것부터 먼저 쓰리라
먼 후날 탐구의 자서전에 펜을 댄다면...

두 녀인

남상혁 (총련)
그 림 김원래

(왜 이리 늦을까?)

전표봉테기를 번져가며 전락을 누르던 이정순은 1시를 가리키는 벽시계를 보며 혼자 뇌였다. 정순 내외는 자그마한 다방을 차리고있었는데 오늘은 남편이 보게 되어있었던 오후 3시이후 저녁 10시까지도 그가 말아하게 되었다. 그래 다방 《리무진》의 문을 닫고 그 건물 3층에 있는 세방에 돌아오니 11시가 가까웠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이불깃을 여며주고 설거지를 한다. 빨래를 한다, 오늘의 매상고를 계산한다 하고 돌아치다보니 이 시간이 된 것이다.

물론 그의 남편 준호가 오늘 나갈 예정은 미리알고있었다. 며칠전에 길건너편의 시립병원 의사이고 《리무진》의 단골손님인 나가시마가 《교진항신전》의 입장권을 가져왔다. 자기는 갑자기 숙직을 하게 되었으니 《자이안즈》의 열렬한 팬인 준호더러 꼭 갔다오라고 권하였다.

남편은 정순의 눈치를 살피면서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입장권이고 단골손님이 일부러 갔다주는건데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되지도 않은 이유까지 붙여가며 사정을 했다.

정순은 요즘 손들도 켜 줄었고 하루쫄이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의 청을 기분 좋게 받아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따라 손들이 많아 눈코뜰새도 없었다.

방안은 고요하였다. 이따금 앞길로 자동차가 질주하고 사라지면 다시 시계바늘의 째각째각하는 소리만이 류달리 크게 울렸다.

온몸에 피로감이 덮쳤다. 정순이 자꾸만 내리감겨지는 눈꺼풀을 가까스로 뜨며 전표를 번지는데 집앞에서 자동차 멎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정순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계를 보니 1시반 막차시간을 넘겼으니 팔자 좋게 택시를 잡아타고 오는 모양이었다.

슬며시 부아가 났다. 그냥 돌아왔으면 12시안으로 돌아올수 있었을건데 자기한테 점방일을 떠맡겨놓고 저 혼자 재미를 보고 이 야밤중에 돌아온 남편에 대하여 정순은 아니꼬운 생각이 들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났다. 발걸음소리가 문앞

에서 멎었다. 이내 손잡이를 잡고 미는 소리가 났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쇠가 채워져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손기척소리가 났다. 좀 있다가 더 크게 문을 두드렸다.

그제서야 정순은 몸을 일으키고 현관으로 다가가 쇠를 풀었다.

남편이 문을 밀어젖히며 들어왔다. 신장에 기대서서 흔들흔들하며 구두를 벗던 남편은 정순을 쳐여다보며 씩웃었다.

《아이들은 자요?》

《지금 몇시라고, 벌써 자는지 오래요.》

남편은 밥상머리에 가서 앉았다. 크게 숨을 내뿜고는 정순이더러 찬물을 달라고 하였다. 그 서술에 술내가 확 끼쳐왔다.

정순의 미간이 좀 찌프러졌다. 그러나 정순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뿌에 얼음물을 부어 내주었다. 빨리 채우는게 상책이라고 고쳐생각하였던 것이다.

남편은 얼음을 시원스레 마시고는 밥상우에 있는 전표를 힐끔 보았다.

《음, 오늘은 손님들이 많았던 모양이군. 역시 나가 나가는게 장사가 잘되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서 잡시다.》

정순은 남편의 실없는 소리에 울컥 치미는게 있었지만 참았다. 이이상 말을 주거나받거나하다가는 필경 어성이 높아질것이다. 그러면 다음날 이웃집들의 의미있는 《인사》를 받게 될것인데 그게 싫었던 것이다. 아니 그보다 지금 정순은 몸이 노그라지는듯하여 빨리 자고싶었다.

그러는데 남편은 오늘 시합은 《자이안즈》의 극적인 역전으로 승리했다느니 이 기세로 가면 아마 올해 우승은 틀림없다느니 하면서 정순에게 말을 걸어왔다.

정순은 아무 흥미도 없는 야구이야기를 들으라고 치근치근 달라붙는 남편에게 역증이 났다.

《자이안즈가 죽든살든 우리 집에 무슨 상관있어요.

이 불경기에 장사걱정은 하지 않고...》

《허허, 또 그 소리요. 나도 다 생각하고있소.》

《다방을 계속하든지 술집을 하든지, 아니면 장

사를 치우고 노가다를 하든지 어떻게 궁리를 해야 할게 아녜니까.

아이들도 커가는데...》

《여보, 말을 좀 꼭게 하요. 남편이 어찌다 한 번 나갔다가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말을 맞추어 주지는 못할망정 무슨 잔소리요.》

이번에는 준호의 어성이 높아졌다. 헤벌쭙하게 웃으며 말하던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정순이 한마디만 하면 싸움이 불을 순간이었다. 밑에서 《뿌-빠-》 하는 구급차 지나가는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순간 남편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 숙직을 하는 나가시마생각이 나는 것 같았다.

정순은 그 기미를 놓치지 않고 열른 부드러운 타올수건을 내놓으며 좀 누그러진 소리를 했다.

《목욕에 들어서 오늘 야구시합생각이나 하십시오.》

그리고는 먼저 자겠다면서 그자리를 피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나가시마는 오후 2시를 넘어서 《리무진》에 왔다. 양복은 차려입었으나 어딘지 눈에 피곤이 실려있다.

《어서 오세요.》

리정순이 카운터안에서 반겨맞았다. 간밤에 있는 남편과의 말다툼이 생각나서 체풀에 썩긋 웃음이 났다.

《어제는 나가시마선생덕분에 애아버지가 좋은 구경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순은 쌍가풀진 눈을 내리감고 번지르르 윤이 나는 머리를 기웃하며 인사를 했다. 한창 봄비는 점심때를 넘겨 점내에는 손들도 많지 않았고 매일같이 오는 단골손님이라서 정순은 군살이 묻은 허리까지 굽혀서 부러 크게 인사를 했다.

카운타에 앉은 나가시마는 그러는 정순이를 뜻있는 눈길로 보았다. 허물없는 사이라 언제나와 다른 정순의 목소리에서 무엇을 감촉했는지 《마마, 간밤에는 어느쪽이 승리했는지요?》 하며 놀려대기부터 한다.

《상대가 철회하는바람에 승부가 안났지요.》

《그럼 무승부가 된 셈이구만. 〈자이안즈〉가 시원하게 승리했으니 부부싸움은 무승부라도 된다고 마스타가 양보한게 아녜니까?》

《호호호...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둘이 제소리를 하던 것도 모르고 나가시마곁에 앉아서 커피를 청했다. 카운터안에 들기전에 한잔 먹는게 습관이 되어있었다.

정순이와 나가시마가 키득거리는 걸 보고서야 준

호는 자기가 말밥에 올랐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제는 나가시마선생때문에 큰 욕을 봤어요.》

《극적인 시합을 본 행운에 비하면 그런 욕쯤이야 감수해야지요.》

《예예, 나가시마선생,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부러 청높은 소리를 하며 고개를 꾸벅해 보였다. 정순이도 해맑은 얼굴로 밝게 웃었다.

《그런데 선생님, 어제 숙직은 바꿨겠지요?》

《음, 교통사고가 셋, 자살미수가 하나.》

《예?! 자살미수가요?》

《그것도 남조선사람인 것 같아요.》

《예?!》

정순이가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그 서슬에 안구석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이쪽을 보고 때마침 스무 살안팎의 남녀청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준호가 민첩하게 자리를 떠서 고뿌에 물을 따르러 가져왔다.

《어서 오십시오. 뭘 하시겠습니까?》

준호가 주문을 받고있는 사이에 나가시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마마는 모를 겁니다. 본인은 아직 혼수상태에 있고 같이 따라온 아빠트주민이 그랬으니 아직 확 실치는 않아요.》

다감한 정순이는 웬일인지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나가시마의 말에서 순간적으로 이곳 분회동포들 가운데서 그런 불행이 있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정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가시마는 《자, 돌아가서 한잔 하고 꼭 잘가, 아 피곤해.》 하더니 커피값을 두고 나가버렸다.

정순은 주문을 받아온 준호의 재촉을 받고서야 쫓던 생각에서 깨어나 사이폰을 곤로우에 얹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가시마의 말이 내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던 정순은 조용할 때를 버르었다. 그러나 그는 점심때 많이 왔는데 그 바쁜통에 이야기하기는 처음부터 틀렸고 이따금 당번이 아닌 날은 준호와 이야기하러 오후 3시이후에야 오니 좀처럼 기회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목욕하고 나온 준호가 그 말을 꺼내었다. 장미빛으로 상기한 중기의 준호는 내외바람으로 맥주를 시원스레 들이키며 이야기하였다.

《요전번에 나가시마선생이 하던 말 있지. 역시 남조선사람이었대.》

《역시 ...》

《이름은 즈까모도 다미꼬라 하는데 그가 살던 아파트엔 1년전에 이사왔대.》

《남조선사람이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음, 어제 납편되는 사람이 입원수속을 하러 왔대.》

《입원수속? 그럼 1주일 넘을 때까지 병원엔 오지 않았다는거예요?》

정순의 가슴속에 점점 울화가 치밀어올랐다. 이제까지 동포일수 있는 그 녀인의 가엾은 신세를 생각던 그인지라 녀인을 자살미수에로 내몬자의 처사에 대하여 돌발적으로 울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준호의 말에 의하면 녀인의 납편은 반년전부터 다른 일본녀자와 동서생활을 하면서 이따금 본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녀인이 자살미수를 한 그날도 납편은 집에 없었고 옆집의 주인이 밤늦게 돌아오는데 녀인의 집 현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것을 보고 아파트주인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결쇠로 문을 열어 들어가보니 목욕탕에 물을 채워놓고 면도칼로 손목을 끊은 녀인이 의식을 잃고있었다. 녀인은 수도꼭지를 풀어 혈관을 끊은 손목을 물에 잠그어놓고있었다 한다.

주민들이 사방을 수소문하여 즈까모도가 다니는 운송회사에 기별을 하고 본인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좀처럼 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벌써 갈라진 남조선녀자인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돌레사람들이 정식으로 리혼도 성립 안되었는데 그러면 법적제재를 받게 될것이라고 협박 비슷하게 해서야 입원수속으로 왔는데 병원까지 오면서도 녀인병문안도 않고 그냥 돌아갔다 한다.

《저런 미친놈같으니.》

정순의 눈에서 불이 일었다. 한때 가무단의 무용수로도 있었고 녀성동맹분회사업도 열심히 보는 팔팔하면서도 인정미가 있는 정순이었으나 즈까모도의 처사에 대해서는 용서없이 막말을 퍼부었다.

《여보, 좀 진정하오. 눈앞에 없는놈 욕을 해봐야 필요없어. 그보다 나가시마선생은 환자걱정을 더해. 어제도 간호부가 없는 틈을 타서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했대.》

《저런 !》

《수혈을 하려니 바늘을 빼버리고 얼마 안되는 병원음식마저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해.》

정순은 금시 코마루가 찡해지며 눈물이 폭 솟았다. 그렇게도 이 세상을 절망한 그 녀인의 심중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여보, 래일이라도 한번 가보오.》

다음날 점심때 정순은 큰 종이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찾았다. 그속에는 조선반찬이 들어있었다. 간밤에 납편이 입원생활에서 제일 고통을 겪는것은

음식일거라고 하던 말을 듣고 오늘아침 령장고를 뒤져 김치랑 고추장이랑 자그마한 그릇에 담았다. 그레보니 무언지 미흡한것 같아 미역국까지 뜨끈뜨끈하게 끓여서 가져왔던 것이다.

아이들이 앓을 때 종종 다니는 병원이고 있어지면 코달는데 있어 정순은 앞치마를 두른채 현관을 들어섰다. 매캐한 약내가 코를 찔렀다.

외래환자들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간호실이 있다. 정순은 거기서 나가시마선생을 찾았다. 납편이 이르기를 올 때는 먼저 나를 찾아달라고 나가시마선생이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붕지에 약을 썩싸게 넣던 젊은 간호부가 고개를 돌리더니 정순을 보고 《아타 마마상》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도 《리무진》의 단골손님이였다.

간호부의 안내로 넓은 간호실안에 달린 자그마한 방에서 잠시 기다렸다.

점심때라 병원안은 한가해보였고 작은 방에 혼자 앉아있으니 점점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그제사 만지작거리던 앞치마를 벗어 차곡차곡 개였다.

《아, 마마상.》

위생복을 차려입은 키 큰 나가시마가 의젓하게 들어왔다. 50을 갓 넘은 그는 두루미다리를 하고 책상머리에 앉았다.

《저...》

정순은 말이 섣뜻 나가지 않았다. 영문도 없이 긴장이 되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평상시 마마상답지 않게.》

나가시마는 코밑수염을 벌리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마마의 힘을 빌리려던 참인데 잘와주었다고 누그러지며 말했다.

그제서야 정순은 자기 점방에서 납편과 야구이악기로 실없는 싱갱이를 하고 구석에 앉아서 만화책을 열심히 뜯어보던 나가시마생각이 나서 제가 왜 이런고 하며 어줍게 웃었다.

《나가시마선생, 오늘은 저...》

《예, 알겠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환자문제로 오셨겠지요?》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도 난처해하고있어요. 그레 마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마스타에게 이야기를 했드렸는데...》

담배를 한대 붙여문 나가시마는 두어모금 빨고 입을 열었다.

《요즘은 덜해졌는데 집중간호실에 있을 때는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했지요. 어쨌든 죽겠다는게 아님니까. 출혈이 심했으니 수혈을 해야 했었고 체력회

복을 위해 영양주사도 놓아야 했었는데 마음대로 되어야지요.

그건 두고서라도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게 큰 골치거리지요. 간단한 일상용어는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언제 왔고 무슨 일을 하고있었는가, 그리고 어쩌서 자살하려 했는가 하는따위는 말이 안됩니다.

아니, 우리가 형사노릇을 하자는건 아니지요.그래도 그런걸 알아야 치료도 원만히 할수 있을게 아닙니까.》

나가시마는 여기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엇그제 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환자는 매독에 감염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예? ! ... 저런》

《초기단계이니 그렇게 놀랄 정도는 아닙니다.》

《...》

《그래 병원에서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될수도 있으니 격리하여 치료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럼 댄 병원에 이동하는겁니까?》

《격리라 해도 이 병동의 맨 안쪽 특별실을 쓰게 된건데... 아직도 정신상태가 불안정한데다 넓은방에 혼자 있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 마마는 같은 나라 사람이고 말도 통하니 말친구로 되어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건데 ...》

나가시마는 사뭇 난처하다는듯이 정순을 보았다. 그의 눈에도 진정이 어려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환자는 특별실에 이동했는가요?》

정순은 큰 종이바구니를 끄당겨 먼저 일어서려했다. 긴장되던 마음도 저지기 가라앉았고 무엇보다도 불우한 그 녀인을 빨리 만나보고싶었다.

《그럼 가봅시다.》

나가시마가 먼저 일어섰다.

특별실은 복도 맨 안쪽에 있었다.

복도 양편에는 입원실이 있었다. 키가 큰 의사와 허드레옷차림인 중년부인이 함께 걷는 모습을 입원환자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기웃거리고있었다.

《여깁니다.》

나가시마가 우뚝 솟아선 특별실앞에는 세면대야가 삼발이우에 얹혀있었다. 나가시마는 익숙된 동작으로 손을 씻더니 비치되어있는 손수건으로 닦았다.

소독약냄새가 확 풍겼다. 정순이도 말없이 손을 씻었다. 소독약에 손을 잠그니 느닷없이 가슴이 쿵쿵거렸다.

나가시마를 따라 방안에 들어섰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침대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던 녀인은 나가시마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일본유가다를 입고있던 녀인은 얼른 앞가슴을 여미고는 고쳐앉았다. 그제서야 담당의사뒤에 낯선 부인이 서있는것을 보고 의아해하는것이였다.

《아, 이 근처에서 다방을 하는 마마인데 즈까모 도상한테 소개하려고 같이 왔어요.》

나가시마가 약간 비켜서서 정순을 소개하였다.

《이 병원앞에 사는 리정순이라 합니다.》

정순은 한결음 나서서 우리말로 인사를 했다.

환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는 다시 정순을 찬찬히 뜯어보며 입안에서 무슨 외마디소리를 하는것 같았다.

《안면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안됐습니다. 같은 동포가 입원하고있다는 말을 듣고 무슨 도움이라도 될가 해서 왔습니다만...》

환자의 눈에 스쳐지난 놀란 기색을 눈치채고 정순은 한껏 부드럽게 말을 했다.

나가시마는 환자가 정순을 경계하고있는것 같아 말을 또박또박 끊어서 설명했다. 이 사람은 병원앞의 다방의 마마이고 같은 남조선사람이니 혼자서 섭섭할가봐 내가 데려왔다고.

둥그레졌던 환자의 눈에 안도의 빛이 돌았다. 피기없는 창백한 얼굴을 들어 그러나 시선은 떨군채 정순이더러 무얼 중얼거리는지 같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정순에게는 그게 반가웠다. 입모양으로 보아 《감사해요.》 한게 아닌가하는 짐작은 갔으나 이 경황에서는 무슨 말이든 좋았다.

《우리 애아버지가 하던데 병원에서는 음식때문에 불편이 많대지요. 별게 아닌데 집에 있는걸 주어모아서 왔는데 입에 맞겠는지.》

정순은 수다스럽게 말을 엮어대며 꾸레미를 풀어 작은 냄비는 조심스레 옆에 놓고 김치며 고추장을 꺼내놓았다.

나가시마가 그걸 보고 넌지시 걱정이 되는지 병원에서 내는 세배밥만 먹더라도 영양은 충분히 섭취되는데 왜 그런 자극물만 가져오느냐 했다.

그러자 정순이는 환자의 머리맡에 있는 쟁반을 가리켰다. 밥도 멀건 두부국도 생선구이도 손을 댄 기색이 없었다. 점심으로 가져온건데 환자는 거의 손대지 않고있었던것이다.

《내가 입원하더라도 이런것만 나오다가는 바짝 말라죽겠어요. 한가지씩이라도 우리 반찬이 있어야 입맛이 돌지.

나가지마선생, 시끄럽게 굴지 말고 제발 부탁해요.》

딱해하는척하던 나가지마가 다름아닌 마마의 부탁이니 할수 없다면서 허락해주었다. 하긴 그 반찬들이 요술을 피워 환자의 식욕이 회복된다면 그이상 좋은 일이 없었던것이다.

나가지마의 말에 힘을 얻은 정순은 미역국이 든 작은 냄비도 마저 앞에 내놓았다. 나가지마가 질겁하는척하며 이젠 또 무언가 하며 냄비뚜껑을 열었다.

순간 더운 김이 서러오르면서 구수한 미역국의 향기가 병실안을 채웠다.

《히아, 미역국이구만.

즈까모도상, 지금 이걸로 점심을 드시지요.》

《...》

환자의 입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입을 앙다물고 외면하고있었다.

정순은 주춤하였다. 환자의 마음도 모르고 너무 떠든게 아닌가 하고 무안해졌다.

좀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나가지마가 오래있으면 환자가 피곤할수 있으니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자 했다.

환자는 결국 그날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마흔이 가까운년이 왜 이렇게도 침착성이 없을가.)

정순은 병원에서 돌아와 아이들 저녁차비를 하고는 밥상머리에 앉아 골똘히 생각하였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떨거리는 제 성미가 싫었다.

첫대면인데 좀 점잖게 놀아야 했었다. 그런데도 수다스레 떠들어 가뜩이나 마음고생이 많은 그의 심상을 휘저어놓았으니 자기를 아무리 채찍질해도 성차지 않을것 같았다.

입을 꼭 앙다물고 외면하던 너인의 영상은 정순의 가슴에 웅이아 되어 남았다.

그렇수록 이국땅에 와서 갖은 고초를 겪어 자살을 기도하고 끝내는 매독까지 얻어 혼자 격리되어 입원생활을 하는 너인이 불쌍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보아하니 나이는 자기보다 두어살 밑인것 같은데 그 나이에 기구한 운명의 세파를 혼자 헤쳐가는 너인에게 무슨 일이든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수는 없을가.

정순은 생각에 골몰하였다. 그러면 그 무슨 실머리라도 잡힐것 같아 너인과 만난 첫순간부터 다시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방안에 들어섰을 때 너인은 우두커니 앉아있었지. 고개를 돌리던 너인은 새하얀 앞가슴을 여미었지.

일본유가다의 옷깃을 여미며 당황해하던 너인의

모습에 생각이 미치자 정순의 머리에 번쩍하는게 있었다.

(그렇지, 잠옷을 갖다주어야지.)

그러고보니 너인이 든 병실이 어쩐지 행뎡그렇했던 느낌이 들었다. 침대가 석대 들어있기는 하나 복판에 있는 침대에 있던 너인의 둘레에는 세간살이 다운 물건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것이다.

(치솔이랑 대야랑 다 갖추어져있을가. 복도를 다 내려면 끌신도 필요하고.

잠옷우에 걸치는것도 필요하겠지.)

정순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왜 이 생각을 진작 못했는가싶었다. 하긴 살붙이들은 모두 남조선에 있을거고 남편이란놈은 저모양이니 제 너편네가 죽든살든 살필 생각을 아예 안할것이였다.

(그래, 래일이라도 당장 가져가야지.)

정순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악!》하며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방금 돌아온 순애였다.

《아이쿠, 간이 떨어지겠다. 요 장난꾸러기가.》 하며 포동포동한 딸의 뺨을 꼬집어주었다.

《그래도 엄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순애는 엄마를 놀래운게 그리도 재미났던지 방긋 웃어보였다.

그리고는 뽀르르 안방으로 달려가 가방을 벗어놓고 이내 돌아와 밥을 달라는것이다.

정순은 부러 정색하며 《순애야, 학교 갔다오면 무슨 일부터 먼저 하나?》 하며 타이르려는데 딸은 말도 그치기전에 목욕탕으로 달려갔다. 그러더니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 푸푸거리며 얼굴을 씻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닥 넓지 않은 방안에서 눈깜짝할사이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딸이 오늘은 어쩐지 성가시지 않았다. 정순은 딸에게 줄 과자와 우유를 상위에 챙겨놓았다. 그러는데 또 문득 너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나이 같으면 아이들이 있을텐데, 얼마나 보고 싶을가.)

정순은 오늘밤 남편과 상의해서 래일이라도 또 너인을 찾아가볼 마음을 먹었다.

다음날 정순은 나가지마를 찾아갔다. 간밤에 남편에게 의논하니 어떤 물건이 모자란지도 모르는데 한짐 지고 가봐도 오히려 환자를 놀래울수 있다는 것이였다. 그래 정순은 파란색 잠옷 한벌과 새빔을 하나 사고는 병원을 찾아갔다. 잠옷은 너인이 옷깃 여미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 당장 갖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빔은 어제 빠마한 머리를 쓰다듬던 너인의 모습이 생각나서였다.

나가지마는 간호실 안방에서 기다리고있었다. 미

리 전화를 걸어왔던것이다.

《마마상, 어제는 폐를 끼쳤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정순이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니 나가시마는 제법 심중한 어조로 우리 주의가 못미쳐 미안하다면서 당면하게 필요한 물건 몇가지를 대주었다. 그리고는 코밑수염이 활짝 웃으며 역시 《리무진》의 마마가 다르긴 다르다고 추어올리는것이였다.

《예, 알겠습니다. 잠옷과 빗은 꼭 전하겠습니다.》

그날 정순은 나가시마가 너인과 만나고 가라는절마다하고 병원을 나왔다.

나가시마는 정순이 나간 뒤에도 그가 놓고간 잠옷과 빗을 이욕히 내려보고있었다.

《리무진》에는 주인이 열렬한 자이안프팬이라는 데서 자주 다니게 되였다. 그도 이전의 프로야구명 선수이고 감독이었던 《나가시마》와 성이 같은데로부터 젊었을 때부터 자이안프의 지지자여서 자연스럽게 그리로 발길이 갔던것이다. 그러는중에 내외간에 꾸밈새가 없고 털털한데다 인정이 두터운 그들에게 마음이 끌려가고있었다.

그런데 동족이라는 단 하나의 리유만으로도 이토록 마음을 쓰는 《리무진》의 부부에 또 한번 탄복을 하는것이였다.

(그런데 특별실의 환자는 어째서...)

나가시마의 뇌리에 어제 정순이 왔을 때의 정황이 스쳤다. 병어리가 된것도 아닌데 설사 일본말이야 제대로 말하지 못하더라도 조선말로 말을 걸었는데 어째서 입을 다물었을까, 아니 정성어린 미역국은 저렇게 싸늘해지도록 손도 대지 않고있을까, 나가시마는 잊저녁에 간호부들이 장마철에 그냥 두면 쉬어버리겠다고 뺑장고에 넣던 일이 떠올랐다.

요즘은 아무 말없이 의사가 시키는대로 영양분의 점적과 수혈, 대독균을 죽이기 위한 페니실린주사에 따르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제껏 웃는 일이 없었고 마음의 문은 계속 꼭 닫아매고있었다.

그렇다고 그 문은 밖에서 억지로 열어제길수는 없는것이였다. 환자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줄것을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나가시마는 간호부를 불러 이 물건을 특별실에 갖다주라고 하려다 말고 자기가 직접 가져가기로 했다.

손기척을 하고 방안에 들어섰다.

환자는 어제와 같이 침대우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담당의사를 알아보고 재빨리 웃기를 여미던 환자는 무엇을 저어하듯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그제서야 나가시마는 정순이 잠옷을 갖고 온 사연을 알것 같았다. 자기는 직업의식으로 범상하게

대한다고 했으나 애젊은 녀성이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내주는 유가다를 입고 불편해하는 환자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이 반성이 되였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나가시마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 없다는 신호였다.

나가시마는 이불에 덮인 환자의 무릎우에 빗하고 잠옷을 놓았다.

환자는 와뜰 놀라는투로 고개를 약간 들었다.

《어제 왔던 〈리무진〉의 마마가 가져왔는데, 유가다가 불편하면 갈아입어도 괜찮습니다.》

환자는 또 입을 꼭 앙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손빛으로 빗었을 형클어진 머리카락아래 목덜미가 허영게 나가시마의 눈을 찔렀다.

힐끔 곁을 보니 점심밥이 그냥 쟁반우에 얹혀있는게 보였다. 멀건 콩나물국, 다꾸앙 두어조가리에 김이 눈에 비치자 나가시마는 문득 미역국생각이 났다.

《미역국을 끓여서 가지고 올가요?》

천천히 한 나가시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환자는 급히 도리질을 하였다.

《즈까모도상, 병은 먹어야 낫습니다.》

나가시마는 좀 엄한 어조로 한마디 하고는 그자리를 떴다. 환자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다음날 오후 남편에게 점방을 인계하고나서 정순은 나가시마가 일러준대로 대야며 비누, 손수건들을 모두 새것으로 준비했다. 크림과 화장수, 가위, 손톱깎개, 실과 바늘같은것도 챙겼다.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 입었다가 몸이 나서 못입게 된 속옷도 한벌 꾸레미속에 넣었다.

이러구러 아이들 돌아올 시간이 되였다. 오늘은 딸의 생일이였다. 그래 정순은 저녁상을 마련해놓고 《밤에 아빠하고 같이 생일모임을 하니 많이 먹지 않도록》하고 종이쪽지에 써서 그옆에 두었다.

밖에 나오니 거리는 어슬어슬하였다. 병원에서는 벌써 저녁을 마쳤을것이였다.

정순은 종종걸음을 쳐서 큰길을 건넜다.

병원현관에 들어서니 외래환자들의 진찰은 끝나고 복도는 텅 비어있었다. 간호실을 찾아가니 나가시마선생은 오늘은 안나오는 날이라는것이였다.

정순이 용무를 대주니 이야기는 들었다면서 안쪽을 가리키며 혼자 가보라는것이였다.

정순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첫날에 실수한 생각을 하니 어쩐지 주춤거려졌다. 간호부의 눈치를 살피려니 그는 막 전화를 받는중이였다.

할수없이 정순은 큰 꾸레미를 추슬러올리고 특별실을 향했다.

문앞에 이르러 정순은 소독약에 씻은 손을 천천

히 수건으로 닦았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마음을 다 잡고있었다.

그는 가볍게 기침을 짓고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제십니까? 엇그제 온 리정순입니다.》

《아이고, 들어오이시여.》

동안을 두었다가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정순은 조심조심 문을 밀었다.

너인은 주사를 맞고 누워있었는지 몸을 일으켜 소매를 걷어올린 왼팔을 손가락으로 누르고있었다. 왼쪽손목에 감은 붕대가 정순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너인은 파란잠옷을 입고있었다. 소매를 내리운 그는 옆의 침대에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였다. 일순간 그의 창백한 얼굴에 피기가 도는것 같았다.

《마음을 써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너인은 팔을 약간 벌리며 몸에 꼭 맞는다고 하면서 거듭 사의를 표하였다. 그리고 김치하고 고추장 맛도 보았다면서 신통히도 고향의 어머니솜씨를 닮았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정순은 호수같은 너인의 눈에 엇그제와는 영 판 다르게 생기가 도는것을 들여다보며 너인이 하는 텅텅하고 감칠맛이 나는 경상도사투리억양에 대번에 매혹되었다.

말을 잇고 멍하니 자기를 대하는 정순을 보고 너인은 입가에 가벼운 미소까지 띄웠다. 엇그제는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하는것이 아닌가.

《저는 박민옥이라 캐요. 앞으로도 많이 겠차주이소예.》

그제서야 정순은 쌍꺼풀진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주머니는 경상도사람입니까?》

《예, 창녕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진주가 고향인데. 히야... 어머니 말을 듣고있는것 같아요.》

《진주라면 창녕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저의 언니벌이 되는것 같은데 어머니가 됩니까.》

정순은 기뻐했다. 죽다가 살아난 낯선 우리 동포가 소생하여 지금은 이렇게 말까지 하지 않는가. 정순에게는 처음 만나보는 이 고향사람에게 무슨 말یدن 듣고싶었고 하고싶었다.

나이는 민옥이 세살밑이었다. 그래보니 눈귀에 가는 주름살이 그어지긴 했으나 새하얀 피부는 처녀처럼 빛나보였다.

결국 정순은 난데없이 《언니》라는 호칭을 얻어가지고 병실을 나왔다. 나올 때 뺑장고에 들어있던 미역국담비를 가지고왔다.

정순이와 민옥 두 너인은 서로 나서자란곳은 달랐으나 한 혈육이라는 그 한가지 이유로 가까이 지

내게 되었다. 맏딸로 자란 민옥은 정순을 언니처럼 따랐고 정순은 불쌍한 민옥을 성심껏 도왔다.

그러나 민옥은 고향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신과 관련되는 과거지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민옥이 그 일단을 풀어놓았다.

그것은 우연하게 토로되었다.

남편이 상공회의 하루학습이 있어 눈코뜰새없이 바빴을 때였다. 오사까에 사는 시어머니가 가져다준 명란젓하고 명태무침을 그릇에 넣어 순애더러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었다.

그날 순애는 빨간 모자를 쓰고나갔다. 그것은 정순이 딸의 생일에 선물로 사준건데 어찌나 그제 마음에 들었던지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내 그것을 쓰고 다녔다. 나갈 때 실수할가봐 2층의 간호실에 가서 맡겨놓고만 오라고 일렸다.

그런데 갔다가 이내 돌아온다던 아이는 30분이 지나도 한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무렵이라 한창 바빠서 점방을 비울수도 없었다. 그래 사이폰에 커피가루를 넣어 불을 달고난 다음 물이 사르르 끓는 틈을 타서 전화를 걸었다. 전화구에 나온 녀성이 말하기를 낮부분을 맡아하던 간호부들은 교대해서 없는데 아마 돌아갔을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무슨 사고라도 일어난게 아닌가 하고 두방망이치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다가 기회를 버르던 정순이는 한무리의 손님들이 일어섰을 때 회계를 하고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그들을 따라나왔다.

그때 길건너편에서 손을 번쩍 들고 빨간 모자를 쓴 순애가 큰길을 가로질러 걸어오지 않는가.

영겁결에 《순애야》 하고 웨쳤다. 뒤에서 손님들이 힐끔 훑쳐보는것도 아랑곳없이.

엄마를 알아본 순애는 뽀르르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비스켓트와 과즙통이 쥐여져있었다.

《이건 어디서 샀어?》

엄마가 엄하게 문초하자 순애는 금시 새초롬해지며 고개를 숙이더니 기여드는 소리로 《아주머니가》 하였다.

《아주머니가? ! 그럼 너, 아주머니를 찾아갔었나?》

순애는 도리질을 했다. 그리고는 엄마를 빨간 모자밑에서 힐끔힐끔 올려보며 입을 오물거리려했다.

그때 손님이 들어오려 했다. 정순은 순애를 집에 올라가라고 일러놓고는 전방에 들어갔다.

그날밤 점방문을 닫고 정순은 급히 올라갔다. 아무래도 순애일이 궁급했던것이다.

순애는 이를 닦고있었다.

정순이가 부르자 순애는 입언저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왔다. 엄마 눈치를 살피는양이 사뭇 긴장되어 있는것 같았다.

순애가 두서없이 종알대는 말은 대체로 이랬다.

오늘저녁 순애가 명란젓, 명태무침을 가지고 간호실에서 특별실의 아주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고있을 때 민옥이도 간호실옆에 있는 휴게실에 나와있었다. 그래 간호부가 저 사람이 그 아주머니니까 직접 드리라고 했다는것이다.

순애가 민옥에게 다가가 꾸벅 절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엄마가 이거 드리라고...》하면서 물건을 내였더니 아주머니는 인차 알아차리고 《너 순애제, 아이고 푹푹타》하면서 불안아주더라는것이였다.

그래 아주머니 병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왔다는것이였다.

정순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물으니 아주머니가 묻는대로 조선말은 우리 학교에서 배웠다는것, 오빠는 축구부이고 자기는 이전의 엄마처럼 무용부라는것, 그런데 음악도 좋아한다는것 등을 말했다는것이다. 그리고 빨간 모자가 이쁘다고 칭찬해주기에 이것은 엄마가 생일때 선물로 준것이라고 했더니 생일은 언제고 나이는 몇살이냐를 묻더라는것이였다.

순애가 생일은 6월 30일이고 나이는 12살이라고 대답했더니 아주머니는 나이도 생일도 자기 딸과 똑같다고 하면서 이름은 《선아》라고 한다는것이였다.

《정말 순애하고 나이, 생일이 똑같은 딸이 있다고 했나?》

《음, 그리고 순애를 안아주었어. 노래는 <금강산의 목란꽃>을 불렀어.》

정순은 가슴이 몽클해왔다. 무슨 곡절이 있었길래 귀여운 딸을 고향땅에 떼어두고 일본에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한단말인가. 딸인들 얼마나 보고싶을 것이며 그 가슴인들 얼마나 쓰리고 아플것이었겠는가. 그래도 그 모든것을 그 가슴에 묻은채 오늘도 온갖 풍상을 겪고있는 민옥이 불쌍해서 못견디었다.

정순은 격해오는 심정을 가까스로 억누르면서 순애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순애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칭찬해주었다.

민옥이 입원한지 근 한달이 지났다. 이젠 매독균도 가시여지고 체력도 회복되며 며칠 있으면 퇴원하게 된다면 어느날, 정순은 일과처럼 병원을 찾았다. 저녁때라서 그런지 입원실이 있는 2층은 한가해보였다. 정순은 간호원실에 얼핏 들렀다 지나치려는데 한 간호원이 《마마상, 손님이 와있는데요.》 하고 일러주었다.

《손님이요. 누구데요?》

이 한달어간 민옥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럴수록 자주 가봐야겠다고 매일처럼 드나드는 정순이였다. 그래 오늘도 잠깐 들여다보려고 왔던것이였다.

《남편하고 외삼촌 되시는분이라던데...》

《예?! ... 그럼 있다가 또 오지요.》

정순이 되돌아서서 돌아가려는데 저쪽에서 특별실문이 열리며 두 남정이 나왔다. 머리가 벗어진 사람은 뚱뚱해보였고 작은 키에 어깨가 딱 벌어진 다른 사나이는 색안경을 끼고있었다.

(저 사람들이 민옥이의 남편하고 외삼촌이구나.)

낮설은 일본에서 그래도 그들은 민옥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였다. 그래 정순은 다가가서 인사만이라도 할가 하다가 말고 복도옆으로 비켜서서 모른체하였다. 초면인데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보다도 퇴원할무렵이 되어서야 나타난 남편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들어 그랬다.

정순이 판데를 보고 서있는데 뜨적뜨적 걸어오던 그들의 속삭임소리가 들렸다.

《다시 같이 살고싶으면 먼저 돌아와야지. 그리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응.》

《예...》

궁근소리가 났으나 질책하는투로 말하자 모기우는 소리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정순의 곁을 스쳐지날 때 그는 속기빠르게 그들을 살폈다.

키는 작으나 의외로 다부지게 생긴 중년사나이가 민옥의 남편일거고 벗어진 머리의 가장자리에만 백발이 섞인 50대 후반사람이 외삼촌일거라고 그는 짐작하였다.

중년사나이는 옥내에서도 색안경을 끼고는 있었으나 어깨를 축 늘어뜨린양이 연약해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순의 머리에 민옥의 정상이 언뜻하자 그 색안경속에 숨은 표독스런 눈초리를 보는것 같아 정순은 울화가 불끈 치미는걸 어쩔수 없었다.

두 남정이 복도를 꺾어 계단으로 내려간 뒤 정순은 동안을 두었다가 민옥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걸음 옮기다가 정순은 무엇에 흠칫하듯 그자리에 섰다.

(아니! 저 외삼촌이란 사람은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러나 그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의 먼 기억속에 엮혀있었을건데 그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착각일까? ...)

깨틈한대로 정순은 고개를 한번 기웃하고는 그생각은 잊은듯이 복도를 걸어갔다.

(다음호에 계속)

그날은 오리라

제1부

윤광연

평양시 전경

어느 청사의 한방

방의 주인인듯한 사람이 책상우에 놓인 종이를 손으로 짚고 거기에 써여진 글을 읽으며 말한다.

《이름 리금숙, 헤여질 때의 나이 다섯살… 그러니까 올해 그 녀자 나이가 마흔다섯이겠소?》

《그렇습니다. 국장동지 !》

지도원이 대답했다.

걸음을 떼는 국장.

《그 사람이 타이 왕컵축구경기때 우리 선수들한테 부탁했더니 벌써 석달이 되지 않았소? 그동안에 이런 녀자 종시 찾아내질 못했단말이지요?》

《비슷한 녀자를 한사람 찾아내긴 했습니다.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복으로 들어온 경위도 같은데…》

《그런데?》

《그런데 그 녀성은 헤여졌던 오빠를 이미 찾았습니다.》

《남쪽에서 헤여진 오빠겠소?》

《그렇습니다.》

《음… 그외에 비슷한 사람이 더 없었소?》

시원치 않은 기색으로 대답하는 지도원.

《남에서 들어온 녀성들중에 비슷한 이름을 다 들춰지만 그 사람의 동생이라고 짐작되는 녀성은 없습니다.》

《그럼 야단아니요. 남조선축구선수단일행이 오늘 당장 평양에 도착하는데…》

평양비행장

남조선축구선수들을 마중하러 나온 군중들.

비행기가 착륙한다.

들길

산기슭에 자리잡은 농장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승용차 한대.

농장마을

《관리위원장동지- 평양서 손님이 오셨어요-》

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울린다.

탈곡장

옷을 털며 나오는 리금숙.

저쪽에 있는 승용차를 보더니 그리로 간다.

《아이 지도원동지 오셨습니까?》

승용차결에 서있던 지도원 김영수도 반긴다.

《관리위원장동무, 그새 건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안됐습니다. 제가 찾는 그 녀자를 아직 찾아내질 못해서 그렇니다.》

《그래요?》

《참, 오늘 남조선축구선수단이 도착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예, 방금 농장원들과 그 이야기를 하던중이랍니다.》

《관리위원장동무, 북에 온 녀동생을 찾아달라던 남조선의 그 체육역원이 축구선수단일행으로 평양에 왔습니다.》

《그래요?》

《동생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관리위원장동무를 만나보고싶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들길

마을을 등지고 달리는 승용차.

고려호텔 2등실

남조선체육역원 리현덕이 서성거리며 말한다.

《왜 그런지 난 안내원이 얘기하던 그 녀자가 꼭 내 동생일거라고만 생각되네.》

한방의 동료 윤만선이 서늘한 마음으로 받는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나. 그러나 그 녀잔 이미 자기 오빠를 찾았다질 않나.》

《거짓말 거짓말… 이북사람들이 우리 감정을 거슬리느라고 숨박꼭질을 하는걸세. 숨박꼭질을.》

《숨박꼭질을 한다구? … 부끄럽지두 않나? 도적의 눈엔 누구나 도적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한필화씨의 언니아닌 언니를 일본에까지 끌고가서 울고불고 야단시키던 그때처럼말이지?》

《그, 그일은 왜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공항에서 여기 고려호텔까지, 우리를 마중하고

맞이해준 이복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네.

통일 만세를 웨치던 그들의 눈빛, 목소리, 흔드는 팔세, 이런 진심은 결코 꾸며낼수 없는거야.

〈평정하라, 웃지 말라, 손을 흔들지 말라.〉-안기부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지만 호텔앞에 응집한 인파에 묻히어 나는 종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껴안고 통일 만세를 웨치고말았네.

이런 진심을 의심하는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나 현덕은 자기 감정대로이다.

《나는 동생을 찾는 사람일세 ! 석달전에 이복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으니 평양공항에 내리면 〈오빠-〉 하고 내 동생이 뛰어들줄만 생각했네. 그러나 내 동생은 없었네. 내 동생은 없었던말일세.》

두손을 그러쥐며 울부짖듯 웨치는 현덕을 만선이 걱정스레 쳐다보며 말한다.

《제발 그 녀자가 나타난 다음에도 이런 제 감정을 내피워 열사람 민망스럽게 하진 말게. 축구화를 돌려메고 다니던 시절부터 30년동안 자네와 같이 살아오면서 남을 의심하고, 타발하고, 자기 감정만을 기어코 우겨대는 그런 버릇은 지금껏 여전해.》

《어떤 비난을 받아도 좋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평양에 온 기회에 동생의 행방을 알아내고야말겠네. 그렇지 못하면... 난 죽어도 죄를 안고 저승에 갈걸세.》

《음?》

아픈 추억에 빠져드는 현덕.

《내 동생의 이름은 금숙이라고 불렀네... 그 애가 두살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네살때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갔지.

슬피우는 동생을 데리고 심봉사처럼 동냥밥을 얻어먹으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아버지를 따라 뒤번 가본적이 있는 서울근방의 5촌택한테로 찾아갔네. 5촌택이란 땅을 여러마지기 부치며 사는 과부였는데 실지는 남보다도 못했네. 천대, 구박, 굶주림, 헐벗음... 머슴이면 그보다 더한 머슴이 어데 있겠나.

원래 오금질이 세차고 안정을 모르던 나는 그때에도 뿔차기를 좋아했네.

그런데 어느날 나는 동네아이들과 같이 뿔을 차다가 그 집 장독을 깨버리고말았네.》

5촌택프락

진흙이 묻은 버짚뿔이 날아와 잔뜩 회떡이 발린 낡은 장독을 들이친다.

《 짹-》

쏟아져흐르는 시꺼먼 장물.

5촌택이 문을 열어제끼며 달려나온다.

《무슨 일이나?》

다음순간, 깨진 장독을, 그다음 겁에 질려 서있는 어린 현덕이를 보았다.

《아니 저놈의 새끼가... 이새끼야 밥먹여주는것도 모자라 이젠 장독까지 깨먹니?》

5촌택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현덕의 귀를 잡아쥐고 등덜미며, 머리머를 마구 때려댄다.

방안에서 이 광경을 보며 울어대는 금숙.

현덕의 오늘 이야기가 들린다.

《이날밤, 나는 죄의식과 함께 반항심이 솟구쳐 견딜수가 없더군. 그래서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네.》

밤

슬피우는 소쩍새소리.

초라한 방안

등잔불밑에서 우는 동생을 달래는 현덕.

《금숙아, 오빠말 들어야 이제 돈벌어 독값을 물고 네옷이랑 사가지고 오지.》

《싫어, 싫어. 나 오빠하고 같이 갈래. 같이 갈래.》

《금숙아, 너 정말 그럴테냐. 오빠 인차 온다지않니.》

《오빠가면 작은엄마 나 자꾸 때려. 밥두 안줘.》

《너 그럼 이제 바람이랑 불구 눈이랑 오는데 이 께진옷 입구있어두 좋니? 오빠가 새옷 사가지고 온다지 않니. 오빠 말 왜 안듣니?》

울음을 그치며 현덕을 울려다보는 금숙.

현덕이가 달랜다.

《오빠 열밤자면 꼭 올게.》

《정말?》

《그럼.》

《정말 빨리 와야 해.》

《빨리 온다니까. 자 금숙아, 오빠 갈게.》

《음 음.》

눈물을 담고 고개를 까닥이는 금숙.

《잘 있거라. 금숙아, 잘 때 포단 자꾸 차버리지말구.》

《응, 응.》

《오빠 인차 올게.》

《응, 응.》

현덕 일어나 문고리를 잡는다.

순간 《와》 울며 일어나는 금숙, 현덕의 다리를 휘잡는다.

《오빠야-》

움쭉 서는 현덕, 짙 감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그러나 입술을 악물며 금숙이가 꼭 잡은 다리를 뺀다.

덜컹! -문을 열고 나서는 현덕.

《오빠야-오빠야-가지 말라, 가지 말라...》

몸부림치며 우는 금숙의 목소리.

입술을 악물며 달려가는 현덕.

금숙의 울음소리가 더 커진다.

회상에서 깨어나는 현덕.

《그러나 일자리가 쉬이 나서질 않더군. 겨우 부산까지 내려가서야 일자리를 얻었네. 거기서 6. 25 전쟁을 맞았지. 나는 그때 동생생각에 주먹을 쥐고 서울로 향했네. 그러나 미군과 이남군대가 그냥 압축되어 몰린 부산경대를 빠져 전선을 넘을수가 있어야지. 어쩔수 없이 미군이 서울에 들어선 다음에야 동생을 찾아 떠났네...》

서울교외

둔덕길을 달려가는 현덕.

풀숲을 헤치고 달려가는 현덕.

자기가 살던 5촌집으로 들이닥치는 현덕.

《금숙아-금숙아-》

자기가 있던 사랑채문을 열어제끼니 방은 텅 비었다.

다시 안방으로 달아들어가는 현덕.

뜨락에서 5촌댁을 만났다.

《우리 금숙이 어데 갔어요?》

《흥, 첫째, 네가 왔구나. 그래 돌덩이처럼 동생을 내던지고가면 그넌은 밥을 안먹고 산다더냐?》

《우리 금숙이 어데 갔냐말이에요?》

《모른다. 너를 찾아간다고 집을 나간지 오래다.》

《에이-》

5촌댁의 떡살을 잡고 그냥 흔들어놓고 달아가는 현덕.

온몸을 떨며 악을 쓰는 5촌댁.

《아이구, 저놈이, 저놈이...》

현덕이 대문밖으로 뛰어간다.

마을

정신없이 뛰어오는 현덕.

마을사람을 붙잡고 묻는다.

《우리 금숙이 못봤나요?》

《그집때 울면서 우리 처마밑에 섰길래 뒤밤 재워줬는데...》

《그담엔 어데루 갔어요?》

《저 건넌마을로 가보지.》

《예?!》

그쪽을 쳐다보고 다시 뛰는 현덕.

다른 마을

《...요만한 처녀, 이름은 금숙이 노란저고리를 입고... 못봤나요?》

도리질하는 녀인...

다시 뛰는 현덕, 다른 사람에게 또 묻는다.

《요만한 처녀, 노란저고리를 입었어요. 못봤나요?》

《인민군대가 왔을 때 그런 처녀를 데리고 다녔는데... 북으로 갈 때 업고갔지.》

《예?! 그래 업구서 어디루 갔나요?》

《글쎄. 아마 평양으로 갔겠지.》

《평양으로요?》

고개를 들어 북쪽하늘을 보는 현덕.

길

《평양 125km》란 이정표가 박혀있다.

그리로 지나가는 현덕. 옷자락이 너털거리고 신발이 껴졌다.

급히 걷는 걸음.

《서랏! 서랏!》

움쭉 서는 걸음.

현덕이가 총창을 맞대고 막아선 미군놈들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본다.

산등성이 평양쪽하늘을 향해 애라게 동생을 부르는 현덕.

《금숙아-》

그 소리가 길게길게 메아리친다.

회상에서 깨어나는 현덕.

《서울서 평양이 몇리나 되나?》

만선의 대답.

《650리라 하더군.》

《650리라... 동생을 찾아 평양으로 떠났던 길을 40년이 걸려 지금에야 왔네구려!》

그들이 내다보는 평양의 저녁거리.

《조국통일》이라는 장식글자가 자꾸만 오르내리면서 번쩍인다.

평양거리

불을 켜고 거리를 달리는 승용차.

금숙이가 곁에 앉은 김영수에게 말한다.

《마음이 이상하군요. 그 사람한테 반가움보다도 동생이 아니라는 실망을 주어야겠으니...》

《잘 위로해줍시다. 앞으로 동생을 꼭 찾게 될 거라는 희망도 주구요.》

고려호텔로 들어서는 승용차.

현덕의 호실

그냥 창밖을 내다보고 서있는 현덕과 만선.

갖가지 장식등이 번쩍거리는데 《조국통일》이라고 쓴 네글자가 유난히 눈에 안겨온다.

만선이가 말한다.

《서울에도 네온싸인이 번쩍거리며 술한 글자들을 새겨놓았지만 저렇게 〈조국통일〉이라는 글자는 본 기억이 없네.》

《음.》

《그래서북쪽판문점엔 〈자주통일〉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졌는데 남쪽판문점에 들어서니 〈땅굴 찾아 공세우고 간첩잡아 휴가가자〉는 따위의 너절한 반복구호만 새겨졌더라고 비난을 했지.》

《그러나 이남땅에도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질 않나. 그래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물론 이남의 민중도 통일을 바라는건 사실이지. 허나 이북의 통일세력은 국민과 당국이 하나로 뭉친 거창한걸세.》

초인종소리.

두사람이 긴장해진다.

다시 초인종소리.

《그 사람들이 온게 아닌가?》

현덕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린다.

《내가 나가보지.》

만선이가 나간다.

문을 열자 뚝뚝한 남조선역원이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현덕씨의 요청을 받고 그분들이 왔어요. 리금숙이라는 녀인이말이요. 저쪽에서 알기전에 조용히 만나보도록 해요.》

《알겠소. 여보게 현덕군, 왔네-》

《자, 인사하십시오.》

뚝뚝한 남측사람의 소개로 영수와 금숙이가 다가온다.

《현덕선생, 러장을 다 푸셨습니까?》

구면인 영수가 인사하자 현덕이도 반긴다.

《아, 김선생.》

《선생님이 그토록 만나보고싶어하던 리금숙녀성입니다.》

《예 ? !》

리금숙이가 나서며 인사한다.

《안녕들하십니까?》

순간 《아...》 하고 신음소리 치며 그자리에 서

버리는 현덕.

만선도, 영수도 놀라게 쳐다본다.

현덕의 눈앞에 선 금숙, 그의 모습에 똑같이 생긴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온다.

《어머니 ! ... 똑같소 ! 우리 어머니모습과 똑 같소 !》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현덕.

《이사람아 !》

만선이가 당황해서 현덕을 제지한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금숙과 영수 들어온다.

흥분으로 혈떡이는 현덕.

만선이가 침착하게 묻는다.

《부인의 성함이 리금숙인가요?》

《예.》

《고향은 서울이구요?》

《그래요.》

현덕이가 급해난다.

《저...》

이때 문쪽에서 예리한 목소리가 울린다.

《이게 뭐니까? 예?》

《안기부》요원이 도끼눈을 해가지고 급히 들어온다.

의아해하는 김영수.

《왜 그러니까?》

《너무하신데요. 우리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협의를 없다니요? 이 일은 남측역원의 요청에 의한것이고 또 남측역원의 안내를 받아 예까지 왔는데요.》

남측역원이 얼굴이 빨개 아무말도 못한다.

《안됩니다. 우리와 협의없이는.》

《우리라는건 누군가요? 당신의 실지소속인 〈안전기획부〉를 말하는건가요?》

남측역원이 변명처럼 더듬거린다.

《거기다가 알리자고 했는데 방이 빈것 같아서...》

웅색한 이자리를 피해줘야 할것 같애 김영수가 일어선다.

《좋습니다. 그럼 우린 가겠습니다.》

그러자 《안기부》요원이 웃음을 바르고 금숙에게 일어나달라고 권한다.

《부인, 줌...》

금숙이가 일어난다.

그러자 소스라치듯 몸을 솟구치며 손을 내미는 현덕.

《아니 ? ! ...》

《안기부》요원이 고개를 번쩍 돌린다.

《현덕선생 !》

《안기부》 요원들이 복측일행을 밀고나간다.

그러자 울부짖듯 소리치는 현덕.

《내 동생이요 ! 만나게 해주세요. 내 동생이요 !》

《안기부》 요원이 문을 도로 열고 돌아서서 매섭게 쏜다.

《현덕씨 왜 이래요? 피차에 좋지 않아요!》

그다음 《황》 문이 닫혔다.

《저 너자는 내 동생이요! 내 동생이요!-》

복도

여기까지 현덕의 부르짖음이 들려온다.

가슴이 저러 방쪽을 돌아보는 금숙.

《안기부》 요원이 김영수에게 유감스러운듯 말한다.

《약속된 일정에 이런 일은 계획돼있지 않았습니

다.》

김영수가 고개를 돌린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통일에도 무슨 단계를 지켜야 한다더니. 갈라진 부모형제, 친척, 친우를 만나는것도 일정계획을 세워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요?》

《아, 아. 자꾸 우리보고 이러질 마세요. 우리도 뭐 당국의 지시가 있어야 어떻게 하지요.》

《당신네 당국의 지시란 동포끼리 만나지도 말게 하자는건가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무엇이 무서워 그러오?》

《아 이거 뭐 나보고 자꾸 이러지 마십시오.》

《안기부》 요원이 내뱉다.

남측안내원이 난처해서 중얼거린다.

《어쩔수 없군요.》

평양거리

달리는 승용차안.

《그 사람이 저를 제 동생인줄 알고 그냥 소리칠땐 내 가슴도 저렸어요. 혈육의 그리움이란... 저도 바로 그런 생활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결에 앉은 영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금숙의 눈앞에 지나간 일이 떠오른다.

농장마을

신문을 보던 금숙이가 넋없는 사람처럼 소리친다.

《우리 오빠예요! 신문에 난 이 사람이 우리 오빠예요 ! 오빠!-》

들길

달리는 치마폭을 끌어내리며 정신없이 달려가는 금숙.

방안

편지지에 눈물을 똑똑 떨구며 편지를 쓰는 금숙.

《25년동안 찾고찾고 또 찾던 나의 오빠! 용서하세요. 이렇게 문안보다 자기 소개조차 하지 않고 오빠라고 먼저 불러버린 이 너자를 용서하세요.

제 이름은 리금숙, 25년전 서울의 차디찬 골방에서 단 한점의 혈육인 오빠와 헤어진후 인민군대아저씨들의 등에 업혀 북으로 온 사람이예요.

신문에 실린 동생의 이름이 어찌면 저와 꼭 같아요?

우리 오빠지요? 제가 그렇게 찾고찾던 우리 오빠지요? ...》

그냥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 금숙.

회상에서 깨어나는 금숙.

눈곱에 눈물이 그득하다.

어느 아파트앞에 멎는 승용차.

금숙이 가방을 들고 내린다.

영수가 미안해서 말한다.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못해 웅색한 걸음을 시켜서...》

《수고많으셨어요.》

《차후에 이리로 런계를 갖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승용차가 떠난다.

복도

초인종을 누르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금숙.

《옥주야-》

방안에서 다 큰 처녀애가(대학생인 모양이다)뛰쳐나오며 소리친다.

《고모-》

그뒤로 이집 안주인과 청년이 달려나온다.

《하하하 고모.》

《아니 누이가 어떻게 기별두 없이 오니?》

《갑자기 나올 일이 있었어요.》

《이리 줘요.》

가방을 받아들고 들어가는 오누이.

《오빠 아직 안들어오셨어요?》

《출장가셨다. 래일 오신다고.》

《그래요?》

방안

가방에서 꿀병을 여러개 꺼내놓는 금숙.
 《이건 꿀이에요... 이걸 우리 시아버지가 1년내
 가꾼 구기자, 오빠 약 해드려요.》
 《우리집 평감 또 누이자랑하게 됐구나. 요즘 몸
 이 좋아진다고 누가 말하면 <누이동생 잘둔탓이지
 요.》 하고 누이자랑을 하지 노친네 칭찬은 한마디
 두 안한다니까.》
 《사실이지요 뭐.》
 아들의 말에 모두가 웃는다.
 《너희들것은 갑자기 떠나다나니 여기에 호두 좀
 가져온것밖에 없다.》
 《고모 만세 !》
 두 오누이는 너털짝거리며 가방을 들고 저방으로
 간다.

깊어가는 밤
 책상우에 놓인 금철, 금숙 오누이사진.
 울케와 이야기하는 금숙(구기자를 다듬으며)
 《...글쎄 이름도 나이도 나와 꼭같다는데 나를 보
 는 순간 제 동생이라고 소리치지 않겠어요.
 내 가슴이 다 몽클해지더군요.》
 《그런 일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한 모양이야.
 그때 누이편지를 받고 밤새 잠못들던 옥주아버지
 를 생각하면...》
 《그런데 <안전기획부> 에서 온 사람들이 못만
 나게 막아서니까 막 어린애처럼 동생을 만나게 해
 달라고 몸부림치더군요.》
 《예휴 원, 남의 일같지 않다. 그렇게 생리별을 하
 고 가슴아파할 사람들이 남북삼천리에 얼마나 많을
 테고...》

옥류관 앞
 승용차앞좌석을 짹 붙들고 웨치듯 말하는 현덕.
 《연회고 뭐고 난 싫네. 내 동생을 만나게 해주기
 전엔 일체 먹지도 않으려네.》
 만선이가 딱해한다.
 《이사람, <안기부> 의 체질을 알면서 왜 그러나
 응?》
 《그래 제 동생, 제 혈육을 만나는것도 <안기
 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세면하고 밥먹는건
 <안기부> 의 승낙을 안받아두 되나?》
 《허허 참!》
 다가온 《안기부》 요원이 예리하게 쓴다.
 《현덕씨, 서울에 다시 나갈 생각을 안하고 그리
 는거요. 뭐요? 너무한데요.》
 두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말을 못하는 현덕.

통일거리 건설장
 현장사무실
 출장지에서 돌아온 금철이가 지시를 주고있다.
 《강재는 계획대로 가져왔으니 현장별로 분배를
 하시오. 산형강은 좀 늦어질걸 타산하고 시공계획
 을 세우시오.》
 《알았습니다. 기사장동무, 누이동생이 올라왔다
 고 옥주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알겠소.》
 금철이 밖으로 나선다.

주랙건설장
 여기저기 널려진 용접봉꼬투리를 주어놓는 금철.
 안쪽에서 철근을 엮으며 청년 둘이 얘기를 하고
 있다.
 《아 글쎄 그 사람은 기어코 자기동생이라고 만나
 겠다는데 <안기부> 놈들이 못만나게 하드라누
 만.》
 《차, <안기부> 가 그렇게 못되게 노누만. 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지도 않고 버티기투쟁을
 하는데...》
 《오-》
 금철이가 흥미있어 한마디 붙인다.
 《어디서 들은 얘지요?》
 《예?...예. 고려호텔에 다니는 우리 누이가 그러
 는데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이동생을 못만났다고?》
 《그 사람이 너무 항의하니까 밤중으로 서울에다
 전황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오.》

고려호텔
 주단이 깔린 긴 복도를 남측안내원과 함께 걸어
 오는 금숙과 영수.
 어느 방문을 열려는 순간 4~5명의 기자들이 들
 이닥친다.
 《이남기자들입니다. 얘길 좀 나눌수 있을까요?》
 《리금숙씨지요?》
 《리현덕씨와 남매간이라는 문제로 오늘의 만남
 이 이루어진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북측과 남측
 이 호상 엇갈리는 주장, 옳다거니, 아니라거니.》
 대답할새없이 저저마다 들이대는 질문앞에 한동
 안 주위를 둘러보던 금숙.
 《예. 제가 리금숙이에요. 그리고말입니다. 동생
 이냐, 동생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 누구의 조작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며 너무도 오래 갈라져 산 아

픈감정에서 생긴 착오나 착각일수 있는데 이런일에
서까지 복측과 남측을 맞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 기자가 얼어맞은듯 어깨를 움츠린다.

《아, 옳습니다 옳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금숙씨는 현덕씨가 오빠가 아니라고 생
각합니까?》

그 기자를 지그시 쳐다보는 금숙.

《통일념원을 안고 머나먼 땅을 에돌아 평양에 오
신 기자선생님들에게 오늘날의 첫째관심이 동생이
냐 아니냐 하는것이라면 섭섭한데요. 오늘의 이 상
봉은 누가 이기고 지는가 하는 체육경기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르는 재판도 아니지 않습니
까. 갈라진 겨레의 아픔과 통일의 간절한 소망이 고
려호텔의 한방에다 앞당겨 펼쳐놓은 통일광장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박수를 치는 여러 기자.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RBS》가 물었다.

《농업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요?》

마이크를 들이대는 이 기자는 《문화방송》인가?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입니다.》

《예, 관리위원장이요?》

《농장주와 같은건가?》

《그럼.》

기자들이 수군거리는걸 내려다보며 금숙이가 한
걸음 나선다.

《선생님들은 지금 저와 같이 들어가 우리의 상봉
을 취재하실려는것 같은데... 그렇겠지요? ... 제가
동생이기를 바라는 그분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 위
로를 하고 희망을 줄수 있을는지 제 마음은 지금
갈피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그분의 눈길앞
에서 미처 말마디를 골라낼수 있을것 같지 않아요.
그러는 저를 여러선생들이 옆에서 지켜보신다는
건... 전 췌 무안할거예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선생
들은 자리를 좀 피해주시지 않겠어요?... 고마워
요.》

기자들이 대답도 하기전에 인사를 하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금숙.

기자들이 팔을 벌려보이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방

들어서는 금숙과 영수, 남측안내원.

기다리던 현덕과 만선이 벌떡 일어난다.

숙연히 고개숙여 인사하는 금숙.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

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선이가 인사를 받았을뿐, 현덕은 흥분을 껴안
고 어찌지 못하고 섰다.

《저, 고향이 서울이라지요.》

역시 만선이 물었다.

《서울교외 어느 마을이었어요.》

기다리던 현덕이가 다그쳐 묻는다.

《그게 어디지요?》

《다섯살때 떠났으니깐 정확히 기억되진 않는데
후에 오빠한테서 얘길 들으니...》

《오빠?... 오빠이름은 어떻게 불려요?》

《리금철이라고 합니다. 금자돌림이지요.》

《예에-》

현덕이도 만선이도 실망스러워진다.

영수가 미안스럽게 말한다.

《서울서 헤어진 오빠를 북에 들어와 25년만에 만
났답니다.》

《그래요?》

만선에게 얘기하듯 현덕을 보기가 가슴아파 말하
는 금숙.

《다섯살때 서울서 오빠와 헤어졌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좀전이었어요. 전쟁때 인민군대아저씨들
에게 업혀 북으로 들어왔지요. 학원을 거쳐 대학을
다니는 어느 순간도 오빠가 북에 들어오셨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드랬어요. 그러
나 첫째라는 오빠의 아명밖에 모르니 주소안내소에
알아볼수도 없었구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
고 가정을 꾸린 얼마후였는데 신문에 실린 한 건설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무심히 읽어가다가 깜짝 놀
라버렸어요. 신문에 실린, 그 건설기사가 서울서 동
생과 헤어진 얘기라든가, 동생의 이름이 저와 똑같
았거든요. 당장 편지를 썼어요. 며칠후에 그 건설기
사가 찾아왔드군요. 오빠였어요. 제가 그렇게 찾던
오빠였어요!》

얘기를 듣던 현덕이가 얼굴을 싸쥐고만다.

그를 지켜보며 서늘해지는 만선.

《아하 그랬군요.》

금숙이가 현덕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가슴을 짚
고 말한다.

《선생님이 저와 같은 너동생을 찾으신다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생도 저와 같이 인민군대아저
씨들에게 업혀왔다면 지금 우리 북쪽땅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수가 미안해서 말한다.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고있을겁니다. 저희들의
성의가 부족해서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뿐이지...》

만선의 말

《살아있지 못할수도 있지요. 6. 25전쟁이 얼마나 모질었습니까. 평양에 미군의 폭탄이 인구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예, 집이 한채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금숙이가 현덕에게 말한다.

《피로워하실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동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의 집에도 들러 동생이 사는 모습도 보시고...여기서 차로 세시간만 가면 됩니다. 저의 시가에서도 친오빠를 맞는듯 반가워 할겁니다. 온 농장이 펼쳐나 선생님을 환영할겁니다.》

두볼로 눈물이 짙 흐르는 현덕.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집

금철과 마주앉은 금숙.

《글쎄 마주앉아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만 쥐여뜯더니 정작 헤어질 땐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칠 못하겠지요. 진정으로 동생을 찾고 그리워하는것이 더군요. 내 가슴이 다 아팠어요.》

《음-》

담배연기를 길게 뽑는 금철.

《그래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키는 오빠만한데 다부지게 생겼어요. 한때 남조선축구팀의 감독으로 있었대요. 체육을 한 사람이여서 그런지 자기 감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일어나 방안을 거니는 금철, 이윽고 걸음을 멈춘다.

《넌 언제 내려가겠니?》

《농장일이 바쁜데 인차 내려가야지요 뭐.》

《래일 5월1일경기장에 가서 축구경기를 하고가거라.》

《축구요?》

《북남선수들이 하는 통일축구경기말이다.》

《아이, 가볼수 있어요?》

《내가 식구들을 데리고 가자고 표를 구해왔다. 오래간만에 같이 가자꾸나.》

표를 꺼내 책상위에 놓는다.

5월1일경기장

《와-》

터지는 응원.

선수들의 질주.

객석에 나란히 앉은 금철이네 식구.

《초대석 왼쪽으로 세번째에 앉은 사람이예요.》

금숙이가 망원경을 금철에게 넘겨주며 말한다.

망원경을 눈에 대는 금철.

망원경렌즈에 리현덕의 모습이 잡힌다.

경기장초대석

경기에 눈길을 따르는 현덕, 그러나 생각은 다른데 가있다.

결에 앉은 만선이가 흥분하여 말한다.

《대단하군! 대단해 ! 이런 응원을 받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네 !》

응원석에 카메라를 댄다.

그의 흥분에 아랑곳없는 현덕.

《여보게, 그 녀인의 키가 보통보다는 좀 컸지?》

카메라를 떼며 의아해지는 만선.

《누구말인가?》

《어제 만났던 금숙부인말일세.》

《영?!》

어이가 없어 현덕을 바라보는 만선.

제혼자 중얼거리는 현덕.

《동그스름히 빠진 하관이랑... 어머니얼굴과 꼭 같았어. 꼭 같았어 !》

《자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 녀인을 보는 순간 떠올랐네. 꼭 같았어. 우리 어머니 얼굴과 꼭 같았어!》

《그 녀인이 제임으로 자기는 오빠를 찾았노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도 왜 자꾸 이러나?》

《무슨 착오가 생기든가,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데 분명해.》

《여보게, 마음을 진정하고 착실히 생각해보게.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지만 세력과 재력, 지력이 없이는 솟아오르기 힘들어. 더구나 녀자가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농장주와 같은 관리위원장자리에 앉을수 있겠나? 우리가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되면서 체육계로 나온것과는 사정이 달라.》

대답을 안하고 입을 꼭 다문 현덕.

《와-》 터지는 응원함성.

호텔방

잠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현덕.

꿈을 꾸다.

안개자욱한 속에서 동생을 찾는 현덕.

《금숙아, 금숙아.》

《오빠.》

분명 어데선가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금숙아, 어데 있니 ? 어데 있니?》

이리저리 헤매며 동생을 찾는 현덕.
 《오빠!》
 저기서 한 녀자가 달려온다. 분명 동생이다.
 낮에 만났던 그 녀자와 생김이 똑같은 동생이다.
 《금숙아!》
 《오빠!》
 서로 껴안고 어쩔 줄 몰라하는 오누이.
 잠에서 깬 현덕.
 《아, 아...》
 그의 신음소리에 만선이가 놀라서 일어난다.
 《이사람, 왜 이러나? 엉?! 왜 그래?!》
 눈을 뜨고 일어나 앉더니 가슴을 뜯으며 오열을
 터뜨리는 현덕.
 《금숙아-아...》

호텔 홀
 여기서 김영수를 만난 만선.
 《김선생, 저 좀 봅시다.》
 《예?》
 《야단났구만요. 저 친구가 엿그제 만났던 금숙부
 인을 그냥 제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에 가서두 그냥 저럴겁니다. 죽을 때까지 저
 려겁니다.》
 《예...》
 《어떻게 부인이 동생이 아니라는걸 확신시켜주
 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맑은 하늘
 아빠트앞
 층을 올라다보며 현관으로 들어서는 영수.
 복도를 걸어 금철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문을 여는 금철의 처.
 《안녕하십니까? 이 집이 금숙관리위원장의 오빠
 되시는...》
 《네, 네. 누이-》
 금숙이가 뛰쳐나온다.
 《아이, 지도원동지가... 들어오세요.》

방안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안됐습니다.》
 《아이, 앓으세요.》
 금철 처가 파일다반을 들고 들어온다.
 미안해하는 영수.
 《참, 딱한 일이 생겨서 또 찾아왔습니다.》
 《지도원동무가 수골 해요.》

《그 사람이 기어코 금숙동물 자기 동생이라고 우
 기질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숙동무가 동생이 아니라는걸 확증시
 키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참, 직접 만나보고서도 그렇게...》
 《복에 가면 꼭 동생을 찾으리라고 생각했었으니
 까 그러겠지.》
 금철 처가 측은해서 말한다.
 무슨 생각을 얻은 금숙.
 《지도원동무,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한번 모셔
 올수 없을까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따라온 〈안전기획
 부〉 사람들이 호텔박출입을 일체 엄금합니다. 오죽
 했으면 서울의 승낙을 받고서야 그 사람이 금숙동
 무를 만났겠습니까.》
 《예.》
 《참 누이, 그 신문을 가져다보이는게 어떨가.》
 영수의 눈이 커진다.
 《신문이요?》
 《예, 그때 우리 오누이 상봉기사가 신문에 실렸
 었습니다.》
 《그래요? 그 신문을 건사한게 있습니까?》

고려호텔복도
 신문을 들고 뛰어오는 만선.
 호실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친다.
 《여보게. 이 신문을 좀 보게.》
 《엉?!》
 현덕이가 의아해서 쳐다본다.
 《15년전 금숙부인이 오빠와 만나던 때의 사실을
 보도한 이복신문일세.》
 《엉?!》
 두려운듯이 신문을 받아드는 현덕.
 《여기 이 기사일세.》
 현덕의 눈에 밝혀지는 기사의 글줄.
 《25년만에 찾은 오누이의 상봉...》
 기사는 우연히 열차에서 조국의 어제와 오늘이
 집약된 인간상봉의 한 장면을 목격할 그런 기회를
 얻었다...》

봉-
 궤도우를 굴러가는 열차바퀴-

열차안
 자리를 찾아가던 기자가 누구를 보고 걸음을 멈
 춘다.

《아니 금철동무.》
좌석에 앉았던 금철이가 반긴다.
《아니 기자선생?...어데 가시는 길입니까?》
《나야 변함없는 취재길이지.》
《여기 좀 앉으십시오.》
《그래 어디로 가오?》
《선생님덕분에 동생을 찾았습니다.》
《동생이라니?》
《제가 서울에 두고왔다는 그 다섯살잡이 동생말입니다.》
《그 리별장면기사를 쓰며 나도 울었는데 그 동생이 나타났단말이요?》
《저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나간지 얼마후 저한테 이런 편지가 한장 날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금철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준다.
편지를 꺼내 펼쳐보는 기자.
《25년동안 찾고찾고 또 찾던 나의 오빠! 용서하세요. 이렇게 문안보다 먼저 자기 소개조차 하지 않고 오빠라고 먼저 불러버린 이 녀자를 용서하세요. 제 이름은 리금숙, 25년전 서울의 차디찬 골방에서 단 한점의 혈육인 오빠와 헤어진후 인민군대등에 업혀 북으로 온 사람이에요.》
신문에 실린 동생의 이름이 어쩌면 저와 똑같아요?
우리 오빠지요? 제가 그렇게 찾고찾던 우리 오빠지요? ...》
편지를 읽던 기자가 눈을 습벅거린다.
《그래 이름도, 헤어질 때의 사실도 간단말이지?》
《예.》
결에 앉았던 다섯살잡이 제집애가 기자를 올려다보며 말한다.
《우리 고모래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오, 그 집 막내인 모양이구만.》
《예.》
《내 이름은 옥주예요.》
《그래그래 고모를 만나러 가니?》
《예, 여기에 애순이 놀이감도 다 있어요.》
《애순인 누구니?》
《고모네 아이야요.》
금철이가 설명한다.
《편지를 보니 네살잡이 딸애가 있답니다.》
《내 동생이야요.》
기자가 옥주를 두드리며 웃는다.
《허허, 혈육이 분명한 모양이요. 벌써 정이 통하는걸 보니.》
《예.》

결에서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끼인다.
《헤어졌던 식구를 찾은 모양이구만.》
금철이가 가슴빠근해서 말한다.
《예, 25년전 서울에다 동생을 뒤투고 왔드랬는데 그 애두 북에 들어와있다질 않습니까.》
《오!》
여럿이 호응한다.
《통일이 되여야 동생을 만나려니 했는데 이렇게...》
한 장년이 서늘한 감정으로 말한다.
《손님은 통일을 앞당긴셈이구려.》
《예.》
《남에 두고온 부모형제를 이렇게 쉬이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장년의 말에 할머니가 측은히 묻는다.
《고향이 남쪽이시우?》
《예, 전라도 목포입니다. 의용군으로 들어왔는데 고향에 늙으신 부모와 형제 다섯이 있지요.》
《오!》
숙연해지는 좌석의 일행.
이윽고 기자가 흥분하여 말한다.
《아무래두 내 금철동무 오누이의 상봉을 취재하고 다음 목적지로 가야겠소.》
《예?!》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는게 어디 쉽소? 하하...》
기자의 말에 여럿이 호응한다.
《원, 우리두 내려서 좀 보고갔으면 좋겠다.》
《그러게나말이요.》
붕-
기적을 울리며 달리는 열차.
열차방송원의 목소리.
《다음 도착할 역은 명주역입니다. 명주역에서는 3분간 쉼니다. 내리실 손님들은 미리 준비해주시오.》
금철이가 일어난다.
《선생님,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명주서?》
《예, 떠난다고 전보를 쳤으니 역에 나왔을겁니다.》
짐을 내리운다. 려행가방옆에 매달린 인형아기.
《그럼 안녕히들 가십시오.》
금철의 인사에 손님들이 뜨겁게 답례한다.
《잘 가시우.》
《동생을 만나 한껏 정을 나누며 잘 사시우.》
《옥주야 잘 가거라.》
옥주가 깅득이 절한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역에 서서히 들어서는 렬차.
 렬차에서 내린 금철일행이 구내를 둘러보며 주뒹 거린다.
 《저 사람들이 아니요?》
 기자의 말에 그쪽을 보니 녀자 셋, 남자 대여섯이 일행이 되어 서있다.
 금철이네가 그쪽을 보며 걸음을 떼는데 그쪽에서 한 남자가 급히 뛰어온다.
 《평양에서 오시는 리금철동지 아니십니까?》
 《예.》
 《아, 반갑습니다.》
 금철의 손을 덥석 잡아흔든 그 사람이 뒤에 대고 소리친다.
 《오셨소-》
 기자가 그에게 묻는다.
 《리금숙동무도 나왔습니까?》
 《예, 기사동무도 나왔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도 리당비서동무도 다-》
 《예.》
 그쪽을 쳐다본 기자 급히 카메라를 내려 준비한다.
 기자의 시야에서 벌어지는 상봉의 장면-
 금철이네와 저쪽일행의 거리가 좁아진다.
 가방을 땅에 놓은 금철이 잠시 섰다. 순간 세 녀자중에서 한 녀인이 뛰쳐나오며 소리친다.
 《오빠-》
 다시 가까와지는 오누이.
 《금숙아...》
 금철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 오빠지요? 내 오빠가 옳지요?》
 이윽고 금철이가 팔을 벌리며 목메여 부른다.
 《금숙아!》
 《오빠야!》
 와닥닥 달려가 금철의 품에 안기며 걱정을 쏟는 금숙.
 기자가 샷타를 누른다.
 붕-
 렬차가 떠난다.
 《옥주야-》
 차창으로 얼굴을 내민 승객들이 손을 흔든다.
 할머니와 의용군출신 장년이 눈굽을 닦는다.
 짹 그러안은 오누이.
 《오빠, 어데 갔다가 인제야 오셨어요? 예? 열밤을 자면 새옷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왜 인제야 오셨어요?》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이 오빠를. 내가 늦었

구나. 늦었어!》
 곁에 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
 기자도 눈굽을 문대며 계속 사진을 찍는다.
 노을이 불타는 농장마을의 저녁.
 금숙이네 집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금숙의 시아버지가 흡족해서 잔을 들고 말한다.
 《평생 사둔집나들이는 못가보는가 했는데 이렇게 오늘 끝끝한 사둔님을 만났소구려. 자, 사둔님.》
 권하는 잔을 찜는 금철.
 《애순이 할아버지, 의지가 없애는 애를 데려다 이렇게 훌륭한 살림을 차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라에서 다 키워 대학공부까지 시켜준걸 우린 눈한번 깜짝 안하구 제집사람으루 만들어버렸다니까. 여기 관리위원장이랑, 리당비서랑 아니였드면 떼울번했어.》
 《하하...》
 《하하...》
 순박하게 생긴 금숙의 남편이 금철에게 권한다.
 《형님, 기쁜날인데 몇잔 쪽 드십시오.》
 《고맙소. 애순이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금철의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 옷방에선 옥주와 애순이가 붙어 앉아 얘기한다.
 《이제부턴 내가 네 언니야.》
 《나두 이젠 언니가 있니?》
 《그럼 내가 언니라는데.》
 《이거 나 가져두 되니?》
 《음, 이담애 언니가 또 많이 가져다줄게.》
 《음, 음.》
 인형아기를 안고 노는 두 어린것에게 금철의 눈길이 미쳤는데 부엌에서 금숙이가 눈물젖은 얼굴을 돌리며 말한다.
 《오빠 더운국 더 들여보낼게.》
 《아니 됐다! 됐다!》
 오누이의 시선이 마주쳐 행복한 눈물이 짹 흐른다.
 이때 관리위원장이 한마디 한다.
 《가만, 오늘 제일 큰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기사 선생인데, 어데 갔소?》
 《예?!》
 《아니 아까 관리위원장동무랑 얘길 하지 않았소.》
 《여보, 기사선생이 어데 갔소?》

농장합숙.
 앉은뱅이책상앞에서 흥분하여 기사를 쓰는 기자.
 《…차창으로 얼굴을 내민 손님들도 오누이의 이
 눈물겨운 상봉을 축복해주었다. 어찌보면 남북으로
 갈라진 형제들의 통일상봉이 기이한 연줄로 앞당
 겨진 셈이다.

파연 이제 통일의 그날이 와서 갈라진 북과 남의
 형제들이 얼싸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어느 지경
 에 이르랴!》

밤.

잠든 마을에 오로지 불이 환한 금숙이네 창문.

금숙이네 방안

금숙이 남편이 흥분한 가슴을 달래느라 쭈그리고
 앉아 줄담배를 피우고 금숙이가 눈굽을 짖으며 오
 빠에게 살아온 지난날을 이야기한다.

《오빠가 떠난 뒤 친척이라는 그 집의 구박이 더
 심해졌어요. 어느날 난 배가 너무 고파 오빠를 찾아
 갈려고 그 집을 뛰쳐나오고말았어요. 그담엔 이집
 저집 빌어먹으며 다니다가 전쟁을 맞은거예요. 인
 민군대아저씨들이 아니었다면 전…》

《음.》

눈을 꼭 감고 얘기를 듣는 금철.

《오빠, 이 사진이 생각나세요?》

《음?!》

눈을 번쩍 뜨는 금철.

낡은 돌사진을 내놓으며 금숙이가 말을 잇는다.

《제 돌사진이에요.》

《지금껏 용케 전사했구나!》

사진을 쥔 금철의 손이 남모르게 떨린다.

불이 환한 금숙이네 집 창문.

고려호텔의 방

신문을 움켜쥔채 눈을 꼭 감고 움직일줄 모르는
 현덕.

만선이가 곁에서 말한다.

《이제는 그 녀인이 자네 동생이 아니라는걸 확신
 하나?》

《후-부끄럽네. 것처럼 고결한 그 녀인의 가슴에
 다 이 못난것이 오빠라고 왜가리처럼 소릴 질렀으
 니 …》

《동생을 그리는 자네의 심정이 하두 절곡해지다
 보니 어머니얼굴과 그 녀인의 얼굴이 혼돈된걸
 세.》

《아. 그러면 내 동생은 어데 있단말인가? 죽었던
 말인가?…》

현덕이 마주선 창문에 비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1부 끝

가사

조선의 꽃

리진화

붉은 꽃술 안고 핀 하얀 꽃잎은

충성으로 불타는 우리의 마음

향기풍겨 수령님께 기쁨드린 꽃

아 목란꽃 조선의 꽃이어

새봄의 정서 안은 푸르른 잎은

나날이 젊어지는 나라의 기상

열매맺어 수령님께 기쁨드린 꽃

아 목란꽃 조선의 꽃이어

비바람 막아선 굳은 네 줄기

절개높은 인민의 신념의 상징

송이송이 수령님께 기쁨드린 꽃

아 목란꽃 조선의 꽃이어

분단시대 시의 꿈과 정치적신화 문익환, 김준래, 안도현의 신작시집

리동순(남조선)

1

나는 얼마전 청주의 어느 고물상앞을 지나다가 문득 들려 이것저것 뒤지는중에 우연히 두장의 낡은 축음기판을 구하였다. 무수한 허섭쓰레기와 잡동사니 고물들름에서 그것은 용케도 깨여지지 않은 채 곰팡이와 먼지를 뒤집어쓰고있었다. 집에 품고 와서 비누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본즉 그것은 놀랍게도 1945년 8월하순무렵에 찍어낸 리주홍작사의 《독립의 아침》과 장비 진례훈이란 가수가 노래한 《해방의 노래》, 시인 리동규가 지은 《우리의 노래》, 시인 박아지가 지은 《농민가》 등이였다. 당시 해방이 되었다고는하지만 SP 판을 찍어낼 시설과 기술이 변변치 못하여 일본 동경의 정교호총정에 있었던 리베라 레코드사에 위촉하여 이판을 찍어왔었는데 이 음반에 그려진 상표가 어떤것이냐 하면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그려놓은 지구우에 려명을 알리는 새벽닭 한마리가 목을 길게 빼고서 있는 주홍색 그림으로 꽤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중에서 《독립의 아침》을 나의 낡은 꼴롬비아 축음기우에 걸고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으며 새로 바늘을 갈아끼운 사운드박스를 천천히 올려놓았다.

음반이 78회전의 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축음기의 나무통속에서는 지금부터 40여년전 그날의 감격이 생생하고도 우렁차게 흘러나왔다.

잔학한 채족밀에 울던 사십년
열어진 이 강산에 새봄이 왔네
...

높이 들어라 자유의 기발
크게 불려라 해방의 노래
-해방기념가요 《독립의 아침》부분-

무수한 굵힘과 시간의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잡음투성이인 《독립의 아침》, 《해방의 노래》를 들으며 나는 그날의 그토록 감격속에 순정적이던 해방과 독립의 정신이 오늘들의 우리들 가슴속에 과연 얼마나 남아서 유지되

고있는지를 꼼꼼히 되짚어보았다. 또한 1945년 8월중순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40여년동안 우리가 격었던 모진 수모와 민족사의 전반에 걸쳐 가해진 핍박과 생채기를 생각했다. 《독립의 아침》노래말을 지은분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해방의 노래》에 곡을 붙인분은 진작 우리와 살지 못하니 이른바 《해방 40여년》의 세월은 마치 축음기판에 가해진 굵힘과 부대낌의 상처처럼 피학적시간들이 아니였을가. 1945년 10월 10일 시인 조령출은 자신이 쓴 한편의 시를 통하여 식민지의 《슬픈 력사가 어느덧 끝나고 있음을 밝힌뒤에 과연 《슬픈 력사》의 밤은 밝았다고 할수 있는것인가? 라는 설의적문제로써 해방이라는 외피속에 감추어진 반력사적성격을 암시적으로 지시한다.

지금 오! 지금
이 슬픈 력사의 밤은 새다

보라 저 푸른 하늘
저 기발 꽃힌 지붕을 넘어오는
붉은 태양

오! 붉은 태양아
슬픈 력사의 밤은 영원히 밝았느냐?
-조령출 《슬픈 력사의 밤은 새다》의 부분-

2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기간보다 훨씬 더 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수 없는 분단시대의 시간적분량은 너무도 무거운 하중으로 불안한 부피로 지금 이 시각 우리들 삶의 전반을 내리누르고있다. 해방 40여년, 아니 분단 40여년동안 분단이라는 불안한 그들은 단순히 국토와 민족의 현상적분열상태로만 있어온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적 삶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모든 생명적구조와 유기적관계가 더이상 제스스로의 힘을 발휘할수 없도록 완벽히 분리 해체 말살시키려는 력사의 초토전을 감행해왔다. 이러한 분단이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 우리 력사에 관한 문제

이기에, 지금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이 엄청난 장애물로서의 분단을 청산해야 할 일차적책임은 곧 우리들자신에게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의 상당수는 분단체제자체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또는 분단체제를 이제 더이상 바뀌어질수 없는 결정적현실적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여 이 불행한 역사를 연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으니 우리는 먼저 분단체제하에서 40여년이상 별다른 각성이 없이 맹목적으로 계속되어온 문학의 현실매몰현상을 크게 우려한다.

문학의 현실매몰현상이 드러내고있는 주된 특성은 비관주의, 체념주의, 패배주의, 랭소주의, 극단적보수주의따위의 소모적가치관들이다. 분단시대 문학이 요구하는 진정한 역사인식이란 분단체제전반에 대한 막연한 수용과 앞서의 부정적가치관을 랭정히 뿌리치면서 동시에 분단시대야말로 《끝끝내 청산되어야 할 시대》임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문학적작업을 통한 분단극복의 구체적방향을 모색하는것이다.

최근에 나온 세권의 시집은 이러한 방향모색에 대한 암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문익환의 《두 하늘 한 하늘》(창작과 비평사), 김준태의 《칼과 흙》(문학과 지성사), 안도현의 《모닥불》(창작과 비평사) 등이 그것이다. 이 세권 시집의 기본인식은 정치신화는 짧지만 맑고 순정한 인간정신 즉 시의 꿈은 영원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분단시대에서의 시의 꿈은 결코 평화로울수가 없다. 왜냐하면 분단의식을 떨쳐버릴수 없는 시인의 꿈이란 발자크의 지적처럼 보다 더 큰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항상 《고통스럽게 떠도는 정신》으로 이루어지기때문이다.

사실 시인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것은 곧 분단이라는 사실이지만 그 분단의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형태로 떠오르는것은 다름아닌 허황되기 짝이 없는 신화적사고를 펼치려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이다.

그들이 조작하는 과학적지식과 철저히 계산된 기술적정복파위가 나날이 승리를 구가하고있는것처럼 보이는 요즘, 이성적사고는 현대인의 생활저변에서 아주 빛바랜듯 여겨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정치적인신화의 중요한 부분에 깔려있는 원시적암매성 즉 단순성을 잘 알고있다. 이러한 정치적인신화의 단순성이 인간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통치의 모순을 만들어내고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인류문화사의 과도기적전개과정에서 정치적인신화와 시의 꿈은 자주 대립하면서 서로 도끼눈을 하고

엿보는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것은 틀림없이 신화를 창조해낼수 있는 시의 기능에 대하여 정치권력이 지레 겁을 먹고있음을 말해준다.

정치는 오직 자신의 권력에 의존하여 인간을 조직화시키고 지배하려들지만 시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초시간적인 방향에서 인간의 혼을 압도하는것이다. 이러한 시의 기능을 바라보는 정치적인신화는 매우 부러운 선망의 눈빛을 가지지만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짐짓 번뜩이는 감시의 눈빛으로 불안하게 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기실 정치적인신화는 시의 기능에 내재한 정치적감화력을 은근히 빌리려고 한다. 언어연금술을 통해 단련된 문제의 마술성을 그들의 지배통치수단으로 유용하려드는 정치적인신화는 아울러 시가 지닌 집단감화력 혹은 인간과 인간존재와 존재간의 매개, 공감, 감응력 따위를 별도로 떼내어 그들의 통치구조를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정치적인신화의 구축에 여념이 없는 소수 엘리트들이 즐겨 창출해내는 성명서, 담화문, 국정연설문, 미리 마련된 기자회견내용의 원고, 표어, 구호, 선언서따위는 얼핏 보기에 대단히 현란하여 그것을 보는 대중들이 그속에 은폐된 허상을 전혀 눈치챌수 없도록 한다. 그들의 문제는 겉꾸밈, 내허위식의 연약하고 경박한 구조물들로 가득차있으며 대개 실속없는 분식과 교묘한 외식으로 꾸며져있다. 그것은 마치 고대문명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던 진실성이 결여된 변론술. 특정한 체제의 리념을 대변하는 서사시, 허황된 궤변으로 가득찬 웅변 따위와 적절히 비교되는데 이것이 현대사회로 넘어와서는 성명서, 담화문따위 정치적인신화의 직접적인 문제와 또 그 교묘하게 위장된 유치한 문제들이 아무런 걸려넘이 없이 거의 전적으로 반영되어있는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순정하고 맑은 인간정신을 갈망하는 시의 꿈은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의 정치적인신화의 부조리와 은폐된 모순을 고발, 폭로, 비판하고 풍자와 은유, 야유와 랭소따위로 그들의 구조적인 악을 성토한다.

불안정한 시대에서의 시의 꿈이 이러하므로 정치적인신화는 그들이 장악하고있는 이른바 《공권력》이라는 물리적힘을 총동원하여 시의 꿈과 리상을 항상 넘려하고 두려워하며 매양 흘깃거리며 눈치를 살피고있는것이다. 자칫 그러한 감시의 고삐를 늦출 때 시의 꿈은 매우 불손하게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배에서 얻어지는 리익과 기득권유지에 실로 막대한 손상을 끼친다고 그들은 믿고있기때문이다. 기실, 신문, 방송 등의 표면을 거의 가득채우다싶이하는 그들의 선언문, 성명서, 포고문, 담화문따위의

문제가 얼마나 경직된 방식의 표현인지 그들은 미처 감각하지 못한다. 경직된 문제자체를 그들은 일종의 권위따위로 믿고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우와 같은 문장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직된 문제의 방식부터 풀어야 할것이다. 《경직》이라는 성격자체가 이미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민중들의 귀와 가슴으로의 연결을 제물에 차단해버리며 앞서 레를 든 문제들의 리면에 가려진 내허의 로출을 너무도 쉽게 만들어버리기때문이다. 온갖 정치적 음모, 술수, 조작, 집단조종술따위가 내허의 빈약한 내용임을 웬만한 사람들은 곧 알아차리지만 누구도 그러한 사실을 쉬 발설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리적공권력이라는 철퇴가 늘 호시탐탐 배면에 도사리고 위협을 가해오기때문이다. 하지만 꿈과 리상을 추구하는 시인들만은 물리적공권력 혹은 덧없는 정치적신화를 획책하는 집단들의 가련한 수명을 진작 알아차리고있으므로 파감하게 정치적 모순과 비리를 고발하고 풍자한다. 이로 말미암아 문인들의 창작활동은 늘쌍 탄압받고, 도서출판검열이 계속되며 원고, 지형, 간행물들은 압수를 당한다. 기습적가택수색이 불시에 이루어지며 문인을 련행, 구속, 고문하는 가혹한 유린행위가 설사이없이 자행된다.

이러한 일은 봉건왕조시대에도 그러했고 특히 일제강점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한 레를 들면 1930년 6월 15일자로 발행된 국판 149쪽짜리의 《언문신문의 시가》라는 책을 들수 있다. 이 책자는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발행의 비밀문서책자로서 정규출판물이 아니다. 총독부당국이 1930년 1월부터 3월까지 불과 3개월동안 《동아일보》, 《조선일보》, 《증외일보》의 세 신문에 실렸던 시작품중에서 검열에 적발된 134편의 시를 (1) 조선의 독립 《혁명》을 풍자하여 단결투쟁을 종용한것, (2) 총독정치를 저주한 배일적인것, (3) 빈궁을 노래하고 계급의식을 도발한것 등 세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일역한 하나의 식민지통치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책이다.

1930년은 일본의 5대총독 사이토가 통치하던 시기로서 이른바 기만적인 《문화정치》가 전개되던 때였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은 오직 헌병과 경찰에 의한 전체주의체제의 무단통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으로써는 도저히 계속적인 지배가 불가능했을뿐만아니라 일제가 당면한 국내외의 각종 모순과 대립을 극복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한민족의 상층부를 회유하고 민족내부의 분렬통치를 강화시켜나가는 교활한 방법을 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제의 이른바 문화정치라는것이 결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나 식민통치의

기본방침을 수정하는 변화가 아니였음은 물론이다. 해군대장출신의 일본군벌 사이토는 일찌기 1919년부터 1927년사이에 제3대 조선총독을 지내며 온갖 교활한 술수의 정책을 편바 있다. 그런 그가 야마나시의 2년 통치기간을 지나서 또다시 조선총독으로 부임해왔던것이다. 군사엘리트인 사이토는 일찌기 그들이 기초한 《신문지법》, 《출판법》, 《조선인 예약출판에 관한 법규》, 《조선 불온문서 립시취체령》, 《불온문서 립시취체법》 등을 간교하게 리용하여 식민통치하의 언론, 출판, 문화활동을 탄압하였고 또 탄압의 기준은 매개 공공안녕질서의 문란파위와 관계되는 리유였다. 일제는 이 현령비현령식의 아홉개 항목을 만들고 그 항목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가차없이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치안유지법》 따위의 서슬푸른 법령으로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었다.

이러한 실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신화의 물리적힘이 일견 시의 꿈을 제압하는듯 보이지만 정치적인신화는 그자체의 루적된 모순과 부조리때문에 얼마 못가서 제물에 붕괴되고마는 한시적체제이다. 한때 서슬푸르던 정치적인신화가 무너지고난 뒤에도 시의 꿈이 뿔어내는 무한한 생명력과 신선한 힘의 실체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남아서 여전히 맑고 순정한 정신으로 인간의 삶의 내부에서 심심하게 작용하는것이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일찌기 1945년 10월 10일 시인 조령출이 절규했던 《슬픈 력사의 밤》이 아직도 완전히 밝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는 분단 40여년의 세월동안 모두가 한결같이 침묵으로 웅크리고있을 때 시인만이 입을 열어 분단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남북을 통일하는 꿈을 꾸고있지 않았던가 하는 허전함이다.

3

력사를 산다는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
 라구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
 라구
 맨발로 바위를 걸어차 무너뜨리고
 그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냇만은 살아 자유의 기발로 드높이
 나뭇기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력사를 산다는건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시집 《두 하늘 한 하늘》의 서시로서 레외적으로 목차앞에 편집된 이 시는 시집의 전체적 성격과 지향을 온전히 대변하고있다. 이 시집에 수록된 55편의 시작품들은 대체로 시가 단지 아름답기만해서는 모자라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필요가 있으며 듣는이의 령혼을 뜻대로 이끌어내아가야 한다는 호라티우스의 시법을 불만없이 따르고있는듯하다.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는 시적인식과 실천적 행위로서의 완벽한 합일을 보여준 작품이다.

략력에 나와있는 그의 경력이 목사, 신학대학교수, 민통련 의장, 전민련 상임고문 등으로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표할수 있는 가장 뚜렷한 경력은 역시 시인이다.

지난 3월, 그가 자신의 시에서 예언한 그대로 평양을 방문하여 한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의 방북을 《느닷없는》 결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73년에 발간된 그의 첫시집 《새삼스런 하루》에서 이번의 제4시집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과 도합 세권의 산문집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의 방북이 결코 세간의 호들갑스런 반응처럼 《느닷없는》 돌발성이나 충동적인것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다. 《꿈을 비는 마음》(1978)이라는 시집과 《꿈이 오는 새벽녘》이라는 옥중서한집의 표제에서도 나타나는것처럼 그는 《꿈》의 시인이다. 시인 문익환은 확실성과 분석을 신봉하는 지성의 소유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물신숭배의 생활태도를 단연코 거부한다. 그는 그의 감각속에 떠오르는 무수한 기억, 상상, 꿈, 열병 등을 새로운 정서적가치로서 재생산하려 한다.

그의 꿈이 지향하는 세계는 오늘날 이 땅의 오욕과 수치로 점철된 분단을 허물고 모든 참생명들이 하나로 어울어져 합일되는 통일세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세계를 꿈꾸는 시인 문익환의 가슴속은 항상 따뜻하고 눈물겨우며 애뜻한 이미지들로 가득차서 넘실거린다.

문익환의 시작품에 나타난 꿈의 이미지들은 결코 헛되고 부박한 공상이 아니다. 공상적이미지의 성격은 여러 이미지들의 결합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면서 이 이미지의 결합자체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문익환 시의 이미지들은 단순한 물질적류사성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정신적 가치를 독특하게 지니며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세계에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한다. 그러므로 그의 시적이미지가 형성하는 꿈은 자연스럽게 민족적상상력의 세계로 귀착된다. 진정한 력사적삶의 절차와 그 총체성을 안정된 호흡으로 노래

한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조국애의 꿈을 노래한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등이 바로 그러한 본보기가 된다. 시인은 뒤의 시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나라의 꿈을 버리면 우리는 없다》고 단정한다. 물리적공권력보다 한층 더 큰 힘을 민중들이 천부적으로 갖고있음을 일깨워주는 시 《지금은 분명 거부할 때입니다.》와 바위 바람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생명의 실체와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시 《존재의 근원》도 또한 꿈시리즈의 한 계열이다. 도대체 꿈은 어디에서 오며 무엇때문에 꾸어지는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절망과 랑패감은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인은 몽테를랑의 어법을 구사할는지도 모른다. 《꿈은 불만족에서 나오는것입니다. 만족한 인간이 어찌 꿈을 꿀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과연 이 분단사회의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수가 있단말입니까?》 그렇다. 시인 문익환의 꿈은 바로 분단사회의 시대현실에 대한 온갖 불만족에서 시작된다. 분단체제가 통일조국으로 바뀌는 희망, 그것이 시인 문익환의 가장 순정한 꿈인것이다.

그의 목숨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러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또한 그의 절대적인 꿈인것을.

나는 죽는다
나는 이 겨레의 허기진 력사에 묻혀야 한다
두동강 난 이 땅에 묻히기전에
나의 스승은 죽어서 산다고 그러셨지
아-
그 말만 생각하자
그 말만 믿자 그리고
동주와 같이 별을 노래하면서
이밤에도
죽음을 살자

- 《마지막시》 전문-

시인 문익환에게 사랑하는 신화가 있다면 그것은 평화, 자유, 정의, 진리의 사랑 등속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러한 신화이외의 모든 정치적신화를 거부한다. 문익환에게 있어서 시인적직관으로서의 꿈이 오는 과정은 역시 제2시집에 수록된 《나의 별들아》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뒤척이던 어느 잠결에
너희는 내 귀속에 들어와
맑은 종소리로
새벽을 쳐대느나

- 《나의 별들아》 부분 -

조선조 리규경이 엮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꿈이란 사람들이 잠들 때 유혼의 변동으로 생긴다고 한다. 대체로 꿈의 경계는 몸이 심상에 노닐 때 생기는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노니는 한계가 멀지 않아 오장육부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이목시청의 문을 출입할뿐이라고 한다. 시 《나의 별들아》의 인용문은 시인의 꿈이 발단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시인의 《이목시청》에서 《맑은 종소리》로 형상화되는 꿈은 차츰 《맑고 싱싱한 꿈 한자리/평화롭고 자유로운 꿈 한자리》의 공간으로 발전해간다. 시 《꿈을 비는 마음》의 서두는 꿈의 형상화과정을 극명히 그려내고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개똥같은 래일이야
꿈 아닌들 안오리요마는
조개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같은 꿈으로 잉태된 래일이야
꿈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 《꿈을 비는 마음》 1련 -

시인은 이 시에서 도합 세가지의 《어처구니없는 꿈》을 꾸어본다. 첫번째의 꿈은 지난날 격전을 치른 분계선의 어느 한 지점에다 《국군》의 피가 젖은 북녘땅 흙 한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땅 흙 한삽을 함께 합장을 지내는 꿈이다. 이 꿈은 남북의 적대적인장관계를 해소할수 있는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실적꿈이다. 두번째의 꿈은 가장 깨끗한 동남동너들의 혼례의 꿈이다. 세번째의 꿈은 남북 양쪽 군대의 무덤을 합장한 민족성지에서 솟구친 샘물이 큰 바다를 이루고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꿈이다. 이 꿈의 몽상적화면들은 결코 허황된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질수 있는 민족적리상이다.

《두 하늘 한 하늘》의 제3부로 엮여진 《밥알들의 량심》편 수록본 아홉작품들은 소위 《민족적량심》이라는 문투의 내면에 깃들어있는 진실성의 현시이다. 량심을 소재로 한 시편들의 제재는 각각 땅, 밥알, 바람, 나무, 어머니, 당신, 오월, 꽃따위의 비근한 사물들이다.

진정한 비무장의 의미와 통일조국의 활기찬 꿈을 그린 시 《비무장지대》를 읽으며 우리는 당나라 시인 잠삼의 아름다운 서정시 《춘몽》을 련상한다. 《간밤에는 봄바람 불고/아득히 상강의 물이 그리웠어요/거기에 계신 님이 몹시도 그리웠습시다/그리

기에 잠간을 조는 사이에도/몇천리 강남땅을 갔다왔지요.》이 시에는 대상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과 그 그리움때문에 몽매에도 잊을수 없던 강남땅을 꿈결에 다녀왔다는 애뜻함과 눈물겨움이 있다. 시 《비무장지대》가 그려내고있는 국토 완전비무장화의 꿈과 북남군대 합동축제에 관한 꿈은 분단극복과 민족재통합의식으로 구체화되면서 자연스러운 한쪽의 시적절경으로 되살아난다. 그러나 시인의 꿈이 이승에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때 그 좌절과 랑패감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시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략관적인 회답을 들려준다.

당신은 질수가 없어요 질수가 없어요
정 안되면 병균과 함께 죽으면 되는거지요 뭐
죽어 흙의 평화로 돌아가면 되는거지요 뭐
흙의 평화로 돌아가 새봄이 되면
풀잎으로 숨쉬고 꽃잎으로
웃음을 날리면 되는거지요 뭐
당신에게는 승리가 있을뿐입니다.

- 《조국이 앓고있습니다》 부분 -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질은 암시가 면면히 배여있는 이 시는 《당신은 갓습니다》, 《두 하늘 한 하늘》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된다. 북녘에 두고은 고향을 못내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난 부친에 관한 쓸쓸하고 쓰라린 상상력으로 전개되는 《두 하늘...》은 후반부의 부친 회답부분에서 《내 왼쪽눈에서 왈각 쏟아지는/남녘하늘/ 내 오른쪽눈에서 왈각 쏟아지는/북녘하늘》이라는 설화적상상력의 세계로 슬픔의 고통을 이겨낸다. 그것은 마치 민간 구비전승 주문의 하나인 《죽귀송문》의 서두에서 옥황상제가 《일광으로 우목하고 월광으로 좌목하니》하는 대목을 련상시킨다.

결국 시인 문익환이 그의 시집에서 추구하고있는 시의 꿈은 련악한 조건을 모조리 갖춘 황폐한 분단시대에서 홀로 외롭게 웅치는 선지자의 꿈이다. 그의 시에서 영원한 소멸대상으로 떠오르는것은 칼, 죽음, 무장, 분단따위이다. 이에 반하여 즐기찬 복원대상으로 떠오르는것은 땅, 흙, 밥, 비무장, 어머니, 아버지 등 순정한 이미지이다. 문익환은 그의 시세계를 통하여 소멸대상으로서의 불순성을 영원히 소멸시키려 하고 복원대상으로서의 순수성을 극진히 보듬고 키워가려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익환 시인이 자기자신을 가리켜 순수예술론자로 여기고 있는 대목은 순리적으로 납득된다.

나는 여전히 순수 예술론자입니다. 순수를 그리

워하는 마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비순수와 담을 쌓고 지내는 빛바랜 순수가 아니라 모든 불순한것을 불살라버리는 불길의 순수 말입니다.

-시집 《꿈을 비는 마음》 86면, 《둘째 시집을 내면서》-

시간적초월성으로 되살아나는 그의 시에서의 복원대상은 때로 꺾박받는 현실에 몹시 시달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가 결국 웃음과 평화의 세계를 확보하여 승리를 구가하게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않는다.

4

문익환의 시에서 우리가 복원대상과 소멸대상의 도덕적처리를 볼수 있었던것처럼 시인 김준태의 시집 《칼과 흙》에서도 이러한 도덕적처리는 분명한 구도로 파악된다. 시인에게 있어서 일곱번째가 되는 이번 시집의 77편 시작품들은 대개 비정하고 도전적인 금속성의 세계와 곳곳한 생명력으로 넘실거리는 대지의 세계와 대비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시집의 맨 앞에 수록되어 이 시집의 정신적지향을 암시해주는 다음작품을 보자.

밭고랑에
씨앗을 던지면 짝이 트지만
총칼을 던지면 녹슬어버린다
- 《서시》 (발 1)전문-

이 시의 문맥에서 《씨앗》이란 농업의 생산성,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생명력, 유기질이 내포하고있는 창조의 잠재성따위의 의미와 관련되어있다. 이에 반하여 《총칼》은 차디찬 금속으로 이루어져 농업의 생산성을 망가뜨리고 인간과 못 존재의 생명을 차단해버리며 유기질의 창조적잠재성을 소멸시켜버린다. 《총칼》의 특성은 비정하고 잔혹하며 팽팽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씨앗》은 아무리 곤혹한 국면에 시달릴지라도 다정과 온유의 덕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무기》를 장악하고있는 사람들은 군인이고 《종자》를 품에 안고 보듬는 사람들은 농민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바 있는 정치적신화와 시의 꿈을 상기할수 있다.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허망한 정치적신화를 기도했던 이들은 거의가 제복을 입은 군인이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씨앗》을 품에 보듬었던 농민들은 모진 꺾박을 받았다. 시인은 기실 무기와 씨앗의 대비를 통하여 시인이 당대의 삶에서 경험했던 암울한 역사를 시적상징으로 증언하고있는것이다. 첫시집 《참깨를 털면서》(1977)이후 그가 줄곧 지

속해온 평화와 폭력간의 갈등에 관한 일관된 주제가 제6시집 《아아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1988)이후 한층 선명한 상징으로 조정이 되면서 절제된 관념의 극화에 성공한다. 시인은 이 시도를련작시 형태의 《발시》 시리즈 52편속에 의욕적으로 압축시켜놓고있다. 《서시》에 나타난 시정신은 《발시 29》, 《45》, 《52》들로 줄기차게 이어진다.

땅우에/씨앗을 뿌리면/발이 되지만
땅우에/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총칼이 쌓인다.

- 《땅의 생리》 (발시29)전문-

시는/쇠불이의 굴뚝에선 나오지 않는다/시
는 대지의 밑창에서 태어난다.

- 《시》 (발시45)전문-

칼과/흙이 싸우면/어느쪽이 이길가
흙을/찌른 칼은/어느새/흙에 붙들려/녹슬어
버렸다

- 《칼과 흙》 (발시52)전문-

우리는 시에서 묘사된 끝끝내 《흙에 붙들려 녹슬어버린 칼》에서 칼의 완전한 패배와 흙의 당당한 승리를 꿈꾸는 시인의 리상을 미덥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그러한 상상력에 동의한다. 애초부터 《칼》의 순간성은 《흙》의 영원성에 맞설수 없는 불품없는 사물이 아니던가. 예언자적 잠언풍의 호흡이 시인의 의도를 감싸고 떠받쳐가는 작업에 훌륭한 조화를 부여한다. 김준태의 시에는 항상 일정한 관념이 규모있게 유지되고있지만 결코 그 관념이 현학성에 빠지지 않고 정박한 포즈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그것은 아마도 시 《밥》(발시7)의 후반부에서 묘사되고있는 《보리밭에 숨은 잠부기》, 《논고랑에 쌓이는 들기러기의 깃털》 혹은 밭에까지 와서 누는 참았던 《오줌 한방울》(《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짓말같은 정말이야기-발시12》) 따위와 같은 매우 섬세한 사물에 대한 다정다감하고도 정서적인 배려를 그가 잊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밥》시가 보여주는 분배의 평등성에 관한 선협적각성과 《쟁기질》(발시18)에서 나타나는 궁경의 행위에 관한 신성한 일깨움 등의 관념이 결코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묘사된 한부분처럼 우리 시대의 《어둠밭》을 가는 시인이다. 이러한 세계를 지향하는 그의 모든 관심의 축수는 《살아있는것들의 입맞춤과 그리움과 아우성》(《런가-발시19》)

들로 통합되기 위해 눈→가슴→뼈 났의 과정으로 발전되어가는 행위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이 불안의 시대에서 문학이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있단 말인가? 시인은 시 《산자와 죽은자》(발시44)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학이란 부당하게 죽은자들에 대한 살아남은자들의 《부끄러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왜 이러한 부끄러운 문학이 생겨나는가? 시인은 그에 대해서 문학이 《대지의 밀창》에서 태어나지 않고 《쇠불이의 굴독》에서 아무런 고민없이 방출되기때문이라고 여긴다. (《시-발시 45》)이 대목은 우리들에게 역사의 엄숙성과 문학의 소모성에 대한 불같은 경각심을 일깨운다.

《발시 21》과 《발시 51》이 보여주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통합은 동시대를 고뇌없이 살아가고있는 우리들모두에게 경건히 천명을 깨닫게 한다.

왜 우리들은 밤낮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헐뜯고 할퀴는가. 무엇때문에 사소한 분렬을 방치 확대하여 급기야 국토와 민족의 분단에까지 이르게 하였는가. 우리들은 원래 아름다운 통합속에서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시인은 이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며 이 미옥한 분렬이 우리를 곧 자멸로 빠뜨리게 하는 원흉임을 강변한다.

우리가 우리의 살덩이를 뜯어먹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노래를 구겨버리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찢어발기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피눈물을 똥물로 뒤덮지 말자

...

적들은 밤낮으로 총구멍을 닦고 칼날을 갈고 있는데

적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밥과 사랑과 목숨을 엿보는데

아아, 우리여 왜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야 하느냐
잡아먹어야 하느냐

...

우리여 우리여, 우리들이여!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이여 눈보라여 주먹이여 깨뜨려질수 없는
피덩이여!

- 《탄식》 부분 -

상쟁이 아니라 상생의 세계로 우리네 삶의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열정적확신에서 이 시의 정신적기초가 세워진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한 열정적확신의 표현이 결코 공연한 노호와 시 형태의 피기적과피, 인간정신의 소모적자해행위따위로 방출되어선 안된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있다. 시 《나란히 살아가기 위하여》의 호흡전체를 관

류하고있는 다정다감한 시적화법에서 우리는 시인이 꿈꾸는 상생의 세계와 해원의 정서를 동시적으로 경험한다.

시집 《아아,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에 수록된 시편들, 이를테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종달새와 손수건도 사람》, 《인간은 거룩하다》, 《꿈꾸는 그대》 계열의 작품들에서 이미 상생해원의 정서는 키 큰 정신의 높이로 이루어지고있었던것이다.

오오, 이 세상은
아이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와 산봉우리로 가득하고
밭고랑에 씨앗을 놓는
아버지와 봄비와 하느님으로 가득하다
-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것은 하나도 없다》 부분 -

우리는 이처럼 순정한 시인의 꿈이 결코 훼손당하지 않도록 정치적신화의 허황한 계획과 그들의 실책을 미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인이 꾸는 꿈이 야말로 곧 우리네 삶이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궁극적인 지점이므로 정치적신화의 허황된 계획의 저질러놓은 단 한번의 실책때문에 수천만의 동족들이 오랜 시간을 고통과 불행과 참담 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일은 이제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김준래의 시에서 소멸대상으로 떠오르는것은 쇠불이, 총칼, 무기, 탄식, 분렬, 정치적신화에 의해 휩박받는 아우성따위이다.

이에 대립되는 복원대상은 씨앗, 밭, 조국, 대지, 인간(농민), 그리움, 정의, 평등의 관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한 관념들은 남도소리군 특유의 걸걸한 가락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고전적인문제로 짙은 정감과 호소력을 지니고 우리들의 오관을 향해 다가온다.

5

안도현시집을 인상깊게 읽었다. 지난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나던 해에 태어나서 성장한후 시인이 된 이 젊은 시인은 문단경력 다섯해째가 되는 올해에 그의 두번째 시집을 냈었다. 《모닥불》이 그것이다.

도합 4부 구성의 55편을 수록하고있는 이 소박한 규모의 시집은 시집에 담겨있는 시인의 맑고 순정한 꿈도 꿈이려니와 오늘날 무수한 상처로 일그

려진 《한국》시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 그리고 그의 시적감수성이 보여주는 싱싱함과 애뜻함은 우리 시대의 《한국》시에 대한 작금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준다.

안도현도 문익환, 김준태와 마찬가지로 꿈의 시인이다. 하지만 그의 꿈은 정치적신화의 망상에 대한 직접진술이나 통매적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물들의 애처로운 표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반영된다. 그의 시적묘사의 바탕에 잔잔히 깔려있는 따뜻한 사랑은 모든 소외된 사물들을 듬뿍 감싸고 적서준다.

정신적신화의 구축에 여념이 없는 이른바 《소수의 대표자들》은 걸핏하면 소외된 사물들의 전체를 장악함으로써 헤겔의 말처럼 《다수의 략탈자》가 되어 위협을 가해온다. 《자기가 모두이며 다른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그들 《소수의 대표자들》은 항상 부릅뜬 눈으로 소외된 사물들을 굽어보며 그들의 지지자들과 더불어 독재정치, 귀족정치의 아성을 굳혀가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말할것도 없고 사회적삶의 모든 면에서 금권주의, 패권주의, 실적주의 따위의 독서가 만연하여 인간정신이 병들고 죽어가게 된다. 시인이자 교사인 안도현이 특별히 남다른 관심을 갖고있는 교육문제의 온갖 병적증상들도 앞서말한 정치적모순과 부도덕 혹은 그들의 폭란에서 기인한 것이다. 망실된 인간정신과 삶의 황폐화앞에서 교육은 레외가 아니라 다른 어느 국면보다도 훨씬 큰 충격과 상처에 시달린다. 시인은 교단에 서서 이러한 고통을 어린 학생들과 함께 겪으며 그자신이 온갖 풍상우로 속의 어리고 가냘픈 초목들을 넘어지지 않게 부여잡고 폭풍우를 이겨가려 하는 원정임을 깨닫는다.

산당화야
산당화야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 혼나고, 너도
수직실 처마밑에 나와섰구나
할 일이 많아서
그리많은 꽃송이를 달고
몸살난듯 꽃잎들이
뜨겁도록 붉구나

- 《산당화》 전문-

이 시는 교직의 애처로운 서글픔과 고뇌를 감동적으로 노래한다. 학교교정에 쓸쓸히 핀 한그루 《산당화》는 시인을 포함한 이 나라 모든 평교사들의 모습이며 동시에 비민주적교육환경의 악조건에서 파리한 실조증에 걸려있는 학생전체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비인간화를 재촉하고있는 서슬퍼른 관료주의 혹은 질책주의 형태의 교육현장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모든 학교가 그러하듯이
월요일 아침이면 애국조치가 열리고
필력이는 기발아래
아무것도 모르는 가슴에 손을 대는
일제치하 어린 학동 교장선생님이 그러하였듯이
분단 나라 젊은 《국군》 담임선생님이 그러하였듯이
촉백나무처럼 오와 렬을 맞추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코끝이 맵고 발이 시린 겨울
- 《이리중학교》 부분-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늘 변하지 않는 《겨울》속으로 《낯은 외투를 입고》 출근하고 그의 옆으로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겹게 등교하는 학생들이었다. 《겨울》속의 그에게 부과된 일은 《한 달에 스무시간 보충수업》과 조회때마다 전달하는 지시사항 그리고 수업료, 보훈성금, 방위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극기훈련비, 수학려행비, 졸업알범비등 현금수납행위 따위이다. 이런 자신을 향해 《누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나》라고 쓸쓸히 반문한다. 이러한 죄의식은 《월급날》의 《서무실 가서 도장 찍고 봉투받는 날》 더욱 깊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최후의 희망은 어린 학생들이며 제자들에 대한 신선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점심시간후 5교시는 선생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수직실이나 양호실에 누워 끝도 없이
잠들고싶은 마음일 때 아이들이 누굽니까, 어린 조국입니다.
참꽃같이 맑은 이 몸으로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철 덜든 나를 꽃피웁니다

- 《봄편지》 전문-

진눈까비속에서 졸업식이다
붉고 큰 꽃다발 가슴으로 슬프고 기쁜 기념사진을 찍는다
식구들과 한판 벼들과 한판 그리고 독자진도 한판
발등에서 머리끝까지 밀가루 하얗게 뒤집어쓰고
눈발처럼 키득거리는놈도 있다, 평소에 밥먹듯이 매맞던 녀석이다

그래도 장차 시대구분할 임자는
이 흥청되는 아이들중에 있다
내 눈에는 이 튼튼한 장정들의 아침의 나라
가 보인다

- 《2월》 전문 -

지금은 비록 《소금에 잘 절여진 열무김치같은 아이들》(《보충수업》)이지만 시인은 운동장으로 일시에 쏟아져나오는 《팔팔 터진 물고》(《운동장에서》)의 물살과 같은 어린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다. 이러한 튼튼한 믿음이 자리잡고있기때문에 시인은 짐짓 모순형용어법으로 학생들의 모습을 가리켜 《저 아름다운 폭도들》(《운동장에서》)이라고 일컫는다. 이렇듯 진실한 믿음과 확고한 교육관이 바탕이 되어있으므로 《지평선너머》에서 묘사된바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견딜 수 없는 절대고독속에서도 그 고통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는 삶의 긍정이 가능한것이라.

힘겨워도 기어이 기어이 굴뚝이 저녁연기를
밀어올리는
지평선너머
먼 개짖는 소리
경경 들판을 건너오는것은
아침에는 어김없이 일어나 개밥 말아줄 사람
이
지평선너머 있다는 말이구나
그 마을로 별똥별이 여럿 뛰어내리다 숨는 밤

- 《지평선너머》 전문 -

안도현의 이번 시집에서는 우와 같은 형태의 단형서정시가 유난히 돋보인다.

80년대 후반의 교단풍속도를 솔직하고도 눈물겹게 묘사하고있는 《봄편지》, 《2월》, 《그곳》, 《이리중학교》, 《월급날》, 《평교사》, 《보충수업》, 《급훈》, 《청소》, 《어린 조국》, 《교실에서》, 《빈교실에서》, 《운동장에서》, 《평교사를 위한 시》 등 이러한 부류의 일련의련작들은 그자체가 시로 쓴한국교육 리면사로서 손색없는 품위를 이미 확보하고있다.

그의 시집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것은 1930년대의 개성적인 시인 백석의 시적호흡과 창작원리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고있다는 점이다. 지난 1987년 11월에 《백석시선집》이 발간된 이후 근 두해동안 백석의 시가 지닌 독특한 창작원리와 시적호흡을 체득하여 새로운 감수성으로 재창조해가려는 노력을 시도한 몇몇 시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백석연

구가이면서 시인인 김명인, 최두석, 박태일 등이었고 시인 리시영, 송수권, 안도현 등이 잇달아 이 작업에 짙은 관심을 표시했다. 기실 백석시의 창작원리는 일찌기 청록파계렬의 시인을 포함한 《문장》지 출신 시인들과 운동주 등 당대의 상당수 젊은 시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왔고 또 이 영향의 흔적은 오늘날 《한국》시의 저변에 방법의 보편성으로 이미 넓게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백석은 분단시대 《한국》문학사에서 오랜 기간 매몰되어왔으므로 《전집》 발간이후 그의 시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첫째 백석이 분단의 비극적정황과 그 중심에 놓여진 시인이라는점, 둘째 백석의 시가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망실되어가는 생생한 북방정서를 환기시켜줌으로써 분단극복의지를 정서적으로 한결 고양시키고있다는점, 셋째 대체로 줄글형태인 백석시의 강력한 설화성과 작품공간에 반영된 시인의 주도면밀한 구상이 80년대후반 《한국》시의 형태적혼란과 정서의 건조상태에 신선한 긴장과 적절한 습기를 더해줄수 있다는 점 등이다. 안도현은 늦게나마 새롭게 정리된 백석시의 의미와 활용방법 및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있는 시인이다. 그의 이번 시집에서 우리는 백석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도처에서 발견한다. 우선 시집의 표제가 그러할뿐아니라 시인의 유년체험을 묘사한 시 《1960년대》는 백석시 《여우난골죽》, 《교야》, 《가즈랑집》, 《고방》, 《미명계》 등에서 잔잔히 배여있는 총체적인 감각을 련상시킨다. 북의 선배시인 백석을 그리다 못해 결국 꿈에서나마 그를 만나기 위해 남녘에서 발간된 《백석시선집》을 들고 찾아간다는 《백석선생의 마을에 가서》의 대체적인 줄거리 진행은 다음과 같다.

백석선생을 만나러 간다

흰 봉대같은 산길을 밤새 걸어(…)

나는 북방의 새벽 마을어귀에 도착하였
다. (…)

목이 길고 머리를 뒤로 넘겨 빛은 교수염의
한 사내가

거기 살고있었다(…)백석선생이였다

서울서 나온 《백석시선집》을 먼저 보았
니(…)

(…)날은 금세 어두워지고 무진장 폭설이
쏟아져 (…)

모밀국수나 한사발 말아먹고 천천히 떠나
라
기에

나는 찢찢 뚫는 아래목으로

이불속으로 못이긴척 엉덩이를 디밀었는데
여기서 한 백년쯤 잠들었다 일어나면

...

맑고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태
여날것 같았다

《고방》, 《하답》, 《동요부》, 《넘언집 범갈
은 노큰마니》 등의 백석시에서 영향을 받은듯한
시 《수박》은 맑고 순정한 문제를 지향하려는 시
인의 분명한 태도가 담겨있다. 《남신의주 유동 박
시봉방》에서의 호흡이 그대로 살아있는 시 《소시
민》, 모든 나뉘어진 존재와 존재들간의 합일정신
이 작품의 계기가 된 시 《모닥불》 등 일련의 시에
서 우리는 시인 안도현이 자신의 창작작업을 통해
보여주는 순정한 정신의 꿈을 충분히 읽어볼수 있
다.

이미 안도현은 우의 인용시에서 상점을 친 부분
처럼 《맑고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다.
경직 일변도의 방법적인식이 널리 만연되어있는 문
단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전통의 새로운 창조를 꿈꾸
는 시인 안도현의 존재는 돋보인다. 그가 자신의 시
에서 소멸대상으로 삼는것은 모든것으로부터의 소
외와 그로 말미암은 참담한 고독감이다.

그들이 획책하고있는 허황된 정치적인화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오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군사
파쑈분자들에 대해서 안도현은 《군인도 원래 농민
의 아들》(《농민과 군인》)이였으므로 결국에는
그들의 참마음이 량심의 세계로 복귀할것이라 략관
한다. 그가 시에서 복원대상으로 떠올리는것은 인
간본연의 너그럽고 순정한 마음, 우리가 건설해야
될 참력사, 참교육 그리고 우리가 끝끝내 도달하지
않으면 안될 참인간의 세계이다. 이 세상 모든것이
어둠의 나락에서 신음하며 갈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맑고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 곁에 있
으므로 우리들의 삶은 불안하지 않다. 그 시인들은

력사속에서 력사를 끌어안고 그자체가 력사인 삶을
살아가고있기때문이다.

6

시절은 어느덧 20세기의 세기말로 접어들고있는
데도 분단은 조금도 극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다. 청산되어야 할것이 조금도 청산되지 않은채로
시의 꿈과 정치적인화는 여전히 갈등관계에 놓여있
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총체적인 꿈인 조국의 통일
을 위해서 앞으로 시와 정치와의 갈등은 더한층 심
화되어야야 하리라고 믿는다. 이러한 갈등의 심화
를 바탕으로 엄정한 자기 극복을 거친후에라야 우
리는 항시 불만족속에서 꿈꾸어온 민족적리상의 세
계에 도달할수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
에서 읽어본 세 시인들의 시작품도 갈등의 문제에 관
한 한, 앞으로 맞다들어야 할 과업이 매우 많고 험
난하며 또 그러한 과정의 필연성에 대하여 동의한
다. 그러나 시인을 포함하여 민족적정의의 편에 서
서 활동하고있는 우리모두는 모든 일과 방법의 사
려깊은 신중함을 진작 깨닫고있다.

한비자가 짐짓 비유로 말하는 각삭지도에 있어서
얼굴을 조각할 때 처음에는 코를 크게 눈은 작게
다듬어야 한다는 대목이 곧 그것이 아닐가. 한번 작
게 만든 코는 다시 크게 하기 어렵고 한번 크게 만
든 눈은 또다시 작게 되고치기 어려운 법이니 우리
모두가 념원하는 민족적리상 즉 진정한 독립과 자
유의 실현도 이와 같은것이다.

일의 절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앞의세
련 시집들을 읽으며 눈여겨 지켜보았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속으로 다짐하자. 정치적인화는 짧고
시의 꿈이 펼치는 시간은 영원하다는 불변의 진리
를.